



# 한국 문화예술 재원흐름 동향조사: 분석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2021. 01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 문화예술 자원흐름 동향조사: 분석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주 관 기 관 : 이음스토리  
연구 책임자 : 황용구(이음스토리)  
참여 연구원 : 김재중(이음스토리)  
백두산(중앙대학교 정책학 박사)  
장진민(재단법인 천정)  
김재승(이음스토리)



# 목차

---

## 제1장.

### 서론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 연구 범위, 방법 및 절차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4

## 제2장.

### 문화예술 공공지원체계 분석

제1절 : 문화예술 공공지원과 전달체계	22
1. 문화예술 공공지원체계	22
3. 문화예술 공공재정의 전달체계와 분석틀 설정	27
제2절 :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유형	34
1. 유형 설정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 검토	34
2. 문화예술 지원사업 범주화	40

---

## 제3장.

### 문화예술 공공재원구조 분석

제1절 :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출 자원 및 재정현황	46
1.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출 자원	46
2.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현황	52
3.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현황	58

## 제4장.

### 문화예술 공공재원 흐름 분석

제1절 : 문화예술부문 기능별 예산 분석	64
1. 중앙정부	64
2. 지방정부(광역시도)	66
3.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 예산 비교	70
제2절 : 문화예술부문 성질별 예산 분석	74
1. 중앙정부의 재정	76
2. 지방정부(광역시도)의 재정	78
제3절 :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흐름	81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광역시도)의 순지원 규모	81

---

2. 문화예술 공공재정의 흐름	83
------------------	----

## 제5장. 민간부문 재원의 구조와 흐름

제1절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구조	90
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구조	90
2. 민간재원 현황 및 규모 분석	101
제2절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규모 추계	125
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	125

## 제6장. 결론

제1절 :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0
1. 연구결과 요약	130
2.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143
참고문헌	150
[부록]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중 문화예술사업 현황	151



## 표 목차

---

[표 1-1]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5년간 재정 추이	2
[표 1-2] 문화예술부문이 포함된 문화및관광분야 소관 및 회계 구분	8
[표 1-3] 중앙정부의 재정에 포함되는 문화예술부문(프로그램 예산체계)	9
[표 1-4] 지방정부 재정의 문화예술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10
[표 1-5] 문화여가부문 지표	11
[표 1-6]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13
[표 1-7]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13
[표 1-8] 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14
[표 1-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	15
[표 1-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	17
[표 1-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관련 자료	19
[표 2-1] 한국 문화정책의 거시적 변화	22
[표 2-2]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국가별 모형	23
[표 2-3] 시기별 공공지원의 특징과 공공지원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전달구조의 변화	24
[표 2-4] 2000년대 중앙정부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 설립 현황	25
[표 2-5] 지방정부 산하 문화예술 지원기관 설립 현황	25
[표 2-6]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 및 9개 의제	25
[표 2-7] 2020년도 예산 편성시 문화예술부문 지방이양 사업	26
[표 2-8]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27
[표 2-9] 문화예술지원 유형의 구분 · 내용(문화체육관광부, 2016)	35
[표 2-10] 기존 연구에 나타난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구성 사례	36
[표 2-11] 문화예술분야 재정지표	37
[표 2-12] 직접 및 간접 지원의 개념을 반영한 문화예술지원 유형 구분	38

---

[표 2-13] 중앙정부의 예산(프로그램 예산체계)	41
[표 2-14] 문화예술지원 유형의 구분	42
[표 2-15]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개념 정의 및 사업 예시	43
[표 3-1] 프로그램 예산 분류	48
[표 3-2]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지출예산	50
[표 3-3] 지출(세출) 예산의 편성 체계(10억원 예산의 세부사업 예시)	50
[표 3-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과목체계 비교	51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도별 문화예술부문 지출예산	52
[표 3-6]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부문 재정 규모 (프로그램 수준)	54
[표 3-7]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부문 재정 중 문화예술지원 규모(단위사업 수준)	55
[표 3-8]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문화예술부문 세출예산	58
[표 3-9] 광역시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정책사업 세부 구성 사례(서울)	59
[표 3-10]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부문 세출(지출) 예산규모	61
[표 3-11]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분야 예산규모 (단위사업 수준/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62
[표 4-1] 중앙정부 문화예술부문 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	65
[표 4-2]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부문 지출(세출)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	66
[표 4-3]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지원 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	68
[표 4-4] 문화예술부문 전체에서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예산 비교	70
[표 4-5]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시도) 예산 비교	71
[표 4-6] 각 시도별 정책대상 예산 지원	72
[표 4-7] 광역시도별 2020년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문화예술지원 예산	73

---

[표 4-8]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	75
[표 4-9]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중앙정부)	77
[표 4-10]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광역 시도)	80
[표 4-11]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 시도)예산 합계 및 순지원 규모	82
[표 4-12] 광역 시도의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수행방식별 규모	83
[표 4-13] 지원목적별 수행방식에 따른 중앙재정→지방재정의 이전지출 흐름	84
[표 4-14]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87
[표 5-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분류	90
[표 5-2]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91
[표 5-3]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92
[표 5-4] 재분류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특성	94
[표 5-5] 기부금의 법률적 개념	95
[표 5-6] 세제적격단체의 개념과 범위	96
[표 5-7]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98
[표 5-8]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98
[표 5-9] 민간재원 관련 활용가능한 주요 국가승인통계	101
[표 5-10] 복지분야 민간자원 총량 추계 관련 주요 연구	102
[표 5-11]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탐색 및 추계 관련 주요 선행연구	102
[표 5-12] 공급자 중심 접근방법에서의 조사대상 및 활용자료	104
[표 5-13] 연결매체 중심 접근방법에서의 조사대상 및 활용자료	105
[표 5-14]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현황	107
[표 5-15] 근로소득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유형	107
[표 5-16]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및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108
[표 5-17] 공익 목적의 개인 기부금 규모 추계	109

---

[표 5-18]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기부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109
[표 5-19]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기부 희망 분야	110
[표 5-20]	통계청 사회조사를 반영한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금 규모 추계	111
[표 5-21]	전체 법인 현황	112
[표 5-22]	법인 규모별·상장여부별 기부금 신고 현황	113
[표 5-23]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현황	113
[표 5-24]	민간기업 기부금 총액 추계	115
[표 5-25]	연도별 기업의 사회공헌재원 현황	115
[표 5-26]	연도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분류 및 비중	115
[표 5-27]	영리법인의 민간재원 현황	116
[표 5-28]	전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현황	116
[표 5-29]	전체 공익법인의 사업목적별 현황	117
[표 5-30]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의무공시 법인 현황	118
[표 5-31]	2018 사업연도 기준 설립유형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현황	118
[표 5-32]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자산 및 총수입 현황	119
[표 5-33]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자산 현황	119
[표 5-34]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수입 현황	120
[표 5-35]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현황	120
[표 5-36]	2018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주요 기부금 수입 공익법인 현황	121
[표 5-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도별 기부유형별 기부금 현황	123
[표 5-38]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현황	123
[표 5-39]	2018년 기준 문화예술 민간재원 측정·분석범위 및 총량추계	125
[표 5-40]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와 규모	126
[표 5-41]	문화예술 민간재원 선행연구결과 비교	127

---

[표 5-42] 2019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 및 비중	128
[표 6-1] 문화예술지원의 사업유형 분류	130
[표 6-2]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예산 합계 및 순지원규모	131
[표 6-3]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시도) 예산 비교	132
[표 6-4]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중앙정부)	133
[표 6-5]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광역시도)	135
[표 6-6] 광역시도의 2020년도 문화예술부문 지출(세출)예산의 수행방식별 규모(당초 예산 기준)	136
[표 6-7]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137
[표 6-8]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137
[표 6-9] 재분류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특성	138
[표 6-10] 2018년 기준 문화예술 민간재원 측정·분석범위 및 총량추계	140
[표 6-11]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와 규모	141
[표 6-12] 문화예술 민간재원 선행연구결과 비교	142
[표 6-13] 지원목적에 따른 전달(지원) 유형의 상세화	148

## 그림 목차

---

[그림 2-1]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예산의 전달 형태	28
[그림 2-2]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30
[그림 2-3] 선행조사의 예술지원 전달흐름 분석틀	31
[그림 2-4] 공공재정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분석틀	33
[그림 3-1] 공공재정의 구분	47
[그림 3-2]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분류(일반회계의 경우)	48
[그림 3-3]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분류(일반회계의 경우/서울)	49
[그림 4-1] 공공재정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중앙재정→지방재정 전달체계 분석틀	88
[그림 5-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범위	91
[그림 5-2]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 및 수요주체	93
[그림 5-3]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재원의 형태 및 흐름	94
[그림 5-4] 참고: 임팩트 투자의 역사와 규모	99
[그림 5-5]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99
[그림 5-6]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전체흐름	100
[그림 5-7] 선행연구의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103
[그림 5-8] 공급자 중심의 추계 접근방법 (음영처리 부분)	104
[그림 5-9] 연결매체 중심의 조사 접근방법 (음영처리 부분)	105
[그림 5-10] 개인 기부금 연구조사 방법	106
[그림 5-11] 개인 기부금 민간재원의 범위	108
[그림 5-12] 문화예술 민간재원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	110
[그림 5-13] 법인 기부금 및 사업지출 연구방법	112
[그림 5-14] 영리법인 재원의 구성 및 범위	114
[그림 5-15] 공익법인 재원의 구성 및 범위	117

---

[그림 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도별 기부금 현황	122
[그림 5-17] 2018년 사업연도 기준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문화예술분야 자원현황	124
[그림 5-18]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	126
[그림 5-19] 연도별 조사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이	127
[그림 5-20] 2019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비중	128
[그림 6-1]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전체 흐름	139
[그림 6-2]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	141
[그림 6-3] 연도별 조사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이	142
[그림 6-4]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예시	145

# 제1장

---

##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가. 문화예술 지원규모 파악의 어려움

■ 확대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규모에 따라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 문화예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원의 총규모와 현황, 지원체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4조 4,224억원(2014년) → 5조 2,578억원(2018년)으로 연평균 약 4.4% 증가<sup>1)</sup>
  - － 문화예술부문은 2014년 1조 3,618억원에서 2018년 1조 6,38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표 1-1]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5년간 재정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합계(a+b)	44,224	49,959	54,948	56,971	52,578	4.4%
예산(a)	23,208	25,546	27,698	29,055	28,693	5.4%
기금(b)	21,016	24,413	27,250	27,916	23,885	3.3%
문화예술부문***	13,618	13,825	15,069	16,092	16,387	4.7%
콘텐츠	5,185	6,107	7,492	7,296	7,140	8.3%
관광부문	12,316	13,719	14,111	15,538	14,021	3.3%
체육부문	10,463	13,541	15,386	15,021	11,850	3.2%
문화및관광일반부문	2,642	2,768	2,890	3,024	3,180	4.7%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p.91)

\*\* 합계(a+b)는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소관 재정 및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수치임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중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다양한 재원구조 변화에 대한 파악의 필요 증대

- 문화예술분야의 공공부문 예산은 지원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지원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어 복잡한 재원구조의 파악을 통해 어떤 세부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실증적인 파악이 필요함

1) 재정이라 함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의미하나(한국재정정보원, 2019),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숫자로 표현되는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액과 기금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함

- 지원예산은 대체로 마지막에는 문화예술단체(또는 개인)로 지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수행(대행)기관 또는 단체를 거치는 경우가 늘어나 사업비 내에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사업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정확한 규모 산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나. 객관적 통계 산출을 통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 ■ 공공지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산출 및 구분을 통한 정책 마련 필요

- 문화예술분야 지원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예: 공연예술조사)에서도 예산의 세부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 이해하는데 미흡한 상태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 필요
  - 공공재원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성 필요
- 문화예술지원 체계, 재정규모 및 흐름, 사업동향을 파악하여 문화예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통계자료 구축이 시급함
  -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된 사업예산 현황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 필요
  - 지역분권 및 재정분권<sup>2)</sup>을 위한 예산 편성 방향과 함께 지원규모 및 흐름에 대한 시의적인 데이터 생산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

## 다. 공공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 문화분권 시대의 문화예술 재정 지출 변화와 그에 따른 전달체계의 다양성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초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함(2020.2.10.)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②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③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④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 도출
  - 2005년 이후 지역분권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기금 포함)의 사업이 지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UNESCO에서는 지난 20년간 문화분야를 포함한 공공정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과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 조직이나 비정부의 이해관계자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UNESCO, 2019)

2)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행정 및 재정 기능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재원조달과 재정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국회예산정책처, 2018)

- 문화분야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확대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과 그에 걸맞은 정책 수립이 예술 현장의 논의와 결과에 따른 요청에 의해 반영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 공공재정의 형성과 집행도 일방향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닌, 전달체계의 점검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 됨

#### ■ 문화예술분야 재정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 증대

- 문화예술분야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도 정부 중심의 의사 결정과 일방향 성격을 가지는 구조를 벗어나 탈중심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부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문예진흥원이 2005년에 위원회 체제로 탈바꿈하고 광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등 다양한 공공지원주체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지형도에 변화가 생김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고(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업의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 기반의 공공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재정 전달체계는 이전보다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임
- 문화예술지원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도 있으나 문화예술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현 시점의 완결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공지원 유형 검토를 통한 거버넌스 분석이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재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 2000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의 공적 지원기관이 다수 설립되고, 사업 체계 및 유형이 다양해졌음에도 사업 목적에 따른 재정의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라.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분석 체계 미흡

####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분석 및 현황파악의 어려움

- 아직까지 국내의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에 관한 통계자료 구성이 미흡하며, 지원의 규모와 현황 등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
  - 사회복지분야는 1차, 2차 자료 등 통계자료도 일정 부문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재원<sup>3)</sup> 추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행
  - 반면 문화예술분야는 2014년 및 2015년 진행된 연구 이후 민간재원에 관한 조사 부재
  - 기존 조사된 2014년 및 2015년 연구 역시 프레임 설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분류된 재원구성 역시 개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재정리할 필요성 제기

---

3) 민간자원 나눔총량 추계연구 등

## 2. 연구의 목적

### 가. 공공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분석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고 지역분권, 문화분권 정책이 확대되면서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원주체와 전달주체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점검함

- 연대별 문화정책의 거시적 변화와 함께, 시기별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특징과 전달구조의 변화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부(공공)의 지원 역할의 변화를 알아봄
-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재정분권을 통한 사업과 예산의 지역 이관이 가져오는 전달체계의 단순화 노력에 대하여 사업 이관 자료를 통해 알아봄

■ 문화예술 공공재정의 전달체계에 따른 분석틀 설정

- 공공지원 전달체계 분석을 위해 재정(예산) 전달 행위자를 구분하고,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 사업 규모를 파악함
  -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정책 전달대행기관(공공기관 또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국민으로 구성되는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알아봄
  - 직접 지출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 규모를 파악함
- 선행 조사연구에 나타난 공공지원 구조와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직접지출(수행), 민간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의 흐름을 반영한 분석틀 설정 가능성을 검토함
  - 재원별 전달 체계와 규모에 대한 세부통계가 부족하여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에나 세부사업 예산의 과부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중앙정부 →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재정의 성격과 원인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선행 조사 검토를 통해 재원의 이전지출에 따른 사업 수행의 형태로 흐름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함
  - 이를 통해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 지방정부-산하 출연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로 이어지는 재정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분석을 위한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지원체계의 유형 설정을 통한 지원사업 범주화

- 선행 조사연구 검토를 통해 지원 유형의 사례를 알아보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범주화하여 사업 대상과 사업 유형을 구분함
  - 공공부문 예산편제의 가장 하부 단위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에 따른 유형을 분류함
  - 사업의 주요 대상과 지원 목적에 따른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재정별 투입되는 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함

## 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자원 구조 분석

### ■ 공공부문 문화예술 자원 구조 파악 및 특징 분석

- 공공예산 편성체계를 기본으로 문화예술분야의 공공부문 지원을 위한 자원 구조를 파악하여 지원체계와 더불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함
  - 공공재정의 구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예산과목 체계 분류상의 차이점도 분석함

###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부문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살펴봄

- 각 재정별 최근 연도 예산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예술부문 예산의 증감률을 집계함
  -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공공기금 등으로 구분되는 공공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분석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함
  - 재정별로 프로그램을 통한 총액 예산을 알아보고, 단위사업 수준의 예산을 파악하여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함

## 다. 문화예술분야 공공재원의 흐름 분석

### ■ 공공재정 문화예술부문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산을 분석하여 문화예술 지원목적별 사업 예산의 규모를 재정별로 파악함

- 예산과목 체계에서 나타나는 최하위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액 예산 규모와 함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원목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예산을 파악함
  - 유형별 사업 예산의 비율과 그에 따른 특징을 개괄하고 중앙재정과 광역 시도 재정의 예산을 비교, 분석함

### ■ 공공재정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각 재정의 세출(지출) 예산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이전지출의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의 흐름을 분석함

- 사업의 수행방식을 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수행방식별 예산을 지원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함
  - 개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내에서도 복수의 수행방식이 예산과목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실제 지원대상으로 이전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함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전되는 예산의 규모와 이전으로 인한 중복 수치를 제거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부재정의 순지원 규모를 파악함
- 문화예술 공공지원체계 및 자원 구조 분석에 따라 설정된 분석틀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도식적으로 분석함
  - 직접지출과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로 이어지는 민간이전, 그리고 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 출연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로 이어지는 재정의 흐름을 분석함

## 라.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체계 파악 및 규모 추계

###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구성 및 체계 정리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고 어떤 체계와 흐름을 가지는지 정리하여 분석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종류와 개념, 주체, 범위를 분석틀 설정 차원에서 검토하여 비교함
  - － 민간재원의 문화예술 흐름을 도식화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 － 유형별 구분된 민간재원의 특성과 자료활용 방법을 정리하여 기술함
- 유사한 선행연구 검토 및 향후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1·2차 자료 분류를 통해 기초자료의 기능 제공
  - － 민간자원 관련 탐색 및 추계조사의 접근방법(분석틀)을 정리하고, 국가승인통계 및 다른 통계자료의 특성과 내용, 활용방법을 제시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현황과 규모 추계

- 국세통계 등 국가승인통계와 타 연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자원 주체별 자원 규모를 추계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기부금에 기초한 개인과 법인의 자원규모 파악 및 문화예술분야 투입 재원을 추산함
  - －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사업지출 규모를 추산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 1. 연구의 범위

#### 가. 공공부문 재원의 범위

- 공공부문 문화예술분야 재원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과 광역자치단체(17개)의 2020년도 문화예술부문 세출(지출) 당초 예산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및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재청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외의 부처나 재정에서는 순수 문화예술 예산이 아닌 콘텐츠 또는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1-2] 참고)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예술부문 재정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함<sup>4)</sup>
- 지방정부의 경우, 문화및관광 분야 내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으로 부문을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부문에 한정하여 자원과 규모를 산출함
  - 지방재정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17개)의 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한정하여 분석함
- 일반적으로 세출에 쓰이는 자원이라 함은 국채나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나<sup>5)</sup>,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예산과 기금의 세출(지출) 편성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표 1-2] 문화예술부문이 포함된 문화및관광분야 소관 및 회계 구분

소관	회계명	상세회계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 수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일반회계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개 프로그램
	특별회계	특별회계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5개 프로그램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1개)
		언론진흥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1개)
		영화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육성(1개)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1개)

4) 문화예술부문은 위 자원 이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지원과 거리가 있어 포함하지 않음

5) 국가재정법 제18조(세출재원)

소관	회계명	상세회계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 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일반회계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콘텐츠방송산업육성(1개)
	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콘텐츠방송산업육성 등(7개)
		정보통신진흥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프로그램(1개)
지방정부 (광역자치 단체)	일반회계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지자체별로 상이함
	특별회계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지자체별로 상이함
	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지자체별로 문화예술분야 기금 설치 여부 및 기금명은 상이

\* 이외에 문화재청도 문화및관광분야 소관부처이나 문화재 부문만 포함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단위사업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가장 상위 단위를 의미함

\*\*\* 음영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함

\*\*\*\* 지방정부에는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 공공부문 문화예술분야 재정의 범위

○ 문화예술분야 재정의 범위는 정부의 예산체계 중 ‘문화및관광’ 분야 중 ‘문화예술’ 부문으로 한정함

- 국가 재정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16대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모두 “⑥문화및관광”으로 분류되어 있음
- “문화및관광” 분야는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및관광일반’의 4개 부문으로, 지방재정은 ‘문화재’까지 포함하여 5개 부문으로 예산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4가지 부문 중 ‘관광’과 ‘체육’은 제외하고, ‘문화및관광일반’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역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

[표 1-3] 중앙정부의 재정에 포함되는 문화예술부문(프로그램 예산체계)

공통구분			기능별 구분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① 예술의 창작 역량 및 사회 적가치 제고  .....  .....  .....	① 예술창작역량 강화 ② 예술향유기회 확대 ③ .....	
	특별회계 (균특*, 아시아**)		관광		.....	.....
	기금회계 (문예, 체육..)		체육		.....	.....
			문화 및 관광일반			.....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 ○○○○	○○○○ ○○○○	
	기금회계					

\* 균특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아시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의한 세출(지출)예산 편성 단계에서 고려되는 정부의 분류 기준을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추출함
- [표 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통구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사용하고, 기능별 구분에서는 [문화및관광(분야)-문화예술(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구분에 의해 연구를 진행함
-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분야 및 부문까지는 일치하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정책’이 있으며 ‘정책’ 하위에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동일하게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문화및관광-문화예술-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구분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서를 수집, 정리하여 분석함

[표 1-4] 지방정부 재정의 문화예술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li> <li>■ 공공도서관</li> <li>■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li> <li>■ 예술·국악단 등 육성</li> <li>■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li> <li>■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li> </ul>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062) 관광	(생략)	(생략)
	(063) 체육	(생략)	(생략)
	(064) 문화재	(생략)	(생략)
	(065) 문화및관광일반	(생략)	(생략)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작성지침 (p.126)

\*\*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영상, 광고, 종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재정 자료 활용시 기초 자료 작성에는 포함하되, 문화예술 지원규모 산출 및 재정 흐름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음

## 나. 공공지원사업의 세부분야와 범위

- 문화예술 관련 통계조사에 나타난 문화예술의 범주를 참고하여 문화예술부문 내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세부분야를 구분함
- 국민의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아래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관람 혹은 참여 여부를 묻고 있음(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 음악(클래식, 오페라,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
- 위 범주에서 영화와 대중음악, 연예는 시장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문화산업에 해당할 수 있어 정부의 문화예술 재정 지원과 전달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중 문화예술활동(창작, 유통/매개 또는 향유)과 거리가 있는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만화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부문 내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 대상에 포함<sup>6)</sup>
-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여가부문 지표에 나타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구분([표 1-5] 참고)
  - 통계청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회조사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관심영역은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활동과 문화의식으로 구분됨
  - 문화예술의 경우 문화시설, 예술행사, 예술관람, 문화예술교육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설문조사이나, 특정 영역과 세부 영역을 연결하면서 문화산업은 문화예술과 별도로 구분되고 있음

[표 1-5] 문화여가부문 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문화유산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시설, 예술행사, 예술관람,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도서출판, 신문, 텔레비전
사회문화활동	관광여행, 체육활동, 여가활용 및 조건, 시간배분
문화의식	문화의식

\* 통계청 사회조사(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에서 재인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의한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종무, 홍보 등을 포괄하고 있음
- 현재의 문화예술부문은 성격이 상이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지원목적에 따라 세부사업을 문화예술지원원과 문화산업육성,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부 재정의 가장 하위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목적 등을 분류하고 지원 규모와 재정 흐름을 분석함<sup>7)</sup>
  - 문화산업육성에는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등을 포함하여 분류함

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복합시설, 창작공간시설, 문화전수보급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7)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속하는 영역이나 종무, 홍보 등 명확히 문화예술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킴

- 기타에는 종무, 홍보, 문화재, 어문 등의 성격을 가진 사업과 함께 내부거래와 보전지출도 함께 포함하여 3개 구분단위의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예산 총액과 같도록 구성함
  - 문화예술부문 예산에서 문화산업 관련 사업과 종무, 홍보 분야 사업을 제외할지라도 세부사업 내에 문화예술로 보기 힘든 내역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산업과 종무, 홍보 등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외에는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 순수예술에 대한 장르 기준 판단의 어려움, 세부사업 내 장르가 혼합된 경우 및 연구진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추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데이터 추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체계에서의 분류를 기준으로 삼아 진행함
- 전달체계 분석시에는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한정하여 재정 집행주체로부터의 전달 과정과 지원 구조를 분석함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지원 대상이 되는 순수 문화예술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므로, 문화산업이나 종무, 홍보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전달체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의 재정 총액을 산출할 경우와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문화예술부문의 지원 규모를 산출할 때에는 포함하여 통계를 생산함

## 다. 민간재원 연구의 범위

### ■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의 개념과 범위 설정<sup>8)</sup>

- 재원별 특성, 수익형/비수익형 등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재원의 분류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유입되는 민간재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
  - 예술단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원구조에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유입형태에 대한 상세 분류를 통해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함

### ■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분야 재원 행위자의 특성

- 민간재원의 문화예술분야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각각의 주체를 지원 공급주체와 수요주체로 분류함
  - 공급주체 : 개인, 기업, 시장, 제3섹터(NPOs), 공동체 등
  - 수요주체 : 창작과 향유의 측면에서 예술인·예술단체(1차 수요), 개인·공동체·지역(2차 수요) 등
- 관련하여 민간의 재원공급과 같이 재원 흐름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에 따라 민간의 재원 공급 주체를 민법과 조세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함<sup>9)</sup>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 주체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함

8) 민간부문은 재원, 지원주체, 수혜집단이 공공부문과 달라 별도로 연구의 범위를 정함

9)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
- 비영리법인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영리법인은 기업이 직접 주체가 되는 경우와 회사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함
  - 기업 : 기업내 사회공헌팀과 같이 관련 조직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 재단 : 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 비영리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되며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함
  - 문화예술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임의단체(전문예술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사례도 많음

[표 1-6]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주체	구분			예시
개인	일반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업설립 재단, 공공기관 등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외 의무공시 대상	

#### ■ 문화예술 민간자원 관련 매개조직

- 직접적인 지원주체는 아니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중간조직이 존재하며 이를 매개조직으로 구분함
- 매개조직은 정보제공, 홍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기부금 세제혜택 제공 등 매개·촉진 활동을 통해 민간분야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하며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 가능함

[표 1-7] 문화예술 민간자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구분		예시
공공분야 매개조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	서울문화재단 등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
민간분야 매개조직	문화예술 관련	한국메세나협회 및 지역 메세나협회 등
	일반공익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모금기관 등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가. 공공부문

#### ■ 연구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수집

- 재정정보를 수집,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서 공개 및 제공하는 인터넷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함
  - 공공부문의 투명한 재정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관련 내부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정부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 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구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고,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총지출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함
- 문화예술분야 지원 현황 개괄을 통해 분석틀을 미리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세부 데이터 추출 및 통계 작성 후 재정 규모,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함([표 1-8] 참고)
  - 중앙정부 소관 재정 자료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예산 추출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재정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세부사업 내용 및 수치 확인에 활용
  -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추출
  - 지방정부 예산을 개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내려 받아 전체적인 모습 파악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파악을 위해 지방정부 행정사이트에서 관련 항목 추출 및 데이터 생성

[표 1-8] 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시스템명	누리집 주소	운영주체	설명
열린재정	<a href="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a>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재정정보공개시스템</li> <li>·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 예산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하는 시스템</li> <li>· 상세재정통계 DB에서는 지방재정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음</li> </ul>
지방재정365	<a href="http://lofin.mois.go.kr/portal/main.do">http://lofin.mois.go.kr/portal/main.do</a>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i> <li>·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경영정보를 알기 쉽게 한 곳에서 공개하고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시스템</li> </ul>

[표 1-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

구분	자료명	자료 출처경로
문화체육관광부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 2020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 2020년 문화정책관 예산집행계획	부처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sup>10)</sup>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 2020년 기능별 세출예산총괄표 · 2020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20년 기금운용계획 · 재정공시(지역통합재정회계)	지방재정365 > 지방재정전문통계 > 예산 > 우리 지자체 예산서 > 지자체별 누리집으로 이동 후 해당 자료 <sup>11)</sup>

## ■ 수집 자료와 추출 및 정리

### ○ 중앙정부 : 2020년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sup>12)</sup>

- [1단계] 2020년도 당초(본)예산(국회 의결)을 기준으로 총액 및 총지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정리한 예산편성현황을 추출(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
-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정(예산+기금) 자료를 내려받아 문화예술부문만 추려 세부사업의 성격 구분 및 이전지출 여부와 금액 확인(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3단계] 사업대상,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자료 구성(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확인 등)
- [4단계] 세부사업별로 예산과목에 의해 자체경비(직접수행), 이전지출경비로 구분하여 자료 재구성

### ○ 지방정부 : 각 광역자치단체별 2020년도 본예산 세출사업명세서(17개)

- [1단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를 통해 지방정부 전체 재정규모 파악 : ‘문화및관광’분야 중 ‘문화예술’부문에 한정
- [2단계]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운영)를 통해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부분 행정사이트로 접속, 예산서 추출 및 금액 확인
  - 2020년도 당초(본)예산(의회 의결) 기준으로 총지출 예산 관련 문서를 내려받아 연구진이 정리
  - 세부사업별 자원 구성(중앙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지방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채)을 자료 구성단계에서 구분하여 후반 작업시 활용
  - 세부사업별로 분야 및 부문이 표기되지 않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공개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분야 및 부문이 표기된 단위사업 수준의 세출사업명세서와 (표기되지 않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교차 확인을 통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고 예산액과 일치 여부 확인
  - 문화예술 관련 기금이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수 조사하여 기금운용계획 문서를 내려 받아 지출예산 데이터 추출
- [3단계] 사업대상,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자료 구성(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확인 등)

10)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List.jsp](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List.jsp) (접속일자 : 2020.11.20.)

11)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3](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3) 에서 각 지자체 누리집으로 이동 (접속일자 : 2020.11.20.)

12) 세입·세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총액, 총수입, 총지출 등이 있으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수입) 또는 세출(지출)의 합산을 의미하는데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를 보전하는 차입거래) 포함 → 중복 계산되어 실제 재정 규모가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총액에서 출발하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총지출 개념으로 접근함

- [4단계] 세부사업별로 예산과목에 의해 자체경비(직접수행), 이전지출경비로 구분하여 자료 재구성

#### ■ 재정 규모 산출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예산 파악

- 분야/부문/프로그램(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순서로 최종 정리하였으며, 목/세목단위까지 함께 수집하였으나 목 수준으로 최종 자료를 정리함
  - 이전지출을 위한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세부사업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과목과 이전지출되는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자료를 구성함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이전지출 예산을 구분하여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중앙재정 및 각 광역자치단체 소관 지방재정의 문화예술부문 전체 재정규모 산출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프로그램(정책)별, 단위사업별 총액을 계산하여 전달체계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비율 산출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중복 예산을 제거하여 순지원 규모 파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재정을 제거하여 실제 문화예술지원에 쓰이는 재정 규모를 파악함
  - 재정 규모 산출시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 총액을 추출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별로 내부 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총지출 개념으로 규모 산출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이 지방재정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출처를 세부사업별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예산만큼 공제하여 중복을 제거한 후 총 지원규모를 산출함
- 사업 유형별 분류 기준에 따른 규모 산출
  - 세출(지출)예산서내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지원목적에 따라 상세 구분하되,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진행
  - 세부사업별로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통해 해당 세부사업의 내용과 시행주체 등을 확인하고 분류함<sup>13)</sup>

#### ■ 이전지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재정의 흐름 도식화

- 이전지출에 대한 규모 및 흐름 분석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민간단체로 이전되는지 알아봄
  -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 연도의 생산 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국재정정보원, 2019)
  - 출연금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정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김철회, 2008; 128)

13)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 (접속일자 : 2020.11.25.)

- 중앙정부의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의 사업설명자료에 기술된 지원형태로 볼 때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출연, 출자, 융자 등으로 구분됨<sup>14)</sup>
  - － 지방정부의 경우 세부사업 개요에서 직접수행(10), 보조(20), 출연/출자(30) 등으로 지원형태를 구분하고 있음<sup>15)</sup>
  - － 직접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예산과목)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정의 전달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시 이전지출(Current Transfer)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sup>16)</sup>
  - － 보전금(310), 민간이전(320), 자치단체이전(330), 해외이전(340), 일반출연금(350), 연구개발출연금(360) (괄호 안은 예산과목 중 목에 해당함)
-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는 이전지출 예산 코드는 다음과 같음
  - － 일반보전금(301), 출연금(306),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 이전(308), 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표 1-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

구분	예산과목
중앙정부	보전금(310), 민간이전(320), 자치단체이전(330), 해외이전(340), 일반출연금(350), 연구개발출연금(360)
지방정부	일반보전금(301), 출연금(306),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 이전(308), 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 기획재정부(2019),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본 연구에서는 위 예산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단체)에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이전되었는지 알아보고 예산의 흐름을 파악, 전달체계를 구성함
  - － 정부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나타나는 ‘직접’ 혹은 ‘보조’라고 표현되는 사업에서 보조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각종 회의비,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 － 따라서, 실제 정책 대상에 전달되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비목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비와 이전지출되는 경비를 구분하여 파악한다면 더 정확한 이전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 중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부문의 이전지출 과목은 대체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출연금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일반보전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민간

14) 열린재정 누리집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권」 또는 「사업설명자료 찾기」 메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음

15)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 (접속일자 : 2020.11.5.)

다만, 실제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과목이 혼재되어 있어 보조(20)사업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사업운영비 등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예산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16) 기획재정부(2020), 「2020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해당됨

-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위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출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재원주체에서 다른 쪽(지방정부, 산하기관(시설), 민간단체(개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알아봄

## 나. 민간부문

### ■ 1~2차 자료 활용을 통한 민간재원 규모 측정

- 사적(私的) 이전에 기반을 둔 재원의 흐름이 모두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회계적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엄정한 항목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재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다른 분야의 민간자원 총량 연구는 복지와 관련된 민간나눔자원을 주제로 대부분 국세통계연보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추계의 방법을 활용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연구 현황

- 문화예술 민간재원 총량 추계의 경우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소수의 연구 결과 역시 2차 자료 부재에 따라 추계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음
- 이에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조사는 대부분 기부금 관련 2차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해당 연구조사의 대상을 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으로 임의 구분한 것은 한국메세나협회의 2차 자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정됨
  - 개인 기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세통계는 활용하지 않음

### ■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 및 추계의 접근방법

-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과 추계는 다른 연구 분야와 달리 국가승인통계 등 2차 자료활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우며 2차 자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 구성이 요구됨
-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급자(provider) 중심’ 접근법과 ‘연결매체(intermediary agent) 중심’ 접근법 활용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
    -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은 재원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 즉 민간재원 공급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조사방법으로, 공급자(민간주체)가 재원을 어떤 상대(수혜자)에게 제공했을 때 생성되는 조세혜택 정보나 공급자의 재무회계에 반영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를 추산함
    - 세부적으로 공급의 각 부문별 지출내역을 통해 접근하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을 통해 추계. 국세통계 등 2차 자료 활용이 중심이 되며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특징이 있음
  -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방법
    -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방법은 제공된 민간재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그 흐름에 주목

- 재원이 공급자(민간주체)에 의해 생산되어 상대(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을 위해 접근성, 편의성이 높은 연결매체(매개조직)를 경유하는 경우도 많음
- 연결매체 접근법은 재원의 유통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원의 과소 추정이라는 단점을 지님

■ [참고] 문화예술지원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표 1-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관련 자료

자료명		지원주체	출처	용도	특이사항
[공공]					
중앙정부	세출지출세부 사업예산편성 현황 (총액/총지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중앙정부(문체부) 소관 전체 예산 파악	- 예산+기금의 총지출액 파악 가능 - 세부사업까지 파악 가능 - 경비 구분(기본경비, 인건비, 주요사업비) 가능
	예산 각목명세서 (회계와 기금 포함)	문화체육 관광부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사업별, 목별 예산 확인	- 복잡한 구조(각목) - 예산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1)	문화체육 관광부	국회 제출자료	세부사업별 내용 확인	- 일반회계에서 소속기관으로 지원되는 예산 등을 파악 가능 - 개별 소속기관의 사업 내용은 파악이 어려움
공공기관	예산서 (또는 사업계획서)	소속기관 공공기관	각 기관 예산서	기관별 상세예산 내역 파악 (경상비, 사업비)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내에서 소속 기관공공기관에 전달되는 예산의 총액 파악 가능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지자체별 세출(지출) 예산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정부의 부문별 재정규모 파악	- ‘문화및관광’(기능)으로 구분되어 파악 가능 - ‘문화및관광’의 하부 메뉴(부문)로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재/문화및관광일반’으로 구분되어 부문별 예산은 파악 가능 - 세부예산은 파악 불가(예: 문화예술 부문의 세부사업) - 자원별 예산도 파악 가능하나 기능별 구분만 가능 (부문별 자원은 파악 불가) * 광역지자체의 ‘문화및관광’ 예산과 국별 예산(예:문화체육국)의 총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임

자료명		지원주체	출처	용도	특이사항
	광역자치단체 예산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365 (개별 지자체 누리집으로 연결됨)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재정규모 파악	- 기능별(문화및관광) 총액 파악 가능 -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파악하여 문화예술분야 예산 추출 가능(다만, 일관된 기준 설정이 어려움) * 기능별(문화및관광) 총액과 해당국의 예산 총액이 다름 - 예산서에 재단 운영지원만 있는 경우 사업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함
지방공공기관	광역문화재단 예산서	광역문화재단	개별재단 (경영공시)	지역 문화예술 재정 규모(상세) 파악	- 체계가 모두 달라 (사업비 안에 인건비, 인건비가 섞여 있음, 모호한 제목 등..) 파악하기가 어려움
	광역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광역문화재단	개별재단 (경영공시)	해당 재단의 업무 개요 파악	- 업무계획은 해당 기관의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기능별, 목별 체계는 파악하기 어려움 - 경영공시에 업무계획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방의회 등에서 찾아야 함)
[민간]					
	기부금 사용실적 명세서	공공기관, 광역문화재단	개별 협조 또는 경영공시 (국세청 누리집 또한 가능)	기부금 내역 및 활동 현황 파악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내역을 공시해야 하므로 자료 입수에 문제는 없음 - 상세한 내역(사용처, 장르, 기부자 등)은 별도로 협조를 구해야 함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한국메세나협회	단체 누리집	기부금 내역 및 활동 현황 파악	- 전체 금액, 분야별 금액은 파악 가능 - 개별 기업의 기부금 파악 불가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단체 누리집	기업의 사회공헌 금액과 내용 파악	- 문화예술과 체육이 하나로 묶여 있어 문화예술만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 (설문지에 아예 문화예술체육으로 구분되어 있음)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국세청 누리집	개인, 법인의 기부액 신고에 의한 자료 축적	- 개인근로자 : 유형별 기부인원·기부금액 - 종합소득자 : 유형별 기부인원·기부금액 - 법인 : 법정·특례기부금 및 기부금액,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신고현황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 누리집	기부행태 및 기부액 조사	- 연간 정기적인 기부여부, 연간 기부금액 - 소득집단별 연간 기부액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관 누리집	패널 대상으로 기부액 및 분야 조사	- 조사항목 : 기부분야, 연간 기부금액 - 통계 : 연도별 기부금액, 기부분야별 지출현황

## 제2장

### 문화예술 공공지원체계 분석

## 제1절 문화예술 공공지원과 전달체계

### 1. 문화예술 공공지원체계

#### 가. 한국의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변화

##### ■ 연대별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변화

- 연대별로 문화정책의 거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발표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음
  -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산 1%가 달성되고, 문화기본법 시행(2014년)을 통해 중앙정부 위주의 문화예술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이 됨
  - － 또한,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였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체제 전환(2005년)을 통해 예술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음

[표 2-1] 한국 문화정책의 거시적 변화

분류	시기	주요 변화
문화정책 안정화	1990년대	- 문화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연속성 유지 → 문화, 체육, 관광의 3대 영역 포괄
	2000년대	- 문화예산 1% 달성
	2010년대	-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지원정책에서의 민간 자율성 확대	2000년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출범 → 예술계의 자율성 확대에 방향 전환 → 팔길이원칙의 실현
	2010년대	- 블랙리스트 사태 발생
문화향유권 증진으로 방향 전환	2000년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2010년대	- 엘리트체육 + 생활체육의 통합체제 구축
문화산업정책의 등장과 확대 발전	1990년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2000년대	- 문화산업의 본격화 -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역할
국제사회로 진출	1990년대	- 적극적인 문화교류 활성 전개 - 세계화 전략으로 문화교류 정책 추진

분류	시기	주요 변화
	2000년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국가 간 문화협정 체결 진행
	2010년대	-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 확대

\* 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pp.27~28)

#### ■ 시기별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특징과 전달구조의 변화([표 2-3] 참고)

- 1990년대까지는 사실상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시행이 주를 이루던 시대로 볼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년) 이후 부처의 일부 기능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문예진흥원을 통해 시행됨
  - 1980년대 들어 생활문화정책과 더불어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이 대폭 늘어나게 됨
- 1990년대에도 문화예술정책의 중앙화는 계속되었지만, 문화부가 독립부처로 바뀌게 되고 지역문화재단이 일부 설립되기 시작함
  - 문화복지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문화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음
  - 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설계자 모형과 기술자 모형이 복합적으로 운용되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 전반을 주도하는 가운데 문예진흥원은 산하 지원정책 집행기구로서 기능해왔음(박민권·장웅조, 2020)<sup>17)</sup>
  - 당시 문화예술 인프라 부재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은 불가피하였으나, 예술계의 자율성 침해와 진흥원의 독임제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의 비민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2000년대에는 문화예술정책의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문화예산 증가와 더불어 지역문화, 문화예술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예술계의 참여에 의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천명하면서 문예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17) Chartrand & McCaughey(1989)이 제시한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가별 모형은 크게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patron), 설계자(architect), 기술자(engineer)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표 2-2])

[표 2-2]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국가별 모형

국가 역할	촉진자 (Facilitator)	후원자 (Patron)	설계자 (Architect)	기술자 (Engineer)
추구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정책 목표	다양성	수월성	사회적 복지	정치 교육
정책 변동	-	점진적	혁명적	교정적
예술적 기준	-	전문적	공동체적	정치적
강점	재원의 다양성	수월성 지원	상업성 완화	정치적 목적 달성
약점	수월성 지원 미흡, 개인 기부자의 평가	엘리트주의	창조성 저해	선전으로서의 예술

출처: Chartrand & McCaughey(1989), 박민권·장웅조(2020: 106) 재인용

- 전환된 이후 팔길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 중앙정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 신설되면서 해당 기관과 협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 과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짐([표 2-4] 참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공공문화재단의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함([표 2-5] 참고)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경기문화재단(1997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경북문화재단(2019년)까지 설립되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음
  - 1990년대까지 1개(강릉)에 불과하던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은 2000년대(25개), 2010년대(74개)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을 맡고 있음
  - 공모사업 위주의 단순 지원형태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신설과 지역공공기관의 증가는 정부 예산의 전달체계가 과거보다 좀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낳고 있음

[표 2-3] 시기별 공공지원의 특징과 공공지원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전달구조의 변화

시기	공공지원체계의 변화	정부(국가)의 지원역할
199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li> <li>- 문화공보부의 일부 기능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1984~)</li> <li>- 문화기반시설(예술의 전당 등) 건립 및 생활문화정책 시행(1980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통제’ → ‘지원/조장’ 방향으로 변화</li> <li>→ 문화의 민주화 및 지방문화의 육성 시도</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 독립(1990) 및 중앙정부(문화부)에 의한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지역문화재단 설립 시작 : 경기문화재단(1997), 강원문화재단(1999), 강릉문화재단(1998)</li> <li>- 문화산업의 개발과 우리문화의 세계화 지원</li> <li>- 문화복지의 정책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문화권에 대한 가치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부처형 모델로 설계자(Architect)에 가까움</li> <li>→ 문화예술정책의 중앙화 지속</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범(2005)</li> <li>- 지원 거버넌스 변화와 함께 국고사업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지역으로 이관(2009년/218억원 규모)</li> <li>- 문화예산 1% 달성</li> <li>-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신설 증가 :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10개 기관 신설</li> <li>-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전개(지원기관 신설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년)</li> <li>- 지역문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의 증가(광역 7개 및 기초 25개 재단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자(Patron)와 촉진자(Facilitator)의 혼합 형태</li> <li>○ 자율과 협치, 문화분권에 중점</li> <li>→ 기초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분권화</li> </ul>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지원기관 신설(예술인복지재단/2012년)</li> <li>- 기초문화재단의 지속 증가(74개 재단 신설)</li> <li>- 전체 광역지자체 문화재단 설립 완료(8개 재단 신설)</li> <li>- 지역문화자생력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예산의 증대와 균형 지원 및 예산집행의 신속성 부여</li> <li>-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투입</li> <li>- 중앙재정의 지방 이양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융성, 일상의 문화향유, 지역문화 강조</li> <li>→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기반한 ‘사람이 있는 문화’ 강조</li> <li>→ 창작환경 개선, 생활문화 지원, 예술인복지 증진</li> </ul>

\* 지원역할은 Chartrand & McCaughey(1989)의 국가 예술지원 모형을 참고하여 설명을 시도함

[표 2-4] 2000년대 중앙정부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 설립 현황

설립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관명	한국공예 디자인문화 진흥원	한국문학 번역원, 국악방송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한국문화 정보원	한국국제 문화교류 진흥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예술경영 지원센터	전통공연 예술진흥 재단

\* 일부 기관의 경우 복수의 기관이 통합되거나 설립 이후에 공공기관화된 사례도 있음

[표 2-5] 지방정부 산하 문화예술 지원기관 설립 현황

설립연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광역자치단체		2개 (강원, 경기)	7개 (제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전남)	8개 (경남, 광주, 충북, 충남, 세종, 울산, 전북, 경북)
기초자 치단체	서울	-	4개	18개
	경기관	-	7개	15개
	강원권	1개	3개	7개
	충청권		3개	5개
	경상권	-	5개	23개
	전라권	-	3개	6개
	제주권	-	-	-
	합계	1개	25개	74개

■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재정분권을 통해 전달체계의 복잡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최근 수년간 ‘지역 특성화’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부각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제시하며 3대 방향과 9개 의제를 제시함(대한민국정책브리핑<sup>18</sup>)([표 2-6] 참고)
  - ‘공동체 다양성 실현’을 위해 지역 문화분권을 강조하며,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가 아닌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자 함
  -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문화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둠

[표 2-6]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 및 9개 의제

구분	3대 방향	9개 의제
문화비전 2030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 실현
	공동체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 문화 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18)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508>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을 재원과 함께 지방재정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sup>19)</sup>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2020년에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행사지원’(이상 군특회계 자율계정), ‘예술의 관광자원화’(문예진흥기금) 등의 사업이 이관됨(137,449백만원)([표 2-7] 참고)<sup>20)</sup>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중앙재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타 회계·기금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되는 등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이양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7] 2020년도 예산 편성시 문화예술부문 지방이양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사업명	2019년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군특자율계정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03,286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14,867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5,04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9,588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877
		(문예회관 건립 지원)	20,613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14,504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3,136
		(전통문화진흥지원)	3,98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1,881
		(복합문화시설조성)	2,800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7,938
		○ 지역문화행사지원	16,830
		○ 예술의 관광자원화	9,395
		(지역대표공연예술제)	9,395
	합계		137,449

\* 기획재정부(2019),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69) 및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p.34~36)를 재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사업만 정리함

- 19) 중앙재정의 예산편성 주체인 기획재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소요재원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기획재정부(2019),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8)
- 20) 문화예술부문 외에도 관광자원개발(군특회계 자율계정/243,516백만원), 기초 관광자원개발(군특회계 자치시도 계정/16,756백만원)등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는 등 재정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2. 문화예술 공공재정의 전달체계와 분석틀 설정

### 가. 공공지원 전달체계

#### ■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제공(전달)을 분석할 때 가정할 수 있는 전달 행위자의 구분

- 정책을 개발, 수립하는 주체를 발신자라고 칭하고, 재정 지출을 통한 정책 대상의 맨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는 집단을 수신자로 본다면 아래 [표 2-8]과 같이 전달 체계를 구분할 수 있음<sup>21)</sup>
  - － 공공부문에서 발신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되고, 전달경로에서 특색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경우 이를 중간 전달경로에 있는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음<sup>22)</sup>
  - － [표 2-8]의 내용은 문화예술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최종 수신자(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보여주고 있음
  - － 크게 4가지의 기본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와 B유형은 중앙정부, C와 D유형은 지자체(지방정부)를 발신자로 보고 정책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고 있음
  - － 중간전달경로는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으로 구분되고 수신자는 국민 또는 ‘문화예술기관…국민’으로 표현됨
  - － 4가지 유형을 요약하면, 정부-중간전달경로-수신자로 나누게 되고, 중간전달경로의 형태에 따라 세부유형이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임

[표 2-8]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구분		정책서비스 전달 체계				
기본유형	세부유형	발신자	중간전달경로			수신자
A유형	A1 유형	정부	-	-	-	국민
	A2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	-	국민
	A3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	지역문화재단	국민
	A4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	국민
	A5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A6 유형	정부	-	지자체	-	국민
	A7 유형	정부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A8 유형	정부	-	-	지역문화재단	국민
B유형	B1 유형	정부	-	-	-	문화예술기관…국민
	B2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	-	문화예술기관…국민
	B3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21) [표 2-4]의 B유형을 보면 수신자는 문화예술기관에서 국민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결국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으로 볼 수 있음

22)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나, 결국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면에서 발신자는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로 생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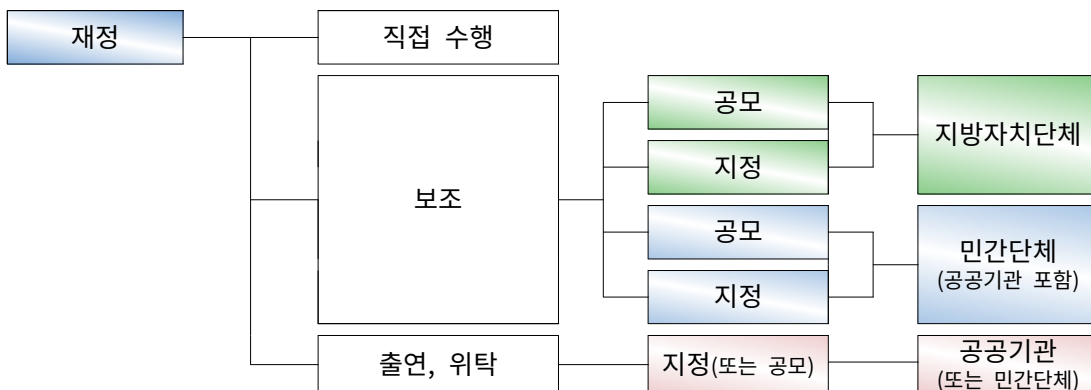
구분		정책서비스 전달 체계				
기본유형	세부유형	발신자	중간전달경로			수신자
	B4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	문화예술기관...국민
	B5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B6 유형	정부	-	지자체	-	문화예술기관...국민
	B7 유형	정부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B8 유형	정부	-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C유형	C1 유형	(지자체)	-	지자체	-	국민
	C2 유형	(지자체)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D유형	D1 유형	(지자체)	-	지자체	-	문화예술기관...국민
	D2 유형	(지자체)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 박영정(2012), 「지역문화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시도문화재단대표자 회의 자료집』 (김세훈, 2014에서 재인용)

## ■ 정부의 보조사업 규모 파악을 통한 재정의 전달 현황 파악

- 재원을 보유한 지원주체(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수립된 예산으로 일부는 직접 수행(사용)하거나 보조, 위탁 등을 통해 민간단체나 자치단체에 예산을 전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 직접 수행(사용) 또는 전달(예산의 이전) 형태에 따라 아래 [그림 2-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하여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예산에 자체 예산을 더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산하기관에 지원하는데, 산하기관에는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도 함
  - － 민간단체에는 순수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 형태로 지원하여 이들 공공기관이 다시 사업을 공모하거나 직접 수행의 형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정책 대상(예: 문화예술단체)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그림 2-1]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예산의 전달 형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sup>23)</sup>
  - － 공모/지정 및 민간/지자체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정 전달을 파악할 수 있음
  - － 단위사업명을 통해 자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파악할 수 있으나 사업 소관국별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지정 및 공모)에 대하여 정리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보조사업의 2020년도 예산액은 1조 479억원으로 나타남<sup>24)</sup>
  - － 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정사업은 4,704억원, 공모사업은 534억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정사업은 3,830억원, 공모사업은 1,410억원 규모로 집계됨
  - －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에서도 자치단체이전과 민간이전(주로 공공기관) 예산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어 재정의 전달 흐름은 좀더 복잡해질 수 있음

## 나. 재정의 전달체계를 고려한 분석틀 설정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간 자원 또는 재정의 이동을 감안한 공공지원 전달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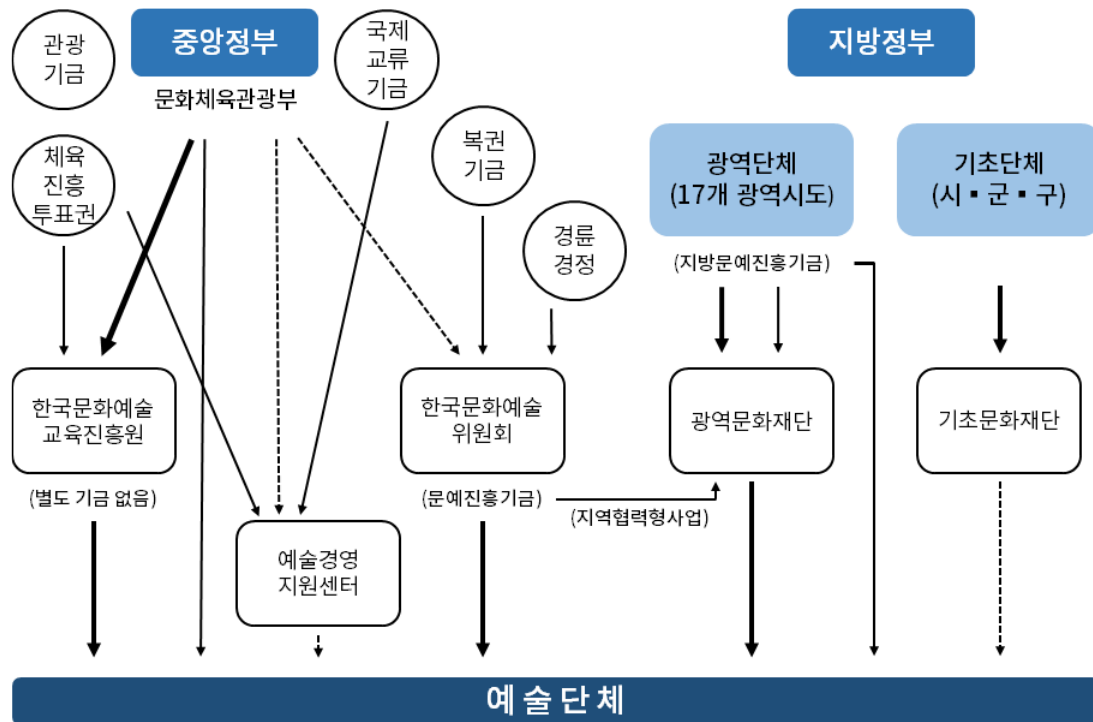
- 지원주체의 성격을 감안한 지원구조 도식화
  - － 김성규(2015)는 재원을 보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전달기관을 거쳐 문화예술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지원 구조를 도식화함([그림 2-2] 참고)
  - － 다만, 자원보다 지원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체육기금이나 복권기금과 같은 자원과 정부나 공공문화재단과 같은 지원주체를 함께 표현하고 있어 지원의 흐름이 단순한 자원의 이동인지 구체적인 사업비의 지원인지 여부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sup>25)</sup>
  - － 또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신설이 이어지면서 전달체계는 과거보다 좀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그리고, 2020년 현재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나 기금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전지출되는 경우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이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23)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재정의 보조를 받는 경우 중앙정부의 내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세출예산 편성시 세부사업화하여 설정하고 있음(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3)

24) 보조사업 현황에는 추경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당초예산과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추경사업(2개/5,650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1,042,259백만원 규모임(부록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중 문화예술분야 현황」 참고)

25) 예를 들어 경륜경정사업에 의한 수익금 배분에 의해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그 용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권기금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 지정되어 있어 위 도식에 의해 자원의 흐름까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으나, 실제 공공지원 구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잘 정리된 구조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2]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 김성규(2015) 「문화예술단체 재원조성」 (p.69)

■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 필요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회계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는 민간단체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전지출의 형태로 나타남
  -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활용됨(한국재정정보원, 2019)
  -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용도를 정하지 않는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있으며, 사후 정산이 의무적이고 집행 잔액은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금, 출자금과 차이가 있음
- 지역분권 또는 재정분권을 위해 재원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
  - 자치단체보조와 같은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방재정으로 사업의 재원이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함
  - 재정분권화 정책에 따라 2020년에도 균특회계와 문예기금 사업 일부가 지역으로 이양되어 더 이상 중앙재정에서 관련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요구시 이양된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이양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사업 또는 다른 계속사업에 반영(요구)을 금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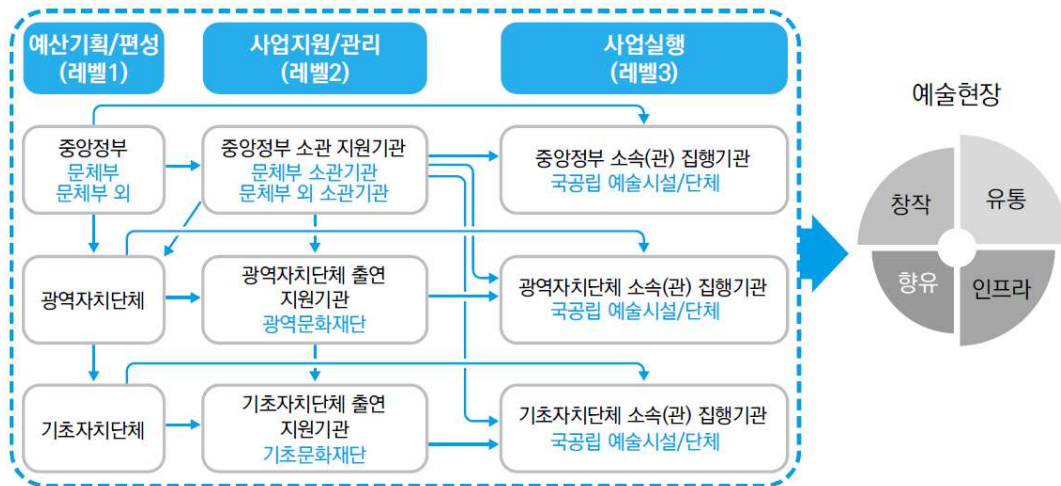
■ 선행조사의 접근방식 검토를 통한 재원의 이전지출에 따른 사업 수행의 형태 구분 가능성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16)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전달흐름에 따라 지원주체의 역할을 ‘예산 기획/편성’, ‘사업지원/관리’, ‘사업실행’으로 구분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

술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국공립문화시설, 국공립예술단체를 역할에 따라 구분함([그림 2-3])

- ‘예산편성/기획’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정부 소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사업지원/관리’ 주체로 구분함
- 그리고, 국공립 예술시설/단체를 예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실행 주체로 보아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이나 비재정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실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함
- 또한, 각 지원주체의 지원규모를 조사하고 예산상 중복을 제거하여 총 지원규모를 산출함

[그림 2-3] 선행조사의 예술지원 전달흐름 분석틀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p.9)

#### ○ 재원과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보는 이전지출에 의한 구분 가능성 검토

- 지원금을 예술단체에 전액 보조하는 경우 또는 매칭(matching)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전달하는 경우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2-3]에 의하면 ‘레벨1’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예술현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원/관리주체(‘레벨2’) 또는 사업실행주체(‘레벨3’)에 대한 예산 전달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제로 ‘예산기획/편성’의 역할을 하는 지원주체(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예술현장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재원의 출발(지원 시작)에서 예술현장에 이르기까지 전달의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현장의 시각에서 볼 때, A라는 사업이 재원을 가진 지원주체에서 수립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달 경로를 거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또는 금액의 많고 적음까지 고려될 수 있어, 지원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중간 전달자(공공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의 역할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수 있음
- 즉, 정책의 수립에 의한 예산의 수립, 그리고 이 예산이 전달되는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전달 행위자의 자율성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기 않으나, 지원주체가 가진 재원의 구조와 예산이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작업, 즉 이전지출에 따른 예산의 흐름을 사업 유형과 묶어 분석하는 것은 향후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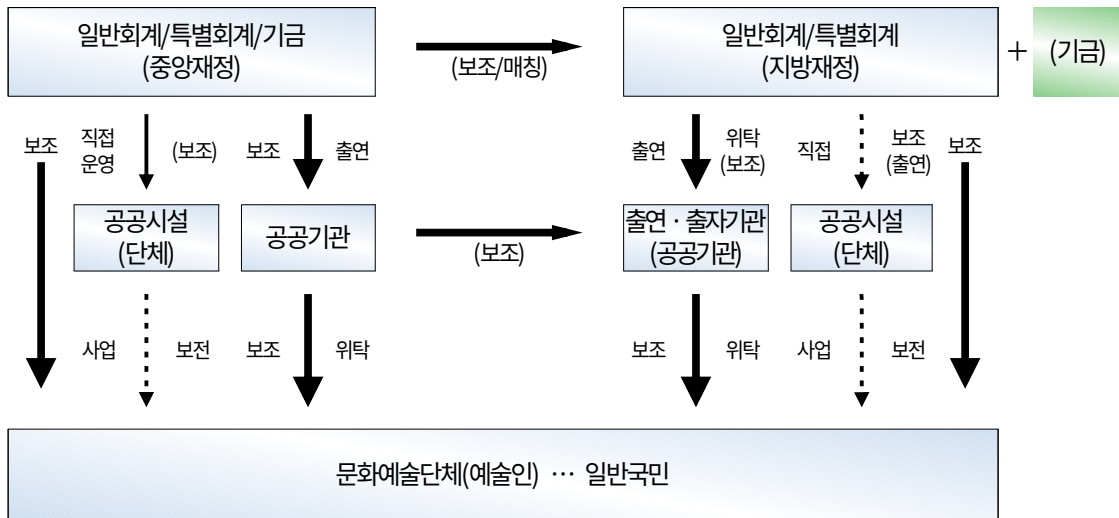
■ **재원별 소관(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외에 정책 대상에 이르기까지 매개 혹은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에 대한 파악 및 분석에 연계함**

- 예술가(예술단체) 또는 일반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볼 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집행하는 행위자(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재정이 전달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함
  - 이를 통해, 재정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고, 정책 대상이나 사업 목적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정책이나 사업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정책대상이 문화예술단체인 경우에도 결국 수혜자는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창작환경을 개선·강화하는 사업의 경우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대분류로 구분함
  - 공공기관(시설, 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예술계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고 해당 시설의 경상적인 운영 또는 시설 확충(건립·개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 대상을 별도로 구분함

■ **공공재정에 의한 전달체계 분석틀 설정**

-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전달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간단히 표현하면 [그림 2-4]와 같음
  -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예산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석틀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정부-산하(출연)기관/시설간 재정의 이동에 초점을 맞춤
  - 중앙재정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지방비와 보조금 매칭(matching)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자신들의 자체 예산을 합쳐 직접 문화예술단체로 전달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로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공시설(단체)을 보유하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원하기도 함
- 실제 세출(지출)예산이 집행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전달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추측됨
  -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적인 문화예술분야 기금인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같은 세출(지출)을 위한 재원은 각각 프로그램(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세부사업별로 직접 수행하거나 전달체계를 통해 이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재원의 흐름 분석을 위해서 재정 자료를 기반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재원별 또는 세부사업별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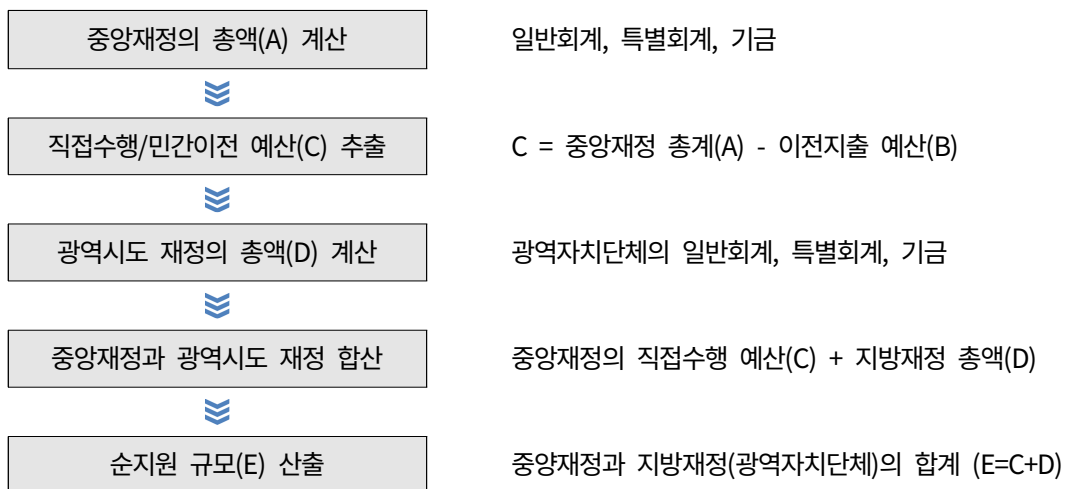
[그림 2-4] 공공재정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분석틀



- 사업을 위한 재정의 전달체계 안에서 다양한 지원형태가 어떤 사업과 맞물려 집행되는지 알아봄
  -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관련 자료를 구조화하여 전달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지 알아봄
  - － 지원형태는 보조, 출연, 위탁, 사업을 통한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전지출의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형태로 볼 수 있음

#### ■ 사업수행방식에 따른 이전지출 예산규모 파악

- 정부재정에 의한 사업수행방식은 크게 직접수행, 이전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 － 이전지출은 다시 민간단체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하여 직접수행 및 민간이전 예산으로 구분하여 추출하고, 광역자치단체 재정(직접수행, 민간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과 합산하여 문화예술지원의 순규모를 산출함





## 제2절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유형

### 1. 유형 설정을 위한 선행조사연구 검토

#### 가. 선행조사연구 검토

#####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 규모 조사(2016년)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sup>26)</sup>
  - 사업 내용에 따라 ‘창작’, ‘유통/매개’, ‘교육 및 향유’, ‘예술가 복지’,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단체 운영’, ‘예술형 지역재생’ 등 8개의 대유형으로 구분함(표 [2-9] 참고)
  - 대유형을 다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창작 지원’의 경우 작품(프로그램) 지원, 예술단체 지원, 예술인 지원, 창작공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유형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를 산출함
- 예술가 복지 지원에 대한 검토
  - ‘예술가 복지’를 예술인 복지 지원과 예술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예술인력 양성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하드웨어 건립과 공공시설(단체) 운영의 유형 구분 검토
  - 하드웨어 건립은 공공시설(단체)의 시설 개보수 및 문화지구, 000(명칭) 거리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시설(단체)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상비 지원과 해당 시설(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프로그램)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시설(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세부사업 예산 중 일반국민이나 예술단체(예술인)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세부사업으로 독립되어 있을 경우 공공시설(단체) 운영지원으로 보기보다 정책대상을 예술단체(예술인) 또는 일반국민으로 설정하여 사업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즉, 공공시설(단체)이 시행하는 예술단체(예술인) 대상 프로그램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드웨어 건립은 공공예술시설 건립 또는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명에서 시설 개보수와 건립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존 공공시설(단체)의 개보수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시설(단체) 운영으로 포괄할 수 있음
- 예술형 지역재생 유형 구분 검토
  - 문화지구, 미술의 거리, 아트빌리지 등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을 포함하고 있음<sup>27)</sup>

26)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7) 위의 보고서 (p.25)

[표 2-9] 문화예술지원 유형의 구분·내용(문화체육관광부, 2016)

유형	세부유형	정의
창작 지원	작품(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프로그램 등을 통한 작품 창작 지원
	예술단체 지원	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술인 지원	예술인 지원 (단, 예술인 교육 및 복지 지원은 해당없음)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창작 혹은 생활) 지원
유통/매개 지원	공연장 지원	민간 공연장 지원
	미술관 지원	민간 미술관 지원
	기타예술시설 지원	공연장, 미술관 외 민간 예술시설 지원
	예술행사 지원	민간 예술행사(예술축제 등) 지원 (단, 종교/관광 등의 축제 제외)
	국제예술교류 지원	예술활동의 국제교류 지원
	예술정보소통	민간 예술기관(또는 단체)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향유 지원	예술향유 목적의 사업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바우처
	생활예술지원	일반인의 예술활동 지원이 목적인 경우 예) 예술동아리, 일반인 대상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예술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예) 예술강사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가복지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	작품 지원, 전문교육지원 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술인력 양성	예술인의 전문교육지원(연수/역량강화)인 경우
하드웨어 건립	공연장 건립	공공 예술시설 건립 또는 시설 보수(리노베이션/리모델링)
	미술관 건립	
	기타예술시설 건립	
	복합시설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공공 공연장 운영
	미술관 운영	공공 미술관 운영
	기타예술시설 운영	공연장 미술관 외 공공 예술시설을 운영
	공연단체 운영	공공 공연단체 운영
	예술축제 운영	공공기관의 축제 직접 운영
	예술교육기관 운영	공공기관의 예술교육기관 운영
	복합시설 운영	예술과 다른 분야(예: 체육시설 등)가 결합된 시설 운영
예술형지역재생	예술형지역재생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 예) 문화지구, 미술의 거리, 아트빌리지
기타	기타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예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26)

■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투입지표 분석을 통한 지원 유형 구분 가능성 검토(문화체육관광부, 2011)

- 사업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지표 중 재정을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투입지표 분석을 통해 지원 유형 구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표 2-10] 참고)
  - － 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투입, 산출, 성과 및 영향지표를 구분함
  - － 이 중 투입지표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전 과정에서 투입되는 ‘공공 및 민간의 투입요소, 즉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resources)’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 －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재정 자료는 이 중 공공부문에서 투입되는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 중 재정적 자원에 해당됨
  - － 다만, 이들 지표 중 문화예술재정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예산지원’ 등이 포함되어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문화예술인력과 사업체 관련 지표는 민간투입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1)

[표 2-10] 기존 연구에 나타난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구성 사례(문화체육관광부, 2011)

정책목표	문화순환주기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 및 영향지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창작·제작·보존·교류 (교육 포함)	문화예술 재정 규모 (재정 자원)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활동 - 문화시설 건립·운영 - 문화예술 소비참여	(생략)	(생략)
문화적 환경 (인프라) 조성	매개·유통 (교육 포함)	2. 문화예술인력의 수 (인적 자원) - 예술 (창작·재현·기획) - 기술 - 경영·관리 - 교육 - 매체활동 - 행정/정책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소비·참여 (교육 포함)	3.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수 (물적 자원) - 문화유산·자연유산 - 공연예술축제 - 시각예술공예 - 도서출판 - 시청각·상호작용미디어 - 기타(교육, 행정 등) ※ 문화시설의 수 ※ 문화시설 기능별규모		

\* 문화체육관광부(2011; 156) 자료를 재구성

■ 정책목표와 상관있는 지표 설정을 위한 사업유형의 분류 시도

- 문화예술재정은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적 투입요소로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야의 사업에 투입되는지에 따라 구분됨([표 2-11] 참고)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고 볼 때, 정책 목표별로 사업 유형을 구분할 경우 향후 복수의 사업을 묶어 성과지표를 도출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설정한 뒤, 그 결과(성과)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는 재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서, 유사한 정책 대상과 사업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과지표 설정에 나타난 내용도 참고할 수 있음
  - 즉, 문화 순환 주기에 따라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 매개·유통, 그리고 소비·참여 등을 구분하고 투입지표를 구성할 때 재정적 자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문화시설건립·운영, 문화예술 소비·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
  - 위 구분을 지표화하게 되면 문화예술교육(공급자 대상/ 수요자 대상) 목적, 문화예술인력 및 사업체의 문화예술 창작·제작·보존·교류 활동 지원 목적,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 목적, 국민의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증진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1] 문화예술분야 재정지표

정책목표		지표명	설명
문화예술재정		문화예술재정 총규모	각 부문에 투입된 재정규모의 총합
부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재정 규모	문화예술교육부문에 투입된 재정규모
		문화예술활동지원 재정 규모	문화예술창작·제작·보존·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등에 투입된 재정 규모
	문화적 환경 (인프라) 조성	문화시설 재정규모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에 투입된 재정 규모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 향유 지원 재정규모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지원에 투입된 재정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2011; 158)의 내용을 재구성

■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개념을 반영한 구분 방식 검토

- 설정된 지원예산(재정)의 전달 대상지원의 대상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달 대상이 직접적으로 재정(예산)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 직접 지원으로 보고, 매개적 방식 즉 경로를 거쳐 전달되는 방식을 간접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상 민간이전 혹은 자치단체이전으로 분류되고 ‘예술가 및 예술단체’ 기준으로 접근할 때 민간이전에 해당됨
  - 박신의(2008)는 수혜 대상을 직접 지원에서는 ‘예술가와 예술 단체’로, 간접 지원에서는 ‘비평가, 예

- 술 행정, 예술 경영, 이론가·학자 혹은 시설'등 매개 인력이나 시설로 보고 있음
- 이와 별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의 사업을 창작(직접), 매개(간접), 유통(향유)로 사업  
별 지원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 예산을 이렇게 구분하는 접근법은 현재 통상적으로 매개/유통을 함께 보고, 향유관련  
사업은 별도 유형으로 본다고 할 때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지원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에서 국공립시설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투입되는 재정은 다시 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 건립으로만 보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는 박신의(200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문화예술 시설(기관)의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예  
술가와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수혜 대상에서도 예술가와 향유자, 매개자 등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이외에 다시 시설(기관) 관리·운영과 시설 건립(복원), 그리고 축제(행사) 개최·운영의 3가지를  
덧붙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함([표 2-9] 참고)
  - 다만, 간접 지원을 직접 지원과 구분하면서, 간접 지원 내의 다른 유형들, 즉 축제(행사) 개최·운영  
등의 유형을 다시 간접 지원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표 2-12] 직접 및 간접 지원의 개념을 반영한 문화예술지원 유형 구분

지원유형	조직적 정의	예시사업
직접 지원	지원금 수혜대상(문화예술단체)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 을 받는 사업	·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성화 지원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을 제외한 매개방식을 통한 지원사업	· 창작환경·기반 마련 · 정책·평가, 연구·보존 · 인력 양성 등
축제(행사) 개최 운영 지원	매개(유통) 영역이고 일면 간접 지원 성격이나, 조직적 체계 를 갖춘 단일 축제(행사) 지원이므로 별도 구분	· 아트 마켓·페어 · 비엔날레 개최 지원 등
기관(시설·단체) 관리·운영 지원	직접 혹은 간접 지원 성격이나, 별도 기관(시설·단체)에서 자체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홍보 등 기관 운영비 지원 포함	· 국립단체 운영 · 유물보존 관리 · 공연장(미술관) 운영 등
시설 건립(복원) 지원	문화예술 시설 건립과 복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박물관·공연장 건립, 문예 회관 건립 등

\* 박신의(2008; 41)의 분류를 재구성

## 나. 해외사례 검토

###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미국)

- NEA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장르 구분  
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sup>28)</sup>

28) <https://www.arts.gov/grants> (접속일자 : 2020.10.26.)

- Grant for the Arts Projects(단체 지원) : 가장 기본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장르를 구분하지 않으며, 예술창작, 예술교육, 지역공동체내의 예술활동 등을 지원함. 구체적으로 예술가 공동체, 예술 교육, 무용, 디자인, 전통 예술, 문학, 미디어아트, 박물관, 음악, 뮤지컬, 오페라, 복합장르, 연극, 시각 예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
- Our Town(단체 지원) : 프로젝트 기반 펀딩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성과를 발전시켜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노력에 예술, 문화, 디자인 활동을 통합하는 사업을 지원
- Research Awards(단체 지원) : ① 예술 생태계의 개별 요소간 또는 다른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예술의 가치 혹은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지원하거나, ② 사회 및 행동 과학에 기반을 둔 학제 전반에 걸친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 Creative Writing Fellowships(개인 지원) : 문학작품 창작을 위한 펠로우십 지원
- Translation Projects(개인 지원) : 출판경험이 있는 번역가를 대상으로, 비영어(非英語)로 쓰인 언어의 산문, 시, 드라마의 특정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 Partnership Agreements(단체 지원) : 국가 전체에 걸친 예술적 성과에 대한 연구와 확산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주(州) 단위의 예술지원기관(state arts agencies)에 대한 배분, 3개 이상의 주 단위 예술지원기관의 협업단체(Regional Arts Organizations)에 대한 파트너십 협약에 의한 지원을 포함
- National Folklife Network(단체 지원) : 미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각 지역내 관련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 전통예술관련 네트워크를 관리할 단체를 선정, 지원

#### ■ Arts Council England (ACE/영국)

○ ACE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sup>29)</sup>

- National Lottery Project Grants(단체/개인 지원) : 예술, 박물관,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Arts, museums and libraries projects)에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시설/박물관 및 도서관 포함)를 아울러 지원함
- Thriving Communities Fund(단체 지원) :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지역사회의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함
-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개인 지원) : 창작자(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새로운 작품을 위한 연구, 연습, 네트워킹 등에 대한 지원
- Culture Recovery Funds(단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 ■ Canada Council for the Arts(CCA/캐나다)

○ CCA는 6개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Engage and Sustain’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단체와 개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sup>30)</sup>

- Explore and Create(단체/개인 지원) : 예술 창작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창작, 조사·연구, 출판, 인턴십, 워크숍 등)

29) <https://www.artscouncil.org.uk> (접속일자 : 2020.10.26.)

30) <https://canadacouncil.ca/funding/grants> (접속일자 : 2020.10.26.)

- Engage and Sustain(단체 지원) :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예술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 Creating, Knowing and Sharing(단체/개인 지원) : 캐나다 원주민 전통문화의 보존·조사·연구·확산 등에 대한 지원
- Supporting Artistic Practice(단체/개인 지원) : 작품 창작 역량을 높이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거나, 예술가의 경력 개발에 대하여 지원
- Arts Across Canada(단체/개인 지원) : 지역사회에 예술작품을 발표, 공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투어, 번역, 축제, 국제교류(인바운드) 등)
- Arts Abroad(단체/개인 지원) :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작품의 타언어 번역, 레지던시, 해외 단체와의 공동 작업 등에 대한 지원

#### ■ 해외 공공지원 사업 유형에 대한 검토

- 해외 공공지원의 경우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르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영어권 국가에 한정하여 살펴본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예술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프로젝트(공연 등) 기반의 지원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창작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3개국 모두 나타나고 있음
  - Creative Writing Fellowships(미국),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영국), Supporting Artistic Practice(캐나다) 등의 사업을 통해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하나의 사업 유형을 크게 구분하고 세부 사업 유형은 지원 가능한 유형으로만 제시하여, 예술단체의 지원 신청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
  - 개별 사업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진행하기보다 큰 유형들 아래에 다양한 세부사업 예시를 통해 지원 주체와 신청 단체들의 자율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2. 문화예술 지원사업 범주화

### 가. 지원목적에 따른 사업 유형 설정

#### ■ 연구 대상이 되는 재정의 범주에 한정하여 문화예술지원의 유형을 구분함

-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시도)의 재정(예산+기금)을 대상으로 세부사업에 따라 문화예술지원의 유형을 설정함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

- 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문화및관광’(분야)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및관광일반’(이상 부문)으로 구분됨
- 각 부문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재정별로 세출예산(기금계획)을 구성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및관광’ 분야에 포함되는 문화예술부문에 한정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지원의 유형을 설정함
  - 따라서, 문화예술부문에 포함되는 순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콘텐츠, 미디어, 종무 등의 재정도 함께 포함됨
  - 지금까지의 조사연구가 순수 문화예술에 국한하여 진행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제 편성하고 있는 예산체계 중 순수 문화예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산출하고 있지 않음
  -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당 년도 사업계획 개요에서도 문화예술부문 중 문화예술과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순수 문화예술에 한정지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 등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재정 규모를 산출함

[표 2-13] 중앙정부의 예산(프로그램 예산체계)

공통구분			기능별 구분(예시)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문화 체육 관광 부	»»»	일반회계	»»»	문화 및 관광	»»»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향유기회확대 ..... .....
		특별회계 (균특, 아시아)						
		기금회계 (문예, 체육..)						

■ 공공부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지출(세출)예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업은 성격에 따라 ‘정책대상’, ‘지원목적’으로 구분함

- 선행 조사연구에 기술된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목표 설정이나 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형화
  - 창작과 향유 지원으로 크게 구별되는 지원 방식 분류에서 나아가 정책 대상을 예술인(단체)과 일반 국민으로 구분하고, 이 두 대상을 모두 사업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시설)을 정책 대상으로 추가함
  - 예를 들어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목적별 사업의 세부유형(복지지원, 유통/매개지원 등)을 모두 포함할 때 산출되는 예술가(단체) 대상 재정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대상별 사업예산의 시계열적 추이 파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운용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 대상 : 예산 수립단계에서 고려되는 주된 수혜대상을 분류하여 ‘문화예술인(단체)’, ‘일반국민’, ‘공공기관(시설) 운영’으로 구분함
  - 정책 대상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책 대상에 따른 지원목적별 사업을 구분함



- 공공기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나 결국 공공기관(시설)의 운영을 통해 예술계나 일반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예산의 비중이 낮지 않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공공기관(시설)의 사업 또는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공기관(시설)을 정책 대상에 포함함
- 지원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 설정 : 선행 조사연구 및 성과지표 설정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예술가(예술단체)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창작지원, 복지지원, 유통/매개지원, 국제교류 지원으로 분류함
  - 일반국민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활예술지원, 향유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함
  - 공공기관(시설)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기관(시설)에서 해당 세부사업을 통해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유형을 분류함

[표 2-14] 문화예술지원 유형의 구분

061 문화예술	정책대상	사업 유형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기준)	예시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작품(프로그램) 지원, 창작공간 지원
		복지지원	용자사업
		일자리 지원	전문교육, 인턴십
		유통/매개지원	국제교류, 예술정보, 민간공연장/미술관 지원
	국민	생활예술지원	경연대회
		향유활동지원	일반인 향유지원 소외계층 향유지원
		향유인프라구축	문화지구, 지역재생
		교육지원	일반인 교육지원
	공공기관 등 (공연장/미술관/도서관 /박물관/협회 등)	기관(단체)운영 지원	운영비(경상비), 시설 홍보
		시설건립(개보수)	공공기관(시설,단체) 시설의 신규 건립 또는 기존 시설 개보수
문화산업 육성	-	-	콘텐츠 육성
			미디어 육성
			저작권 보호
기타	-	종무	종교관련 축제 포함
		관광	관광관련 축제 포함
		문화재	지방정부(충남) 해당
		어문	국어(어문)
		홍보	브랜드개발, 포털, 매체홍보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예탁금, 반환금 등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총계 산출 목적으로 포함할 뿐 실제 지원활동과는 관계가 없어 데이터 분석시 수치에서 제외함

## ■ 정책대상 설정시 주요한 기준

- 기존 조사연구는 사업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세부사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정책 대상에 가까운 사업인지 따져 분류함
  - － 사업형태로만 보았을 때 지원사업의 유형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과 실제 추진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예를 들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은 유통/매개를 위한 사업형태로 볼 수 있으나, 예술가(단체)보다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향유활동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 상세한 사업유형의 구분을 통한 자료 구축의 일관성 시도

- 지원목적에 따른 사업 유형 구분시 세부사업의 내용이 복잡하고 복수의 지원사업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유형 구분이 쉽지 않음
  - － 따라서, 사업 예시를 명확히 하여 유형을 구분하여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 또한, 유형 구분을 다시 시도할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예시를 이동시킬 수 있어 자료 구성 및 변환의 용이함을 높일 수 있음
  - － 사업명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세부사업의 목적을 검토하여 적합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목적도 혼합되어 있는 경우 추진근거나 근거법령의 성격을 바탕으로 구분함

[표 2-15]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개념 정의 및 사업 예시

사업 유형	개념	사업 예시
창작지원	창작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예술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활동(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li> <li>· 예술단체 참여 경연대회(연극제, 무용제 등)</li> <li>· 예술인 지원(단, 교육 및 복지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li> <li>· 창작공간지원 :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조성 및 지원</li> <li>* 창작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향유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유활동과 구분될 수 있음</li> </ul>
복지지원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영위를 도울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사업(이차보전 등)</li> <li>· 예술인의 복지증진 관련 사업</li> </ul>
일자리지원	예술인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 : 예술인 대상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li> <li>· 인턴십</li> <li>*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편성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li> </ul>

사업 유형	개념	사업 예시
유통/매개지원	창작자(예술인)와 향유자(일반국민)가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공연장/전시장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li> <li>· 국공립 공연/전시시설(단체)의 공연/전시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사업</li> <li>· 축제(페스티벌), 북콘서트</li> <li>* 축제의 경우, 사업목적 및 내용뿐만 아니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지역축제 개최계획」(문화체육관광부)을 참고함</li> </ul>
생활예술지원	일반국민의 예술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관련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연대회, 백일장, 동호회(동아리) 지원 등</li> <li>* 매개/유통지원과 구분 :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대회는 창작지원, 문화예술단체(창작집단)와 향유자가 만나는 사업은 유통/매개지원,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단체(개인)가 참여하는 경연대회, 축제 등은 생활문화지원</li> </ul>
향유활동지원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시설의 국민대상 향유프로그램</li> <li>·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행사(축제 등) 지원프로그램(종교 또는 관광축제 성격이 도드라진 경우는 제외)</li> <li>·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향유프로그램(지역순회 공연 등)</li> <li>· ‘문화가 있는 날’ 관련 프로그램</li> <li>· 국공립 박물관의 상설전시/특별전시프로그램</li> </ul>
향유인프라구축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돕는 시설(공간,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조성사업</li> <li>·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li> <li>· 생활문화센터 조성 : 건립 목적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li> <li>*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지역재생으로 보아 향유인프라구축으로 분류</li> <li>** 온라인상 자료 구축 및 외부 제공활동(책자 제작배포, 자료 구축(아카이빙) 및 제공 등의 활동)도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향유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보아 포함</li> </ul>
교육지원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시설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li> <li>· 보조금에 의한 민간단체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li> </ul>
기관(단체)운영 지원	국공립단체(시설)/공공단체(시설), 유관기관(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L사업 :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지급</li> <li>·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협단체에 대한 보조(출연)</li> <li>*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로만 이루어진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단체)운영지원으로 분류</li> </ul>
시설건립(개보수)	국공립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이전)건립</li> <li>· 기존 국공립시설 개보수</li> </ul>

## 제3장

### 문화예술 공공재원구조 분석

## 제1절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출 재원 및 재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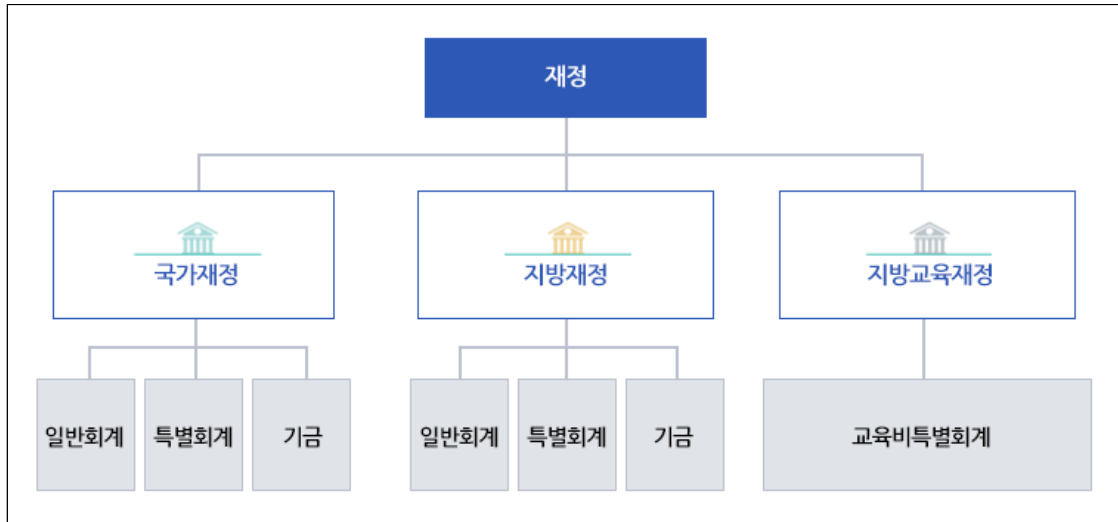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정부지출 재원의 구조를 알아보고, 지원주체별로 가지는 기능에 따른 재원의 생성(편성) 방식과 전달에 대하여 알아봄
- 정부지출 공공재원의 구분과 각 재정주체(중앙정부/지방정부) 재원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목 체계의 차이점도 파악함
-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공공부문 예산의 기능별 분류인 [분야-부문-프로그램(정책)-단위사업] 수준에서 현황을 파악함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부문 재정의 규모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예산편제상 각 수준에 포함된 예산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봄
  - －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수준으로 각 재정에 대하여 총 규모와 재정별 현황이 보여주는 특징을 살펴보는 동시에 문화예술지원의 실제 규모와 재정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냄
  - － 중앙재정의 광역시도 재정에 대하여 시도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수 및 총예산을 집계함

## 1.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출 재원

### 가. 한국의 문화예술 공공재정 구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나누어지는 공공지원체계
-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은 기획재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수립과 국회(지방의회) 제출, 그리고 국회(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
  - － 재정은 크게 나누어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되고, 각 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목적에 맞게 구성됨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만 구성됨)
  - － 의결을 거친 예산을 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하거나 예산항목간 이동(전용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황에 대처함
- 문화예술분야 공공지원체계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산 주무부처 또는 자치단체별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함
  - －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 전체를 볼 때 민간지원(후원) 대비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문화예술활동 주체들의 공공지원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와 관련이 있음

[그림 3-1] 공공재정의 구분



\* 우리나라 재정현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theme/themeProfile.do> (접속일자: 2020.10.25.)

#### ■ 지원주체별 기능에 따른 자원 생성 및 전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원별로 지출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조 또는 출연, 위탁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지출하게 됨
  - －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직접 보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매칭(matching)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금(예산)을 전달하게 됨
  - － 개별 사업 내에서도 예산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어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회의체 운영, 관리비용 등 행정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직접수행 비용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출하게 되는 이전지출 비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나.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지출 자원

####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의한 자원의 구분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도입
  - － 기획재정부는 2007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의 순서로 사업의 구성요소를 분류함
  - － 2007년 이전까지 ‘장-관-항-세항-세세항’으로 구분하던 예산 구조를 ‘장-관-항’은 ‘분야-부문’으로, ‘세항-세세항’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제를 변경함
  -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은 유사한 사업을 모아 성과를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어 ‘정책사업’으로 불리기도 함(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프로그램 단위를 ‘정책사업’으로 부르고 있음)

[표 3-1] 프로그램 예산 분류

구분	설명
프로그램	정책목표이며, 결과(outcome)로 표현 가능
단위사업	프로그램의 수단이며, 산출(output)로 표현 가능
세부사업	단위사업의 내역이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산출물(sub-outputs)로 표현 가능

\* 한국재정정보원(2018),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방향 연구」 (p.2)

####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중앙정부 재정(중앙재정)의 세출(지출)예산의 구조

- 중앙정부 재정(중앙재정)은 소관별, 회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3개 회계 모두 문화및관광(분야)-문화예술(부문)과 같은 기능별 체계로 분류할 수 있음
  - 세부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비목별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 예산 내에서 사업이 추진됨

[그림 3-2]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분류(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재정부, 「재정교실」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baeoom/baeoom02.do#none>)

#### ■ 문화예술분야 지출을 위한 중앙정부 재원의 특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외에도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방송 또는 콘텐츠 관련 사업이 문화예술로 분류되어 포함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원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전되는 내부거래 지출이 포함되어 있음

## 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지출 자원

### ■ 사업예산제도 시행을 통한 지방재정의 사업성과 제고 노력

- 기존 품목예산제도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용이한 성과관리를 위해 2008년에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분야와 부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단위로 한 사업체계를 구성하여 예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 지방재정 세출(지출)예산의 구조
  -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기능별 분류를 통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되고, 예산과목의 성질별로 8그룹으로 나누며 38개의 목으로 구분됨([그림 3-2] 참고)
  -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통합재정공시로 제공되고 있음
  - 문화예술부문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및관광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과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3]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분류(일반회계의 경우/서울)



\* 서울특별시, 「2020년도 예산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833>) (접속일자: 2020.11.2.)의 내용을 재구성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분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대신 ‘정책(사업)’이라는 용어로 하위의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통괄하고 있음
  - (예시) (서울특별시) [정책] 문화도시 서울 구현 - [단위사업] 문화시설 운영 지원 - [세부사업]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등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되고, 정책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함
  -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국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관리, 집행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구성됨
  - 기금은 설치된 경우가 있으나, 매년 지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님
  - 2020년 현재 문화예술부문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로 조사됨([표 3-2] 참고)

[표 3-2] 문화예술분문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지출예산

(단위: 천원)

광역자치단체명	기금명	예산액(2020년)
부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66,214,325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진흥기금	426,772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1,100,977
울산광역시	박물관및미술관기금	12,624,000
경상북도	문화진흥기금	641,154
합 계		81,009,248

\* 광역시도별 2020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예산을 추출하여 구성

#### ■ 문화예술분야 지출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의 특징

- 예산안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공통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업무 구조와 조직 체계로 인해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성격이 유사한 세부사업을 묶어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 다시 단위사업들을 묶어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광역시도에 따라 정책의 숫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 정책사업이 1개인 경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른 시도보다 많아지게 됨)
-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보조재원 포함사업)의 경우 자체 재원사업과 구분됨<sup>31)</sup>
- 회계간 지출인 내부거래 지출보다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이 포함된 보전거래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표 3-3] 지출(세출) 예산의 편성 체계(10억원 예산의 세부사업 예시)

회계구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목	세목	
일반회계 (or 특별회계 or 기금)	프로그램1 (정책사업)			단위사업(1,2,...,N) 예산의 합계
	단위사업1			세부사업(1,2,...,N) 예산의 합계
	세부사업1	예산액 합계		1,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8,500
		여비	국내여비	1,5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90,000
	세부사업2			...
	...			

\* 지방정부의 경우 지출예산서에는 담당부서(예: 문화기반조성과)가 함께 표시됨

31)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시 중앙재정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사업과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과목체계 비교

- 기능별 구분에서는 ‘분야’와 ‘부문’으로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고,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동일한 분야명과 부문명을 사용하고 있음
  - － 소관(조직)에 따른 구분과 사업목적에 의해 프로그램(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를 별도로 두는 점이 다름
  - － 중앙정부의 회계에서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성격의 예산이 있으나 적절하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 예산과목을 나타내는 성질별 구분에서는 목(편성목)-세목(통계목)으로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과목의 숫자만 차이가 남

[표 3-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과목체계 비교

분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능별	분야(16개)	분야(13개)
	부문(67개)	부문(52개)
소관별(조직별)	프로그램	정책사업
사업목적별	단위사업	단위사업
경비유형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성질별	목(7개 그룹, 26개)	편성목(8개 그룹, 38개)
	세목(111개)	※통계목(128개)

\* 기획재정부, 「재정교실」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baeoom/baeoom02.do#none>

\*\* 지방재정365, 「세출예산의 구조」 <http://lofin.mois.go.kr/portal/baeoom/bbsBaeoom01.do?url=bbsBaeoom13>  
(접속일자 : 2020.11.10.)

## 2.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현황

### 가. 문화예술분야 중앙재정의 추이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최근 5년간 재정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당초예산 기준)

- ‘문화및관광’ 분야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인데 반해 하위 단위인 문화예술 부문의 경우 2배에 가까운 8.1%에 이르고 있음
  -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할 경우, 예산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도별 문화예술부문 지출예산(2016년~2020년/당초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증가율
문화및관광(전체)	5,494,795	5,697,103	5,257,816	5,923,340	6,480,298	4.2%
문화예술부문(A+B)	2,260,564	2,343,036	2,352,729	2,714,437	3,090,364	8.1%
예산(A)	1,936,341	2,030,979	2,038,959	2,367,756	2,701,409	8.7%
기금(B)	324,223	312,057	313,770	346,681	388,955	4.7%

\* 총지출 기준(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지출 제외)

### 나. (프로그램 수준) 문화예술부문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내 문화예술부문의 프로그램은 27개가 있으며, 총 3조 1,407억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표 3-6] 참고)

- 단.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이 아니라, 회계간 재정의 이동을 나타낸 프로그램명으로 사용됨(예: 일반회계 → 문예진흥기금 전출 210억원)
- 이러한 내부거래지출은 중복 계상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은 2조 9,692억원으로 집계됨<sup>32)</sup>

■ 프로그램별 비중을 살펴보면 ‘콘텐츠산업 육성’에 6,498억원(21.9%)이 배정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어서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4,296억원(14.5%),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3,921억원

32) 이러한 산출방법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총지출(=총액-내부거래지출-보전거래지출) 개념의 산식으로,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음

(13.2%),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2,677억원(9.0%) 순으로 나타남

- 지원목적이 문화예술지원인 프로그램 중 예산액 비중이 높은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됨
  - －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연결하면,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은 문화정책관, 지역 문화정책관 소관이고,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는 예술정책관과 소속기관(국립국악종고, 예술원, 국립전통예술종고) 소관으로 예산이 집행됨
-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2,677억원)는 문예진흥기금의 단일 재원으로 구성됨
  - － 이외에 문예진흥기금의 프로그램에는 ‘기금간거래’가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에서 과거에 전입된 예산의 사용 잔액을 복권기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사업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 예산의 기능별 분류인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을 파악하고자 함

- 다음의 [표 3-6]은 중앙정부 문화예술부문의 재정 규모를 프로그램 수준에서 정리한 것임<sup>33)</sup>
  - － 대체로 1개 회계에서 1개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재정에는 국립시설(단체) 운영 예산이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어 있음<sup>34)</sup>
- 회계간거래(전출금) 또는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로 표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문화예술지원에 사용된다고보다 재원간 자금(예산)의 이동을 나타냄
  - － 예를 들어 21번 회계간거래(전출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이전되는 예산이고, 이 금액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분석에서는 제외함
  - － 마찬가지로, 22번과 25번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이거나 특별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해당 재원의 수입으로 계상되고 사업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지원 규모 계산시 제외함<sup>35)</sup>
  - － 25번 기금간거래(전출금) 역시 문예진흥기금이 사용한 복권기금사업의 지난해 집행 잔여예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역시 문화예술지원과 관련이 없어 세부사업을 분석할 때에는 문화예술지원에서 제외함

33)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장부터 논의하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의 문화예술부문 세출(지출)예산에 한정함

34) [표4-1]에서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지원목적에 따른 유형(문화예술지원, 문화산업육성, 기타)을 구분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수준의 지원목적 유형 구분과 일부 다른 유형도 포함되어 있어 세부사업 단위에서 지원목적에 따른 유형을 분류함. 이는 지방재정에서도 동일함.

35) 정부가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계산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음

① 총지출 = (A + B) - C - D

A : 일반지출

B : 일반지출전환대상(외평기금전출금)

C : 금융성외평기금대상

D : 외평기금(공자기금예수이자)

② 순계

세출순계 : 일반지출 + 보전지출

예산순계 : 예산지출 - (회계간거래 + 회계내계정간거래)

기금순계 : 기금지출 - (기금간거래 + 기금내계정간거래)

- 중복 계상될 수 있는 회계간 거래, 회계기금간거래를 제외할 경우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출(지출) 예산은 약 2조 9,692억원으로 파악됨

[표 3-6]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부문 재정 규모(프로그램 수준)

(단위: 천원, %)

NO	프로그램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합계	비율
1	종교문화지원	50,887,000	-	-	50,887,000	1.7%
2	콘텐츠산업 육성	649,835,000	-	-	649,835,000	21.9%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74,877,000	-	-	74,877,000	2.5%
4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119,141,000	-	-	119,141,000	4.0%
5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132,500,000	297,139,000	-	429,639,000	14.5%
6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392,126,000	-	-	392,126,000	13.2%
7	국정홍보기획	30,012,000	-	-	30,012,000	1.0%
8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184,966,000	14,923,000	-	199,889,000	6.7%
9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40,270,000	-	-	40,270,000	1.4%
10	국립박물관 운영	137,608,000	-	-	137,608,000	4.6%
11	국립국어원운영	16,729,000	-	-	16,729,000	0.6%
12	국립중앙도서관운영	79,768,000	-	-	79,768,000	2.7%
13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102,750,000	-	-	102,750,000	3.5%
14	국립중앙극장운영	49,520,000	-	-	49,520,000	1.7%
15	국립현대미술관운영	52,350,000	-	-	52,350,000	1.8%
16	국립국악원운영	73,674,000	-	-	73,674,000	2.5%
17	국립민속박물관운영	41,804,000	-	-	41,804,000	1.4%
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2,677,000	-	-	12,677,000	0.4%
19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1,942,000	-	-	11,942,000	0.4%
2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23,287,000	-	-	23,287,000	0.8%
21	회계간거래(전출금)	106,761,000	-	-	106,761,000	3.6%
22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59,441,000	-	-	59,441,000	2.0%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108,588,000	-	108,588,000	3.7%
24	문화·관광행정지원	-	4036000	-	4,036,000	0.1%
25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	336000	-	336,000	0.0%
26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	267,795,000	267,795,000	9.0%

(단위: 천원, %)

NO	프로그램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합계	비율
27	기금간거래	-	-	5,000,000	5,000,000	0.2%
	합계	2,442,925,000	425,022,000	272,795,000	3,140,742,000	100%

## 다. (단위사업 수준) 문화예술부문 예산 현황

■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문화예술지원과 문화산업육성의 지원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내 다양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존재하여, 하위 수준에서 전반적인 지원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는 문화산업육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하위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기초예술역량강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산업과는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앞의 [표 3-6]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부문 내 프로그램 중 예산편제상 문화예술활동과 거리가 있는 내부거래 등의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또는 중무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남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단위사업을 살펴봄

■ 프로그램 수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부문 재정에서 콘텐츠, 어문, 중무, 내부거래 등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15개)은 총 3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참고)

-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문예진흥기금)의 경우 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됨
- 국립시설(기관)의 경우 1개 프로그램이 1개 단위사업을 가진 특징이 있고, ‘문화·관광행정 지원’의 경우 전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본경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표 3-7]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부문 재정 중 문화예술지원 규모(단위사업 수준)

(단위: 천원)

NO	프로그램	단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합계	비율
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인문 진흥	21,291,000	-	-	21,291,000	1.1%
2		국어문화진흥	64,593,000	-	-	64,593,000	3.4%
3		전통문화진흥	37,252,000	-	-	37,252,000	2.0%
4		국제문화교류	9,364,000	-	-	9,364,000	0.5%
5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286,809,000	-	286,809,000	15.1%
6		지역문화 컨설팅지원	-	330,000	-	330,000	0.02%
7		문화도시 조성	-	10,000,000	-	10,000,000	0.5%

(단위: 천원)

NO	프로그램	단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합계	비율
-		소계	132,500,000	297,139,000	-	429,639,000	22.6%
8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지원	95,152,000	-	-	95,152,000	5.0%
9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50,097,000	-	-	50,097,000	2.6%
10		기초예술역량강화	93,104,000	-	-	93,104,000	4.9%
1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24,113,000	-	-	24,113,000	1.3%
12		문화예술교육지원	129,660,000	-	-	129,660,000	6.8%
-		소계	392,126,000	-	-	392,126,000	20.6%
1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2,157,000	-	-	12,157,000	0.6%
14		박물관 정책 활성화	60,834,000	-	-	60,834,000	3.2%
15		지역문화 진흥	111,975,000	-	-	111,975,000	5.9%
16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	14,923,000	-	14,923,000	0.8%
-		소계	184,966,000	14,923,000	-	199,889,000	10.5%
17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40,270,000	-	-	40,270,000	2.1%
18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137,608,000	-	-	137,608,000	7.2%
19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79,768,000	-	-	79,768,000	4.2%
20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49,520,000	-	-	49,520,000	2.6%
2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52,350,000	-	-	52,350,000	2.8%
22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73,674,000	-	-	73,674,000	3.9%
23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 활성화	41,804,000	-	-	41,804,000	2.2%
24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2,677,000	-	-	12,677,000	0.7%
25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1,942,000	-	-	11,942,000	0.6%
2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	108,588,000	-	108,588,000	5.7%
27	문화·관광행정 지원	소속기관인건비	-	3,346,000	-	3,346,000	0.2%
28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	672,000	-	672,000	0.04%
29		소속기관기본경비	-	18,000	-	18,000	0.001%
-		소계	-	4,036,000	-	4,036,000	0.2%
30	예술의 창작역량 및	예술창작역량강화	-	-	79,088,000	79,088,000	4.2%

(단위: 천원)

NO	프로그램	단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합계	비율
31	사회적 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	-	21,527,000	21,527,000	1.1%
32		예술향유기회 확대	-	-	167,180,000	167,180,000	8.8%
-		소계	-	-	267,795,000	267,795,000	14.1%
총계			1,209,205,000	424,686,000	267,795,000	1,901,686,000	100.0%

- 예산이 많은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4,296억원),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3,921억원),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2,678억원)의 순으로 조사됨
- 단위사업의 경우,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2,868억원), ‘예술향유기회 확대’(1,671억원), ‘국립박물관 운영’(1,376억원), ‘문화예술교육지원’(1,297억원), ‘문화예술단체지원’(952억원)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지원의 상당 부분이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시설 건립과 운영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과 교육 지원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프로그램 수준에서 종무, 어문 등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예산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단위사업은 문화예술의 범주에 넣기 힘든 경우도 발견됨
  - ‘창의적문화정책구현’(프로그램)의 ‘국어문화진흥’이 그러한 경우로서 문화예술지원의 순규모 또는 재정간 예산의 흐름을 살펴볼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상대적으로 정확한 규모 산출이 가능함
  - 또한, 세부사업내에서도 문화예술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지원규모 산출시 빼야 하므로 예산 편성의 가장 하부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현황

#### 가. 문화예술분야 재정의 추이

#####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현황

- 광역시도의 문화예술부문 세출 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10.5% 증가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 전체의 평균 증가율(4.6%)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부문에는 콘텐츠, 종무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단체나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에 대한 지원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 최근 5년간 문화예술분야 세출 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도는 세종(37.2%)으로 나타났으며, 광주(21.2%)와 경기(15.3%), 인천(15.2%)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줌

[표 3-8]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문화예술부문 세출예산(2016년~2020년/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증가율
서울	264,704	258,735	242,134	306,935	351,432	7.3%
부산	177,384	211,215	186,872	197,601	232,054	6.9%
대구	96,235	108,561	114,424	124,612	118,489	5.3%
인천	63,204	82,055	102,749	98,712	111,337	15.2%
광주	91,070	106,487	115,957	142,855	196,634	21.2%
대전	64,228	76,528	78,514	82,805	103,482	12.7%
울산	45,994	48,647	62,205	63,500	62,685	8.0%
세종	5,371	19,652	29,432	15,784	19,035	37.2%
경기	133,395	131,832	154,815	171,225	235,493	15.3%
강원	51,982	63,772	56,338	53,992	60,455	3.8%
충북	39,242	35,565	41,981	35,663	44,558	3.2%
충남	105,547	155,457	129,228	131,541	149,045	9.0%
전북	63,458	67,075	85,992	89,729	96,304	11.0%
전남	51,034	54,871	66,424	67,265	79,676	11.8%
경북	46,863	44,946	48,093	53,260	57,838	5.4%
경남	42,974	42,609	39,598	52,531	64,884	10.8%
제주	70,940	89,097	115,721	121,103	122,119	14.5%
합계	1,413,625	1,597,104	1,670,477	1,809,113	2,105,520	10.5%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활용하여 추출함(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임

## 나. (정책 수준) 문화예술부문 예산 현황

■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정부도 유사하게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의 구조로 구성됨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정책 수준에서는 문화예술지원만 포함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정책대상과 지원목표가 서로 다른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이 동일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 예를 들어, 서울시 ‘문화예술육성·지원’ 정책은 기관(단체)운영지원, 시설건립(개보수), 창작지원, 복지지원, 향유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목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3-9] 참고)
  - －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의 지원목표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분류가 가능하며, 정책 수준에서의 분류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표 3-9] 광역시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정책사업 세부 구성 사례(서울)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사업	세부사업	대상	예산액
문화 예술 진흥	문화 예술 육성· 지원	평화문화진지 운영	예술인(단체)	786,093
		문화예술공연 진흥	공공기관(시설)등	172,200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공공기관(시설)등	2,181,126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예술인(단체)	207,000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예술인(단체)	520,000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예술인(단체)	1,982,035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예술인(단체)	2,180,753
		예술인이 만드는 예술정책	예술인(단체)	100,000
		양천문화원 건립(전환)	공공기관(시설)등	991,000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국민	7,090,000
		국악 활성화	국민	1,760,00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전환)	예술인(단체)	3,000,00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예술인(단체)	2,002,00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예술인(단체)	1,035,000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인(단체)	140,00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예술인(단체)	1,355,000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예술인(단체)	364,600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국민	290,00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국민	24,358,260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국민	1,220,000
		합계		

■ 광역자치단체 재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술부문의 예산규모를 정책 단위에서 파악하면 문화예술부문에 해당하는 총 예산은 2조 1,865억원으로 집계됨([표 3-10] 참고)

- 보통 일반회계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특별회계가 있는 광역시도는 서울, 인천, 세종으로 나타남
- 2020년도에 기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광역시도는 부산(문화진흥기금), 대구(시립예술단진흥기금), 광주(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울산(박물관및미술관기금), 경북(문화진흥기금)이 있음
- 이외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문화예술부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일반적인 지원예산 이외에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지출도 포함하고 있음
  -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실제 해당연도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원 활동과 거리가 있어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순규모를 산출할 경우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평균적으로 6.8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표준편차는 4.2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수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3-10] 참고)

- 광주(16개), 제주(14개), 인천(12개) 등은 문화예술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반면, 충북(1개), 경기(3개), 강원(3개), 충남(3개), 경북(3개) 등은 비교적 적은 수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3,514억원), 부산(2,983억원), 경기(2,355억원), 광주(1,977억원)가 많고, 세종(190억원), 경북(585억원), 강원(604억원), 경남(649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 (단위사업 수준) 문화예술부문 예산 현황

■ 단위사업 수준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총 예산은 2조 954억원으로 나타나며, 중앙정부(2조 9,692억원) 예산의 70.6%에 해당함<sup>36)</sup>

- 단위사업 수준에서 예산을 파악하면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에 대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다음의 [표 3-11]은 단위사업 수준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파악한 것임
  - 광역시도 예산의 910억원 정도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지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참고로 중앙정부(문체부)의 내부거래 예산은 1,7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17개 광역시도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19.2개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단위사업의 수는 다양하게 나타남

- 개별 시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개 단위사업 당 평균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단위사업 수준에서도 다양한 지원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목적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위인 세부사업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6) 이 예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표 3-10]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부문 세출(지출) 예산규모(정책 수준/당초예산 기준)

(단위: 천원)

시도	정책 (프로그램)	중앙정부			지방정부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서울	6개	5,270,165	25,090,000	18,661,980	254,378,756	48,031,378	-	-	351,432,279
부산	10개	6,603,410	18,085,000	11,518,040	161,247,302	-	66,214,325	34,600,000	298,268,077
대구	10개	3,293,024	1,500,000	6,653,730	105,542,701	-	426,772	1,500,000	118,916,227
인천	12개	2,543,363	9,327,000	6,398,640	84,345,937	8,722,047	-	-	111,336,987
광주	16개	35,432,880	21,253,000	4,455,910	135,492,673	-	1,100,977	-	197,735,440
대전	10개	2,636,557	5,892,000	3,539,010	91,413,980	-	-	-	103,481,547
울산	3개	1,512,080	1,749,000	1,716,230	54,708,153	-	12,624,000	3,000,000	75,309,463
세종	4개	702,610	4,739,000	250,640	9,842,569	-	-	3,500,000	19,034,819
경기	3개	25,763,943	59,442,000	18,059,580	132,227,516	-	-	-	235,493,039
강원	3개	1,913,313	20,293,000	4,211,660	34,037,081	-	-	-	60,455,054
충북	1개	3,227,885	10,784,000	3,677,750	26,867,909	-	-	-	44,557,544
충남	3개	58,831,767	6,294,000	7,829,670	73,922,579	2,167,000	-	-	149,045,016
전북	6개	9,606,750	15,862,000	6,980,570	63,854,623	-	-	-	96,303,943
전남	8개	5,029,008	27,053,000	5,858,660	41,735,673	-	-	-	79,676,341
경북	3개	4,618,464	-	10,286,540	42,932,759	-	641,154	-	58,478,917
경남	4개	4,076,732	18,807,000	7,797,520	34,203,030	-	-	-	64,884,282
제주	14개	1,719,014	710,000	1,619,020	118,070,953	-	-	-	122,118,987
계	116개	172,780,965	246,880,000	119,515,150	1,464,824,194	58,920,425	81,007,228	42,600,000	2,186,527,962

[표 3-11]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부문 예산규모(단위사업 수준/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단위: 천원)

시도	단위사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서울	25개	5,270,165	25,090,000	18,661,980	254,378,756	48,031,378	-	-	351,432,279
부산	22개	6,603,410	18,085,000	11,518,040	156,222,219	-	32,900,000	4,600,000	229,928,669
대구	26개	3,293,024	1,500,000	6,653,730	104,850,881	-	151,100	1,500,000	117,948,735
인천	39개	2,543,363	9,327,000	6,398,640	83,879,429	8,722,047	-	-	110,870,479
광주	39개	35,432,880	21,253,000	4,455,910	125,192,999	-	235,440	-	186,570,229
대전	20개	2,636,557	5,892,000	3,539,010	87,398,924	-	-	-	99,466,491
울산	13개	1,512,080	1,749,000	1,716,230	49,708,153	-	12,000,000	3,000,000	69,685,463
세종	8개	702,610	4,739,000	250,640	9,842,569	-	-	3,500,000	19,034,819
경기	14개	25,763,943	59,442,000	18,059,580	132,227,516	-	-	-	235,493,039
강원	10개	1,913,313	20,293,000	4,211,660	34,037,081	-	-	-	60,455,054
충북	4개	3,227,885	10,784,000	3,677,750	26,867,909	-	-	-	44,557,544
충남	14개	58,831,767	6,294,000	7,829,670	73,922,579	2,167,000	-	-	149,045,016
전북	13개	9,606,750	15,862,000	6,980,570	63,841,623	-	-	-	96,290,943
전남	19개	5,029,008	27,053,000	5,858,660	41,735,673	-	-	-	79,676,341
경북	9개	4,618,464	-	10,286,540	42,932,759	-	172,200	-	58,009,963
경남	15개	4,076,732	18,807,000	7,797,520	34,203,030	-	-	-	64,884,282
제주	37개	1,719,014	710,000	1,619,020	118,070,953	-	-	-	122,118,987
계	327개	172,780,965	246,880,000	119,515,150	1,439,313,053	58,920,425	45,458,740	12,600,000	2,095,468,333

## 제4장

문화예술 공공재원 흐름 분석

## 제1절 문화예술부문 기능별 예산 분석

- 본 절에서는 공공부문 예산의 기능별 분류인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준 중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 현황과 재정간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기능별 분류는 공공부문의 재정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연결되는 예산과목 체계에 의함
  - － 프로그램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숫자가 많고 세부사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원목적이 프로그램의 지원목적과 일부 다를 수 있음<sup>37)</sup>
- 문화예술지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술인(단체)을 위한 1) 창작지원, 2) 복지지원, 3) 일자리 지원, 4) 유통/매개지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 생활예술지원, 6) 향유활동지원, 7) 향유인프라구축, 8) 교육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9) 기관(단체)운영지원, 10) 시설건립(개보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세부사업의 지원목적을 분류하기 위해서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sup>38)</sup>’의 ‘세부사업 월별집행실적’의 세부사업정보 및 상세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사업별 목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며, 목적이 모호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근거 및 추진경위를 통해 분류하였음

## 1. 중앙정부

### 가. 세부사업 분류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사업 구분

- 예산편제상 문화예술부문의 세부사업의 수는 2020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총 159개이며, 총 3조 1,4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그 중 문화예술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부사업 예산의 총액은 1조 7,812억원으로서, 약 5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39)</sup>
  - － 단위사업인 ‘문화중심도시조성’의 세부 사업 중 2개 사업과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의 1개 사업은 콘텐츠 분야에 가까워 문화산업 육성으로 분류함

37)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도 발견되고 있음

38)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sactvPage.do#none>

39) 이 수치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재원(일반회계 및 문예진흥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에 포함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연구방법에서 설정한 문화예술지원의 범주에 의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문화예술정책백서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술인(단체) 대상의 으로 하는 세부사업은 21개이며, 2,440억원(7.8%)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작지원’은 6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842억원(2.7%)의 예산이 배정됨
- ‘복지지원’은 2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708억원(2.3%)의 예산이 배정됨
- ‘일자리지원’은 1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45억원(0.5%)의 예산이 배정됨
- ‘유통·매개지원’은 1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745억원(2.4%)의 예산이 배정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은 18개이며, 7,846억원(25.0%)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유활동지원’은 9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2,521억원(8.0%)의 예산이 배정됨
- ‘향유인프라구축’은 9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4,032억원(12.8%)의 예산이 배정됨
- ‘교육지원’은 1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1,293억원(4.1%)의 예산이 배정됨
- ‘생활예술지원’ 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sup>40)</sup>

■ 공공기관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을 지원하는 사업은 52개이며, 7,526억원(24.0%)의 예산이 배정됨

- ‘기관(단체)운영 지원’은 38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6,377억원(20.0%)의 예산이 배정됨
- ‘시설건립(개보수)’은 14개의 세부사업을 가지며, 1,149억원(3.7%)의 예산이 배정됨

■ 세부사업 단위에서 내부거래 지출 및 문화산업 또는 어문, 종무 등과 같이 문화예술지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세부사업의 수는 68개로 집계되고 1조 3,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문화산업육성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은 46개 사업이며 예산은 8,997억원(28.6%)으로 집계됨
- 내부거래, 종무, 어문과 관련한 세부사업도 22개 세부사업의 4,598억원(14.6%)으로 집계됨

[표 4-1] 중앙정부 문화예술부문 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당초예산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정책대상	지원목적	세부사업 수	금액	비율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6	84,221,000	2.7%
		복지지원	2	70,827,000	2.3%
		일자리지원	1	14,540,000	0.5%
		유통/매개지원	12	74,455,000	2.4%
		소계	21	244,043,000	7.8%
	국민	향유활동지원	9	252,122,000	8.0%
		향유인프라구축	8	403,181,000	12.8%
		교육지원	1	129,260,000	4.1%
		생활예술지원	-	-	-
		소계	18	784,563,000	25.0%

40)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이며, 세부사업내에 존재하는 내역사업으로 자료를 구성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단위: 천원, %)

구분	정책대상	지원목적	세부사업 수	금액	비율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운영지원	38	637,693,000	20.3%
		시설건립(개보수)	14	114,932,000	3.7%
		계	52	752,625,000	24.0%
	합계		91	1,781,231,000	56.7%
문화산업 육성	-		46	899,715,000	28.6%
기타	-		22	459,796,000	14.6%
총계			159	3,140,742,000	100.0%

## 2. 지방정부(광역 시도)

### 가. 세부사업 분류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사업 구분

- 문화예술부문에 포함된 세부사업 수준에서는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세출예산이 가장 많으며 문화산업육성과 기타분야 함께 포함되어 있음([표 4-2] 참고)
- 문화산업육성에는 콘텐츠, 미디어 분야 등의 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기타에는 종무, 어문 등과 함께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가 포함되어 있음

[표 4-2]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부문 지출(세출)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

(단위: 천원)

시도	문화예술지원	문화산업육성	기타	합계
서울	340,301,997	872,041	10,258,241	351,432,279
	96.8%	0.2%	2.9%	100.0%
부산	167,970,731	61,738,724	68,558,622	298,268,077
	56.3%	20.7%	23.0%	100.0%
대구	105,173,680	9,894,230	3,848,317	118,916,227
	88.4%	8.3%	3.2%	100.0%
인천	101,602,181	8,817,000	917,806	111,336,987
	91.3%	7.9%	0.8%	100.0%
광주	136,931,799	48,967,680	11,835,961	197,735,440
	69.3%	24.8%	6.0%	100.0%
대전	85,994,203	13,024,780	4,462,564	103,481,547
	83.1%	12.6%	4.3%	100.0%

(단위: 천원)

시도	문화예술지원	문화산업육성	기타	합계
울산	66,332,463	2,758,000	6,219,000	75,309,463
	88.1%	3.7%	8.3%	100.0%
세종	18,055,797	668,800	310,222	19,034,819
	94.9%	3.5%	1.6%	100.0%
경기	234,793,039	-	700,000	235,493,039
	99.7%	0.0%	0.3%	100.0%
강원	54,639,046	5,478,400	337,608	60,455,054
	90.4%	9.1%	0.6%	100.0%
충북	41,022,126	1,367,000	2,168,418	44,557,544
	92.1%	3.1%	4.9%	100.0%
충남	52,859,715	4,000,800	92,184,501	149,045,016
	35.5%	2.7%	61.9%	100.0%
전북	72,172,041	15,098,440	9,033,462	96,303,943
	74.9%	15.7%	9.4%	100.0%
전남	67,446,096	8,346,500	3,883,745	79,676,341
	84.7%	10.5%	4.9%	100.0%
경북	47,086,095	1,772,200	9,620,622	58,478,917
	80.5%	3.0%	16.5%	100.0%
경남	58,293,950	5,216,892	1,373,440	64,884,282
	89.8%	8.0%	2.1%	100.0%
제주	98,630,120	21,712,767	1,776,100	122,118,987
	80.8%	17.8%	1.5%	100.0%
총계	1,749,305,079	209,734,254	227,488,629	2,186,527,962
	80.0%	9.6%	10.4%	100.0%

■ 세부사업 중 문화예술지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기관(단체)운영지원이 6,969억원(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건립(개보수)이 3,904억원(22.3%), 향유활동지원이 2,246억원(12.8%)의 예산이 배정됨 ([표 4-3] 참고)

○ 창작지원은 1,016억원(5.8%), 유통·매개지원은 1,285억원(7.3%)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됨

■ 정책대상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2,371억원(13.6%),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4,249억원(24.3%),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1조 873억원(62.2%)으로 나타남

○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유통/매개지원 > 창작지원 > 일자리지원 > 복지지원의 순으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대상의 지원사업에서는 향유활동지원과 향유인프라구축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2020년 광역시도 문화예술지원 예산규모(세부사업 수준)

(단위: 천원)

시도	문화예술 지원										계
	예술인(단체)				국민				공공기관 등		
	창작지원	복지지원	일자리지원	유통·매개 지원	향유활동 지원	향유인프라 구축	교육지원	생활예술 지원	기관(단체) 운영지원	시설건립 (개보수)	
서울	12,976,792	100,000	210,000	22,199,638	45,461,806	16,239,559	5,126,580	2,742,570	167,373,873	67,871,179	340,301,997
	3.8%	0.0%	0.1%	6.5%	13.4%	4.8%	1.5%	0.8%	49.2%	19.9%	100.0%
부산	7,835,600	-	693,285	10,729,404	19,521,549	6,114,000	3,840,290	397,000	51,601,321	67,238,282	167,970,731
	4.7%	0.0%	0.4%	6.4%	11.6%	3.6%	2.3%	0.2%	30.7%	40.0%	100.0%
대구	13,452,000	200,000	240,000	13,532,466	13,929,526	4,153,000	2,463,985	1,240,000	50,256,703	5,706,000	105,173,680
	12.8%	0.2%	0.2%	12.9%	13.2%	3.9%	2.3%	1.2%	47.8%	5.4%	100.0%
인천	5,298,600	300,000	240,000	7,907,277	12,384,709	4,197,500	2,308,170	1,473,000	54,596,865	12,896,060	101,602,181
	5.2%	0.3%	0.2%	7.8%	12.2%	4.1%	2.3%	1.4%	53.7%	12.7%	100.0%
광주	7,274,309	40,000	821,520	16,155,796	8,262,071	25,748,616	2,893,906	850,060	45,775,642	29,109,879	136,931,799
	5.3%	0.0%	0.6%	11.8%	6.0%	18.8%	2.1%	0.6%	33.4%	21.3%	100.0%
대전	4,312,835	-	240,000	7,807,031	7,229,211	5,224,000	2,440,205	347,600	43,350,035	15,043,286	85,994,203
	5.0%	0.0%	0.3%	9.1%	8.4%	6.1%	2.8%	0.4%	50.4%	17.5%	100.0%
울산	6,637,043	150,000	-	6,655,144	4,716,529	2,762,730	2,162,140	935,000	33,254,877	9,059,000	66,332,463
	10.0%	0.2%	0.0%	10.0%	7.1%	4.2%	3.3%	1.4%	50.1%	13.7%	100.0%
세종	854,370	-	-	395,500	1,436,913	507,176	441,600	100,000	6,012,238	8,308,000	18,055,797
	4.7%	0.0%	0.0%	2.2%	8.0%	2.8%	2.4%	0.6%	33.3%	46.0%	100.0%
경기	6,881,000	1,160,000	210,000	2,259,000	37,752,746	20,944,100	5,762,180	232,000	85,159,013	74,433,000	234,793,039
	2.9%	0.5%	0.1%	1.0%	16.1%	8.9%	2.5%	0.1%	36.3%	31.7%	100.0%

(단위: 천원)

시도	문화예술 지원										계
	예술인(단체)				국민				공공기관 등		
	창작지원	복지지원	일자리지원	유통·매개 지원	향유활동 지원	향유인프라 구축	교육지원	생활예술 지원	기관(단체) 운영지원	시설건립 (개보수)	
강원	4,720,000	-	-	6,476,500	6,069,459	11,019,100	2,444,460	600,000	9,770,527	13,539,000	54,639,046
	8.6%	0.0%	0.0%	11.9%	11.1%	20.2%	4.5%	1.1%	17.9%	24.8%	100.0%
충북	3,485,900	-	240,000	1,289,100	7,047,481	5,440,000	2,595,620	1,037,200	5,621,825	14,265,000	41,022,126
	8.5%	0.0%	0.6%	3.1%	17.2%	13.3%	6.3%	2.5%	13.7%	34.8%	100.0%
충남	3,551,250	-	240,000	1,745,000	9,454,527	5,052,350	2,693,700	200,000	23,945,888	5,977,000	52,859,715
	6.7%	0.0%	0.5%	3.3%	17.9%	9.6%	5.1%	0.4%	45.3%	11.3%	100.0%
전북	5,245,000	115,000	737,560	4,284,400	10,835,701	11,154,056	2,809,960	1,266,320	20,177,124	15,546,920	72,172,041
	7.3%	0.2%	1.0%	5.9%	15.0%	15.5%	3.9%	1.8%	28.0%	21.5%	100.0%
전남	3,990,600	-	240,000	5,818,000	8,789,854	11,903,600	2,224,000	200,000	13,945,042	20,335,000	67,446,096
	5.9%	0.0%	0.4%	8.6%	13.0%	17.6%	3.3%	0.3%	20.7%	30.2%	100.0%
경북	3,395,000	-	240,000	2,829,800	14,376,222	-	2,250,673	200,000	19,466,400	4,328,000	47,086,095
	7.2%	0.0%	0.5%	6.0%	30.5%	0.0%	4.8%	0.4%	41.3%	9.2%	100.0%
경남	4,066,200	10,000	425,157	5,719,000	10,688,134	5,434,000	3,319,950	444,000	10,443,378	17,744,131	58,293,950
	7.0%	0.0%	0.7%	9.8%	18.3%	9.3%	5.7%	0.8%	17.9%	30.4%	100.0%
제주	7,596,068	-	185,000	12,657,590	6,677,288	4,337,879	1,837,460	193,580	56,162,064	8,983,191	98,630,120
	7.7%	0.0%	0.2%	12.8%	6.8%	4.4%	1.9%	0.2%	56.9%	9.1%	100.0%
계	101,572,567	2,075,000	4,962,522	128,460,646	224,633,726	140,231,666	47,614,879	12,458,330	696,912,815	390,382,928	1,749,305,079
	5.8%	0.1%	0.3%	7.3%	12.8%	8.0%	2.7%	0.7%	39.8%	22.3%	100.0%

### 3.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 예산 비교

#### 가. 문화예술부문 예산 총액 비교

■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총액은 3조 1,407억원, 광역시도의 예산 합계는 2조 1,865억원으로 집계됨([표 4-4] 참고)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1조 7,812억원, 광역시도의 경우 1조 7,493억원으로 집계됨
  - － 중앙정부 재정의 문화예술부문에서 문화예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6.7%, 광역시도는 80.0%를 차지하고 있음
  - － 다만, 중앙정부 재정에는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지원 전체 예산을 단순 합산할 경우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 중앙재정에서 문화산업육성은 28.6%에 해당하는 8,997억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어문, 종무 등의 기타 항목은 4,598억원으로 집계됨
  - － 광역지도의 재정에서는 문화산업육성이 2,097억원(9.6%), 기타 항목은 2,274억원(10.4%)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 문화예술부문 전체에서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예산 비교

(단위: 천원, %)

지원목적	중앙정부		광역시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문화예술지원	1,781,231,000	56.7%	1,749,305,079	80.0%
문화산업육성	899,715,000	28.6%	209,734,254	9.6%
기타	459,796,000	14.6%	227,488,629	10.4%
합계	3,140,742,000	100.0%	2,186,527,962	100.0%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예산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술지원의 지원목적별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5]와 같음<sup>41)</sup>

-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가 13.7%(2,440억원), 광역시도가 13.6%(2,371억원)로 나타나 각 재정내 비율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 44.1%(7,846억원), 광역시도 24.3%(4,24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시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 42.3%(7,526억원), 광역시도 62.1%(1조 873억

41) 광역시도의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으로부터 이전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순지원 규모 산출을 위해서는 이전지출(중앙재정→지방재정) 예산을 제외하여야 함

원)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비해 광역시도의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중앙정부(6,377억원, 35.8%)와 광역시도(6,969억원, 39.8%)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설건립(개보수)에 대한 예산액이 광역시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이전되는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건립(개보수)이 완료되면 지방재정에서 공공기관 등에 투자되는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4-5]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시도) 예산 비교

(단위: 천원)

정책대상	지원목적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84,221,000	4.7%	101,572,567	5.8%
	복지지원	70,827,000	4.0%	2,075,000	0.1%
	일자리지원	14,540,000	0.8%	4,962,522	0.3%
	유통·매개지원	74,455,000	4.2%	128,460,646	7.3%
	소계	244,043,000	13.7%	237,070,735	13.6%
국민	향유활동지원	252,122,000	14.2%	224,633,726	12.8%
	향유인프라구축	403,181,000	22.6%	140,231,666	8.0%
	교육지원	129,260,000	7.3%	47,614,879	2.7%
	생활예술지원	-	-	12,458,330	0.7%
	소계	784,563,000	44.1%	424,938,601	24.3%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운영지원	637,693,000	35.8%	696,912,815	39.8%
	시설건립(개보수)	114,932,000	6.5%	390,382,928	22.3%
	소계	752,625,000	42.3%	1,087,295,743	62.1%
총계		1,781,231,000	100.0%	1,749,305,079	100.0%

■ 광역시도별로 정책대상에 따라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구분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음

- 예술인(단체)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도는 대구(26.1%), 제주(20.7%), 강원(20.5%)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은 광역시도는 충북(39.3%), 강원(36.8%), 전북(36.1%)으로 집계됨
- 세종(79.3%)과 부산(70.8%), 서울(69.1%)은 공공기관(시설) 등에 대한 지원예산의 비율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각 시도별 정책대상 예산 지원

(단위: 천원, %)

구분	정책대상			합계
	예술인(단체)	국민	공공기관 등	
서울	35,486,430	69,570,515	235,245,052	340,301,997
	10.4%	20.4%	69.1%	100.0%
부산	19,258,289	29,872,839	118,839,603	167,970,731
	11.5%	17.8%	70.8%	100.0%
대구	27,424,466	21,786,511	55,962,703	105,173,680
	26.1%	20.7%	53.2%	100.0%
인천	13,745,877	20,363,379	67,492,925	101,602,181
	13.5%	20.0%	66.4%	100.0%
광주	24,291,625	37,754,653	74,885,521	136,931,799
	17.7%	27.6%	54.7%	100.0%
대전	12,359,866	15,241,016	58,393,321	85,994,203
	14.4%	17.7%	67.9%	100.0%
울산	13,442,187	10,576,399	42,313,877	66,332,463
	20.3%	15.9%	63.8%	100.0%
세종	1,249,870	2,485,689	14,320,238	18,055,797
	6.9%	13.8%	79.3%	100.0%
경기	10,510,000	64,691,026	159,592,013	234,793,039
	4.5%	27.6%	68.0%	100.0%
강원	11,196,500	20,133,019	23,309,527	54,639,046
	20.5%	36.8%	42.7%	100.0%
충북	5,015,000	16,120,301	19,886,825	41,022,126
	12.2%	39.3%	48.5%	100.0%
충남	5,536,250	17,400,577	29,922,888	52,859,715
	10.5%	32.9%	56.6%	100.0%
전북	10,381,960	26,066,037	35,724,044	72,172,041
	14.4%	36.1%	49.5%	100.0%
전남	10,048,600	23,117,454	34,280,042	67,446,096
	14.9%	34.3%	50.8%	100.0%
경북	6,464,800	16,826,895	23,794,400	47,086,095
	13.7%	35.7%	50.5%	100.0%
경남	10,220,357	19,886,084	28,187,509	58,293,950
	17.5%	34.1%	48.4%	100.0%
제주	20,438,658	13,046,207	65,145,255	98,630,120
	20.7%	13.2%	66.1%	100.0%
총계	237,070,735	424,938,601	1,087,295,743	1,749,305,079
	13.6%	24.3%	62.1%	100.0%

■ 광역자치단체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아래 [표 4-7]과 같이 나타남

- 인구 1천명당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주, 대전, 울산의 순으로 집계됨
  - － 제주의 경우 도 본청 예산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 보다 인구 대비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임
-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집계한 정책대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의 1천명당 예산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전북의 순으로 집계됨<sup>42)</sup>

[표 4-7] 광역시도별 2020년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문화예술지원 예산(당초예산 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예산액	인구 1천명당 예산액		인구
		전체 예산액 대비	정책대상(국민) 기준	
서울	340,301,997	34,978	7,151	9,729,107
부산	167,970,731	49,203	8,751	3,413,841
대구	105,173,680	43,139	8,936	2,438,031
인천	101,602,181	34,360	6,886	2,957,026
광주	136,931,799	94,016	25,922	1,456,468
대전	85,994,203	58,306	10,334	1,474,870
울산	66,332,463	57,780	9,213	1,148,019
세종	18,055,797	53,016	7,299	340,575
경기	234,793,039	17,734	4,886	13,239,666
강원	54,639,046	35,445	13,061	1,541,502
충북	41,022,126	25,639	10,075	1,600,007
충남	52,859,715	24,890	8,193	2,123,709
전북	72,172,041	39,679	14,331	1,818,917
전남	67,446,096	36,092	12,371	1,868,745
경북	47,086,095	17,663	6,312	2,665,836
경남	58,293,950	17,336	5,914	3,362,553
제주	98,630,120	146,992	19,439	670,989

\* 인구 : 2019년말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정책대상(국민) 사업 : 향유활동지원, 향유인프라구축, 교육지원, 생활예술지원

42) 정책대상 구분에 따른 인구대비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점은 예술인(단체) 대상 또는 기관(단체)운영지원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 역시 최종 수혜대상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예산자료 구분에 의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음



## 제2절 문화예술 부문 성질별 예산 분석

■ 문화예술부문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예산 결정 과정은 서로 다르나, 두 재원간 예산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전체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조건을 가지거나 혹은 조건 없이 재정(예산)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지역분권,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 건립되는 생활SOC 등에 대한 예산이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공공부문 예산의 성질별 분류 중 ‘목’, ‘세목’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방식에 따라 예산의 흐름을 파악함

- 사업 수행방식은 크게 ‘직접수행’과 ‘이전지출’로 나누고 세부사업의 목과 세목을 참고하여 분류함
- ‘직접수행’은 일반수용비 등 재원을 보유한 주체가 사업 수행(추진)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예산과목을 통칭하며, ‘이전지출’은 직접 지출하지 않고 다른 주체(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출(지원)하는 경우를 가리킴
  - 이전지출은 다시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이전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민간이전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단체(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존하는 형태의 지출을 일컬음
  - 자치단체이전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특정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과목(공공기관이전)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직접수행’과 ‘이전지출’의 구분은 사업 수행방식을 구분하는데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1개 세부사업내에 예산과목이 혼재되어 있어 단일 세부사업 전체가 직접수행 또는 이전지출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질별 예산 구분을 통해 재원별로 직접 수행하는 예산과 이전지출되는 예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함
  - 또한, 이전지출되는 예산은 본 연구의 핵심인 예산의 흐름을 알아보는데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전지출에 대한 예산 파악은 중요함

■ ‘세목’ 중 이전지출과 관련된 예산과목은 다음의 [표 4-8]의 내용과 같이 다양한 예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재정에서 이전지출과 관련한 과목은 대체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이 해당됨
- 지방재정의 경우 일반보전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등이 이전지출 예산과목에 해당됨
- 문화예술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은 중앙재정의 경우 민간이전(320)과 자

치단체이전(330)이고, 지방재정도 이와 유사함

- 다만, 지방재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 이전(308) 과목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세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또는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앙재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민간이전(320)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두 재정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위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출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재원주체에서 다른 기관(지방정부, 산하기관, 민간 등)으로 이전되었는지 알아봄

[표 4-8]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전지출 관련 예산과목

구분	목	세목
중앙재정	보전금(310)	손실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민간이전(320)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호및교정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고용부담금
	자치단체이전((330)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외이전(340)	해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일반출연금(350)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360)	연구개발인건비 등
지방재정	일반보전금(3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사회성과 보상금, 기타 보상금
	출연금(306)	출연금
	민간이전(307)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체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인위탁교육비
	자치단체등 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타부담금
	전출금(309)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국외이전(310)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위탁사업비

구분	목	세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 본보조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기획재정부(2019),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1. 중앙정부의 재정

### ■ 중앙정부 재정의 수행방식은 크게 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수행은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지원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운영비,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됨
- 민간이전의 대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아닌 정부 산하 공공기관(예술 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이 포함됨
  - 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는 공공기관에 지원(이전지출)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경비도 함께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중앙정부(문체부) 예산의 세목 분류를 통해서는 예산을 전달받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자치단체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단,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자치단체이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의 또 다른 축인 광역자치단체가 이전받는 예산과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자치단체이전 예산에는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전지출 금액을 중앙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인하여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 중앙정부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지원목적별 예산을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직접수행(6,770억원, 38.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이전(5,847억원, 32.8%), 자치단체이전(5,196억원, 29.2%) 순으로 나타남([표 4-16])

- 자치단체이전 예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전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 ■ 중앙정부가 예술인(단체)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직접 수행(지출)하는 예산은 413억원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37억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320억원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에 대한 사업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및 공공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립시설의 운영은 실제 프로그램명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실제 시설 운영경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

■ 중앙정부가 예술인(단체)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민간으로 이전하는 예산은 1,946억원(7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주로 지출된다고 할 수 있는 직접수행의 경우 예술인(단체) 대상의 지원예산 중 16.9%에 해당하는 41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이전은 814억원 규모로 수행방식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중앙정부의 재정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자치단체이전을 통한 수행방식의 예산(4,792억원/61.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민간이전을 통한 예산은 2,017억원, 직접수행을 통해 지출하는 예산은 1,037억원으로 나타남
- 민간이전을 통한 사업은 예술인(단체), 국민, 공공기관 등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사업 중 직접수행을 통한 예산 지출이 5,320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앙재정에는 국립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민간경상보조와 같은 예산과목이 아닌 직접 지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이전을 통한 공공기관 등의 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시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시)에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박물관과 같은 국립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이전을 하는 문화예술지원 중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81억원(1.6%)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793억원(92.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322억원(6.2%)임

-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국민의 향유활동과 향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중앙정부)

(단위: 천원)

정책대상	지원목적	수행방식			계
		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12,007,408	66,086,592	6,127,000	84,221,000
		14.3%	78.5%	7.3%	100.0%
	복지지원	18,140,000	52,687,000	-	70,827,000
		25.6%	74.4%	0.0%	100.0%

(단위: 천원)

정책대상	지원목적	수행방식			계
		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일자리지원	2,225,071	12,314,929	-	14,540,000
		15.3%	84.7%	0.0%	100.0%
	유통/매개지원	8,954,993	63,486,007	2,014,000	74,455,000
		12.0%	85.3%	2.7%	100.0%
	소계	41,327,472	194,574,528	8,141,000	244,043,000
		16.9%	79.7%	3.3%	100.0%
국민	향유활동 지원	26,391,135	91,164,865	134,566,000	252,122,000
		10.5%	36.2%	53.4%	100.0%
	향유인프라 구축	77,200,600	11,948,400	314,032,000	403,181,000
		19.1%	3.0%	77.9%	100.0%
	교육지원	69,000	98,543,000	30,648,000	129,260,000
		0.1%	76.2%	23.7%	100.0%
	생활예술지원	-	-	-	-
		-	-	-	-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441,227,556	184,005,444	12,460,000	637,693,000
		69.2%	28.9%	2.0%	100.0%
	시설건립 (개보수)	90,749,000	4,463,000	19,720,000	114,932,000
		79.0%	3.9%	17.2%	100.0%
	소계	531,976,556	188,468,444	32,180,000	752,625,000
		70.7%	25.0%	4.3%	100.0%
계		676,964,763	584,699,237	519,567,000	1,781,231,000
		38.0%	32.8%	29.2%	100.0%

## 2. 지방정부(광역 시도)의 재정

■ 지방정부 재정의 수행방식은 직접수행,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이전, 민간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리, 민간이전을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지출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지출로 재구분할 수 있음

- － 지방재정의 경우 예산과목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또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별도로 두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임
- － 공기관은 지방정부가 출연·출자한 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전과 분리된 지방재정의 민간이전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됨<sup>43)</sup>

43) 지방재정 예산과목내에 ‘공기관’이라 표현되어 있고 문화예술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지원을 받는 공기관은 주로 문화재단의 성격은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해당하나, 중앙재정에서 지원하는 산하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공기

■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업무 수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자치단체이전(5,211억원, 29.8%)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공공기관이전(4,740억원, 27.1%), 직접수행(4,058억원, 23.2%), 민간이전(3,484억원, 19.9%) 순으로 나타남

■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시도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은 총 4,058억원으로 나타남

○ 이 중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에서 구분된 직접지출 예산은 511억원, 국민대상 세부사업내의 직접지출 예산은 441억원, 공공기관(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직접지출 예산은 3,106억원으로 집계됨

■ 민간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지출을 통해 광역시도가 집행하는 예산은 총 3,484억원으로 집계됨

○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981억원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은 880억원,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1,624억원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의 형태로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는 총 4,740억원으로 집계됨

○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중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660억원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공공기관이전 예산은 764억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 예산은 3,317억원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 지원 및 시설건립에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광역시도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 규모는 총 5,211억원으로 집계됨

○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20억원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은 2,165억원이며, 기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2,826억원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이전을 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의 향유활동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광역시도의 자치단체이전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시설) 등의 건립(개보수)과 운영에 사용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원목적별로 살펴보면 예술인(단체) 대상 사업유형 중 창작지원에서 민간이전과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유통/매개지원에서는 직접수행과 민간이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자리지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유형 중에서는 향유활동지원과 향유인프라구축 모두 자치단체이전을 통

---

관'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통일하여 지칭함

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초자치단체까지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교육지원에서는 민간이전과 공공기관이전의 비율이 비슷하여 직접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유형에서 시설건립(개보수)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함

[표 4-10]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광역시도)

(단위: 천원, %)

정책 대상	지원목적	수행방식				합계
		직접수행	민간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7,143,278	44,261,739	43,259,200	6,908,350	101,572,567
		7.0%	43.6%	42.6%	6.8%	100.0%
	복지지원	100,000	150,000	1,825,000	0	2,075,000
		4.8%	7.2%	88.0%	0.0%	100.0%
	일자리지원	85,157	1,324,300	3,194,180	358,885	4,962,522
		1.7%	26.7%	64.4%	7.2%	100.0%
	유통/매개 지원	43,747,396	52,315,850	17,682,500	14,714,900	128,460,646
		34.1%	40.7%	13.8%	11.5%	100.0%
소계	51,075,831	98,051,889	65,960,880	21,982,135	237,070,735	
	21.5%	41.4%	27.8%	9.3%	100.0%	
국민	향유 활동지원	16,875,401	61,325,980	42,979,855	103,452,490	224,633,726
		7.5%	27.3%	19.1%	46.1%	100.0%
	향유 인프라구축	22,783,027	3,196,783	6,100,000	108,151,856	140,231,666
		16.2%	2.3%	4.3%	77.1%	100.0%
	교육지원	3,012,914	19,579,292	22,749,300	2,273,373	47,614,879
		6.3%	41.1%	47.8%	4.8%	100.0%
	생활예술 지원	1,414,130	3,853,200	4,530,000	2,661,000	12,458,330
		11.4%	30.9%	36.4%	21.4%	100.0%
소계	44,085,472	87,955,255	76,359,155	216,538,719	424,938,601	
	10.4%	20.7%	18.0%	51.0%	100.0%	
공공 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167,673,775	161,749,935	324,035,558	43,453,547	696,912,815
		24.1%	23.2%	46.5%	6.2%	100.0%
	시설건립 (개보수)	142,969,552	624,000	7,658,876	239,130,500	390,382,928
		36.6%	0.2%	2.0%	61.3%	100.0%
	소계	310,643,327	162,373,935	331,694,434	282,584,047	1,087,295,743
28.6%		14.9%	30.5%	26.0%	100.0%	
총계		405,804,630	348,381,079	474,014,469	521,104,901	1,749,305,079
		23.2%	19.9%	27.1%	29.8%	100.0%

## 제3절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흐름

- 1절과 2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 수준을 살펴봤으며,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의 순지원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순지원규모는 중앙정부의 예산 중 자치단체이전을 제외한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산출된 값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에는 중앙재정에서 이전된 예산과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이 함께 포함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문화예술지원 관련 재원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문예진흥기금 및 각 지방정부별 문예 관련 기금 예산에 한정함
-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흐름을 크게 직접수행과 이전지출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중앙재정-광역자치단체재정-기초자치단체재정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봄
- 세부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 절과 동일하나, 하나의 세부사업내에서도 직접수행(지출)하는 예산과목과 다른 주체로 이전(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의 흐름을 파악함
  - 이를 통해 실제로 지원대상에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와 함께 예산의 출발점(지원주체)에서 어떻게 예산이 전달되는지 살펴볼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기준으로 중앙재정으로부터 이전되는 예산 규모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으로 이전되는 규모도 함께 살펴 봄

##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광역 시도)의 순지원 규모

- 중앙재정과 광역시도의 지방재정을 통해 살펴 본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의 순지원 예산은 약 3조 110억원 규모로 집계됨(당초 예산 기준)([표4-11])
- 중앙재정에서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을 제외한 중앙재정의 문화예술지원 순규모는 1조 2,617억원으로 집계됨
  - 다만,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이전 중 광역자치단체 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도 있으며, 예산서를 통한 자치단체이전의 세부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모두 1조 7,493억원으로 집계되고, 여기에는 중앙재정에서 이전되어 유입된 예산(4,365억원)도 포함됨
-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순지원 예산은 4,784억원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함
  - 창작지원은 1,862억원으로 전체의 6.0%의 비중을 차지함
  - 복지지원은 729억원으로 전체의 2.4%의 비중을 차지함
  - 일자리지원은 195억원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함



- 유통·매개지원은 1,998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순지원 예산은 7,303억원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함
  - 향유활동지원은 3,422억원으로 전체의 11.4%의 비중을 차지함
  - 향유인프라구축은 2,294억원으로 전체의 7.6%의 비중을 차지함
  - 교육지원은 1,462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함
  - 생활예술지원은 125억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함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순지원 예산은 1조 8,023억원(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단체)운영지원은 1조 3,167억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함
  - 시설건립(개보수)은 4,856억원으로 전체의 16.1%를 차지함

[표 4-11]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시도)예산 합계 및 순지원 규모

(단위: 천원, %)

정책 대상	지원목적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광역시자체)	합계	비율	순지원 규모 <sup>44)</sup>	비율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84,221,000	108,074,720	192,295,720	5.4%	186,168,720	6.0%
	복지지원	70,827,000	2,075,000	72,902,000	2.1%	72,902,000	2.4%
	일자리지원	14,540,000	4,962,522	19,502,522	0.6%	19,502,522	0.6%
	유통·매개 지원	74,455,000	127,369,606	201,824,606	5.7%	199,810,606	6.7%
	소계	244,043,000	242,481,848	486,524,848	13.8%	478,383,848	15.7%
국민	향유활동 지원	252,122,000	224,633,726	476,755,726	13.5%	342,189,726	11.4%
	향유인프라 구축	403,181,000	140,231,666	543,412,666	15.4%	229,380,666	7.6%
	교육지원	129,260,000	47,614,879	176,874,879	5.0%	146,226,879	4.9%
	생활예술 지원	-	12,458,330	12,458,330	0.4%	12,458,330	0.4%
	소계	784,563,000	424,938,601	1,209,501,601	34.3%	730,255,601	24.3%
공공 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637,693,000	691,501,702	1,329,194,702	37.6%	1,316,734,702	43.9%
	시설건립 (개보수)	114,932,000	390,382,928	505,314,928	14.3%	485,594,928	16.1%
	소계	752,625,000	1,081,884,630	1,834,509,630	52.0%	1,802,329,630	60.0%
총계		1,781,231,000	1,749,305,079	3,530,536,079	100.0%	3,010,969,079	100.0%

44) 순지원 규모는 중앙재정에서 이전 지출예산(자치단체이전)을 뺀 나머지(직접수행+민간이전) 예산에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더한 값임

## 2. 문화예술지원 공공재정의 흐름

### 가. 중앙재정 → 지방재정(광역 시도)의 흐름

- 광역시도에서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4,365억원의 예산을 이전받고 있고, 예산의 23.2%(4,058억원)를 직접 집행하고 있고, 76.8%(1조 3,435억원)는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개인)로 이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됨([표 4-12])
-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이 가장 많고, 산하기관, 직접수행, 민간단체(개인)의 순으로 집계됨
- 중앙재정에서 이전되는 4,365억원의 예산 중 72.9%의 예산(3,183억원)은 2,028억원의 자체 예산을 더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있으며, 산하기관(10.3%)과 민간단체(개인)(9.9%)에 대한 지출예산은 비슷한 비율로 중앙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재정의 특별회계로부터 이전된 예산(2,452억원)의 대부분(93.1%/2,281억원)은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이전되고 있음
  - 일반회계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이전받은 예산(814억원)의 42.0%(342억원)가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지원되고 있어 중앙재정 → 광역자치단체 재정 → 기초자치단체 재정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재정에서 이전된 예산을 바탕으로 다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산하기관으로 이전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단체(개인)에 대한 예산으로 434억원을 이전받아 자체 예산(3,050억원)과 합하여 3,48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총 4.291억원의 자체 예산과 449억원의 중앙재정을 합하여 총 4,740억원의 예산(27.1%)을 지출하고 있음

[표 4-12] 광역시도의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수행방식별 규모(당초 예산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직접수행	이전지출_민간	이전지출_공공기관	이전지출_지자체	합계
일반회계(중앙)	14,725,870	17,595,816	14,899,380	34,196,375	81,417,441
특별회계(중앙)	15,190,000	30,000	1,800,000	228,135,000	245,155,000
기금(중앙)	-	25,758,640	28,245,560	55,926,160	109,930,360
소계(국비)	29,915,870	43,384,456	44,944,940	318,257,535	436,502,801
(비율)	6.9%	9.9%	10.3%	72.9%	100.0%
지방비(광역)	375,888,760	304,996,623	429,069,529	202,847,366	1,312,802,278
총계	405,804,630	348,381,079	474,014,469	521,104,901	1,749,305,079
(비율)	23.2%	19.9%	27.1%	29.8%	100.0%

## 나. 지방재정(광역시도)의 사업수행방식별 재정의 흐름

-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중앙재정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총 4,365억원으로 집계됨<sup>45)</sup>([표 4-13] 참고)
- 구체적으로 중앙재정의 일반회계는 814억원, 특별회계는 2,452억원, 기금은 1,099억원이 광역자치단체 재정으로 이전되고 있음
  - 시설건립(개보수)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1,987억원)이 이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향유활동지원(1,239억원)과 향유인프라구축(796억원)을 위한 예산 순으로 나타남
  - 중앙재정에서 이전되는 예산 중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행방식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으로 3,183억원(72.9%)에 달하고 있음
- 지원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살펴보면 시설건립(개보수)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이전되고 있고, 향유활동지원, 향유인프라구축의 순으로 집계됨
- 시설건립(개보수)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재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유활동을 위한 지원에는 기금(문예진흥기금)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향유인프라 구축(생활문화센터 등)과 공공 문화예술시설 건립을 위해 중앙재정으로부터 이전된 예산에 자체 예산을 더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전지출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기금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이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파악됨
- 창작지원의 경우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이전되는 예산이 적게 나타났고, 복지지원과 생활예술지원에 대한 이전지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지원의 경우 중앙재정의 일반회계에서 이전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다시 이전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작지원과 일자리지원의 경우 중앙재정에서 이전받은 예산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민간단체(개인), 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지원목적별 수행방식에 따른 중앙재정 → 지방재정의 이전지출 흐름

(단위: 천원)

지원목적	수행방식	일반회계 (A)	특별회계 (B)	기금 (C)	계 (A+B+C)	지방비 (D)	합계 (A+B+C+D)
창작지원	직접수행	-	-	-	-	7,143,278	7,143,278
	민간이전	97,500	-	2,236,000	2,333,500	41,928,239	44,261,739
	공공기관이전	200,000	-	3,924,000	4,124,000	39,135,200	43,259,200

45)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자료이며, 앞서 중앙재정의 자치단체이전 예산(5,196억원)에 비해 적은 이유는 중앙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천원)

지원목적	수행방식	일반회계 (A)	특별회계 (B)	기금 (C)	계 (A+B+C)	지방비 (D)	합계 (A+B+C+D)
	지자체이전	50,000	180,000	-	230,000	6,678,350	6,908,350
	소계	347,500	180,000	6,160,000	6,687,500	94,885,067	101,572,567
복지지원	직접수행	-	-	-	-	100,000	100,000
	민간이전	-	-	-	-	150,000	150,000
	공공기관이전	-	-	-	-	1,825,000	1,825,000
	지자체이전	-	-	-	-	-	-
	소계	-	-	-	-	2,075,000	2,075,000
일자리지원	직접수행	4,000	-	-	4,000	81,157	85,157
	민간이전	412,500	-	-	412,500	911,800	1,324,300
	공공기관이전	1,542,090	-	-	1,542,090	1,652,090	3,194,180
	지자체이전	103,330	-	-	103,330	255,555	358,885
	소계	2,061,920	-	-	2,061,920	2,900,602	4,962,522
유통/매개 지원	직접수행	-	-	-	-	43,747,396	43,747,396
	민간이전	400,000	-	47,000	447,000	51,868,850	52,315,850
	공공기관이전	500,000	-	-	500,000	17,182,500	17,682,500
	지자체이전	600,000	-	790,000	1,390,000	13,324,900	14,714,900
	소계	1,500,000	-	837,000	2,337,000	126,123,646	128,460,646
향유활동 지원	직접수행	1,054,270	-	-	1,054,270	15,821,131	16,875,401
	민간이전	6,503,700	-	23,475,640	29,979,340	31,346,640	61,325,980
	공공기관이전	772,640	-	24,321,560	25,094,200	17,885,655	42,979,855
	지자체이전	14,333,775	-	53,482,160	67,815,935	35,636,555	103,452,490
	소계	22,664,385	-	101,279,360	123,943,745	100,689,981	224,633,726
향유인프라 구축	직접수행	10,673,000	-	-	10,673,000	12,110,027	22,783,027
	민간이전	-	-	-	-	3,196,783	3,196,783
	공공기관이전	130,000	1,800,000	-	1,930,000	4,170,000	6,100,000
	지자체이전	1,921,260	65,067,000	-	66,988,260	41,163,596	108,151,856
	소계	12,724,260	66,867,000	-	79,591,260	60,640,406	140,231,666
교육지원	직접수행	-	-	-	-	3,012,914	3,012,914
	민간이전	8,961,840	-	-	8,961,840	10,617,452	19,579,292
	공공기관이전	10,504,650	-	-	10,504,650	12,244,650	22,749,300
	지자체이전	1,143,010	-	-	1,143,010	1,130,363	2,273,373
	소계	20,609,500	-	-	20,609,500	27,005,379	47,614,879
생활예술 지원	직접수행	-	-	-	-	1,414,130	1,414,130
	민간이전	600,000	-	-	600,000	3,253,200	3,853,200
	공공기관이전	1,250,000	-	-	1,250,000	3,280,000	4,530,000
	지자체이전	-	-	-	-	2,661,000	2,661,000
	소계	1,850,000	-	-	1,850,000	10,608,330	12,458,330

(단위: 천원)

지원목적	수행방식	일반회계 (A)	특별회계 (B)	기금 (C)	계 (A+B+C)	지방비 (D)	합계 (A+B+C+D)
기관단체 (운영)지원	직접수행	9,600	-	-	9,600	167,664,175	167,673,775
	민간이전	620,276	30,000	-	650,276	161,099,659	161,749,935
	공공기관이전	-	-	-	-	324,035,558	324,035,558
	지자체이전	45,000	-	-	45,000	43,408,547	43,453,547
	소계	674,876	30,000	-	704,876	696,207,939	696,912,815
시설건립 (개보수) 지원	직접수행	2,985,000	15,190,000	-	18,175,000	124,794,552	142,969,552
	민간이전	-	-	-	-	624,000	624,000
	공공기관이전	-	-	-	-	7,658,876	7,658,876
	지자체이전	16,000,000	162,888,000	1,654,000	180,542,000	58,588,500	239,130,500
	소계	18,985,000	178,078,000	1,654,000	198,717,000	191,665,928	390,382,928
총계		81,417,441	245,155,000	109,930,360	436,502,801	1,312,802,278	1,749,305,079

## 다. 재정의 흐름 분석틀에 따른 지원규모 파악

###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재정의 흐름을 구조화하기 위한 분석틀 설정

- 재정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기준으로 중앙재정에서 이전되는 재정과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이전되는 재정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각 재정에서 지출되는 형태(수행방식)를 구분함
- 박영정(2012)의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표 2-9])에서 세부유형을 4가지 기본유형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표 4-14] 참고)
  - A유형은 중앙정부-정책 대행기관-지자체-지역문화재단-국민(수신자)로 보는 유형이고, B유형은 중간전달경로는 동일하나 수신자를 ‘문화예술기관…국민’으로 보고 있음
  - C유형과 D유형 또한 발신자를 지자체로 가정하고 있어 각각 A와 B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유형은 중간전달경로에서 중간전달자가 없는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즉, 기본 유형 내에서 중간전달경로가 많아질수록 전달체계는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음<sup>46)</sup>
- 재정을 보유한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음
  - ① 재원보유 지원주체 - 직접수행 또는 지원사업(이전지출) 시행
  - ② 재원보유 지원주체 - 대행기관 - 직접수행 또는 지원사업(이전지출) 시행
- 이를 기본으로 하나의 재원에서 또 다른 재원으로 이동하여 재정이 전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가 발생함<sup>47)</sup>

46) 예산(재정)의 흐름이라는 전제하에, A유형 중 가장 세부적인 유형인 [정부-대행기관-지자체-지역문화재단]과 같은 예산 전달의 흐름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 (사업 협력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예산 편제상 이전지출 형태에서 정책 대행기관이 지자체로 예산을 이전시킬 수는 없음)

47) 위의 예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전달체계에 의해 재정이 전달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 (기본경로) 재원보유 지원주체 - 다른 재원주체 - (대행기관)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 (예시 ①) 중앙재정 - 광역지방재정 - 기초단체재정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 (예시 ②) 중앙재정 - 광역지방재정 - 대행기관(광역문화재단)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 (예시 ③) 중앙재정 - 광역지방재정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 (예시 ④) 중앙재정 - 대행기관(산하공공기관)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 (예시 ⑤) 중앙재정 - 직접수행 또는 지원(이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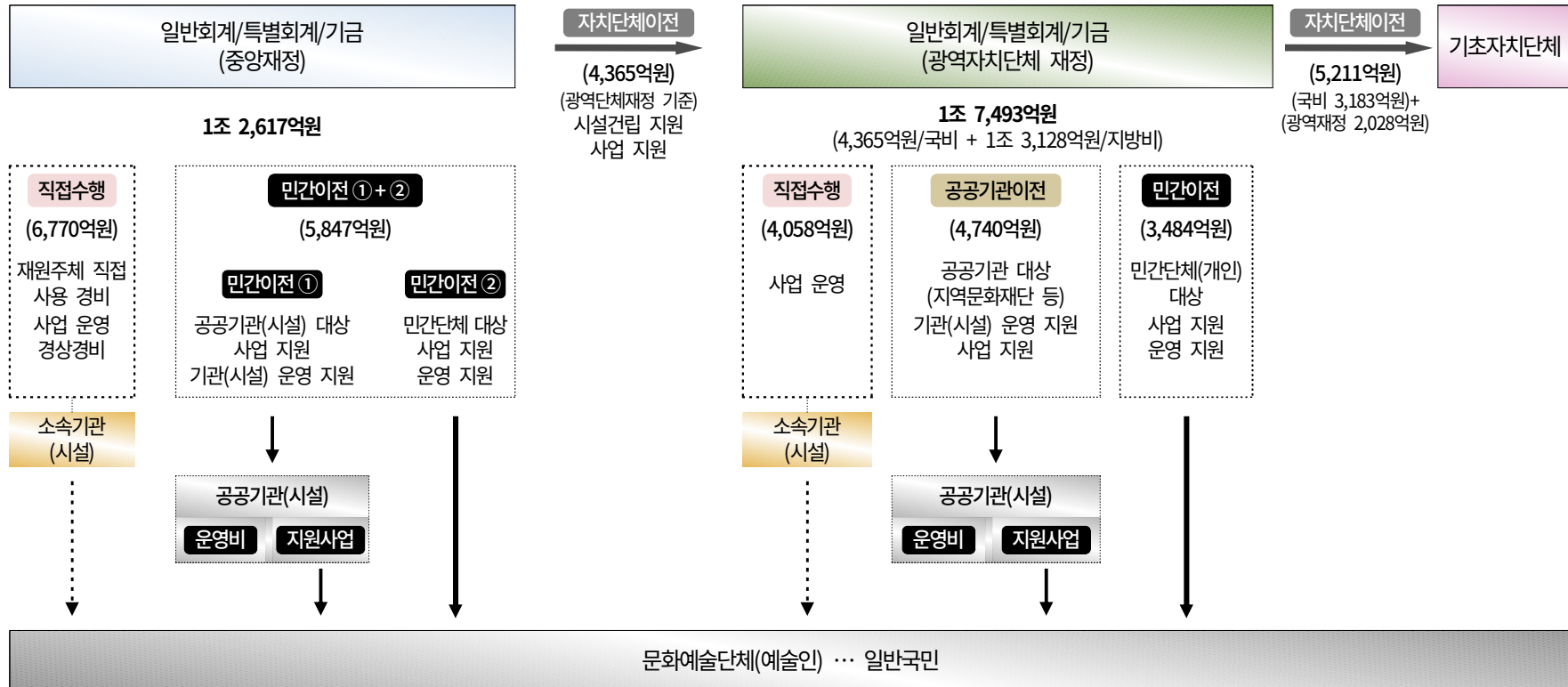
[표 4-14]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구분		정책서비스 전달 체계				
기본유형	세부유형	발신자	중간전달경로			수신자
A유형	A5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B유형	B5 유형	정부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C유형	C2 유형	(지자체)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국민
D유형	D2 유형	(지자체)	정책 대행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국민

- 위의 기본경로와 예시를 기반으로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의 흐름을 구조화하면 사업의 수행방식과 각 재정의 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 각 재정별로 총 규모를 표현하고, 사업 수행방식에 따른 예산의 지출 형태 및 흐름을 구조화하여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음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광역자치단체)을 중심으로 살펴본 문화예술지원의 전달체계 분석틀은 아래 [그림 4-1]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각 재정별로 직접수행, 민간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하여 흐름을 분석하면 중앙재정(문체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문예진흥기금)에서는 총 1조 2,617억원의 예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이전(지원)하고 있음
  - 직접 수행하는 예산은 6,770억원으로 사업운동을 위한 경비, 인건비 또는 소속기관(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민간이전은 총 5,847억원으로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사업을 대행한다고 할 수 있는 산하 공공기관 또는 일반 문화예술단체(예술인)에 지원됨
- 광역시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4,365억원을 이전받고, 자체 예산과 합쳐 1조 7,493억원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구성하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5,211억원을 이전시킴
  - 자치단체 이전을 제외한 예산(1조 2,732억원)으로 직접수행(4,058억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전(4,740억원)하기도 하며, 민간단체(개인)에 대하여 3,484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한계로 전달체계의 마지막(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전달받아 직접수행하거나 지원(이전지출)하는 형/예시 ①에 해당)까지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예시 ② 또는 예시 ④와 같이 대행기관(공공기관/문화재단)이 정부재정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다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펼치는 경우에 대한 흐름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림 4-1] 공공재정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중앙재정 → 지방재정 전달체계 분석틀



\* 민간이전① : (산하)기관에 대한 이전지출 / 민간이전② : 민간단체(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 중앙재정의 자치단체이전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재정에서 나타난 예산을 표시함

\*\*\* 중앙재정의 순규모는 총예산에서 자치단체이전을 제외한 예산을 표시함(직접수행+민간이전)

\*\*\*\* 실선 화살표는 예산의 이동을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의 경우 소속기관(시설)의 운영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의미함

# 제5장

---

## 민간부문 재원의 구조와 흐름



## 제1절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구조

### 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구조

#### 가. 민간재원의 개념과 범위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개념과 범위

- 문화예술 민간자원<sup>48)</sup>은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목적으로 재원이 공급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자원 가운데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자원공급은 공급자의 시장소비를 통해 수요자의 수익금으로, 자본투자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기부·협찬을 통해 후원금으로 편입되는 형태와 흐름을 가짐
  - － 시장소비 : 민간의 시장소비는 공연관람, 작품구입 등 시장에서 소비되는 공급형태(시장자원)를 의미하며 이는 자원의 성격이 상이하여 본 연구의 조사범위에서 제외<sup>49)</sup>
  - － 자본투자 : 민간의 자본투자는 공급자의 재원이 투자(크라우드펀딩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sup>50)</sup>(project financing)과 같이 수요자의 자본적 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
  - － 기부·협찬 : 민간의 기부·협찬은 광의의 개념에서 자원조성 성격의 후원으로 볼 수 있으나 기부는 세법의 범주에서, 협찬은 세법과 상법의 범주에서 접근되는 차이점이 존재

[표 5-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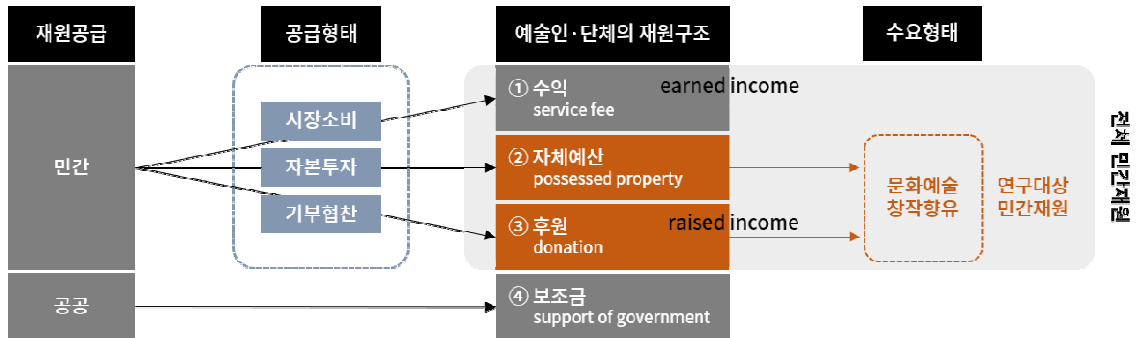
구분		설명
시장소비	시장자원	개인과 기업이 예술 콘텐츠를 구입·관람하는 등의 일반적인 예술시장의 소비
	사업자원	법인(기업, 기업재단 등)의 자체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직·간접 문화예술관련 지출
자본투자	수익형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성격으로 지분형(자본, 채권) 투자
	비수익형	시장의 초과이익 기대가 없는 후원형·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기부협찬	기부	비대가성의 자발적이고 공익적 자원의 이전을 의미 비영리분야의 민간재원의 경우 개념의 명확성과 측정의 편의성 때문에 기부금을 자원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일반적
	협찬	후원과 유사하나 일정한 대가성이 존재하며 사업지출, 홍보지출, 기부 등과 혼재되어 진행

48) 일반적으로 재원을 포함한 민간자원에는 현금과 현물, 자원봉사와 같은 인력자원이 모두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현금자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49) 민간 중 기업재단과 같은 비영리 공급자가 문화예술 관련 자체사업으로 지출하는 소비(사업자원)는 일정 부분 조사범위에 포함

50) 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되며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주체가 됨

[그림 5-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범위



## 나. 민간재원의 주체와 특성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수요 주체

- 민간재원의 문화예술분야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각각의 주체를 지원 공급주체와 수요주체로 분류함
  - － 공급주체 : 개인, 기업, 시장, 제3섹터(NPOs), 공동체 등
  - － 수요주체 : 창작과 향유의 측면에서 예술인·예술단체<sup>51)</sup>(1차 수요), 개인·공동체·지역(2차 수요) 등
- 민간의 재원공급과 자원 흐름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에 따라 민간의 재원 공급 주체를 민법과 조세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과 법인<sup>52)</sup>으로 구분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 주체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함
  -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
  - － 비영리법인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영리법인은 기업이 직접 주체가 되는 경우와 회사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함
  - － 기업 : 기업내 사회공헌팀과 같이 관련 조직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 － 재단 : 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표 5-2]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주체	구분		비고
개인	일반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업설립 재단, 공공기관 등
		공익법인	

51)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예술단체 포함

52)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

- 비영리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되며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 직접적인 지원주체는 아니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중간조직이 존재하며 이를 매개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매개조직은 정보제공, 홍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기부금 세제혜택 제공 등 매개·촉진 활동을 통해 민간분야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하며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 가능함

[표 5-3]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구분		비고
공공분야 매개조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	서울문화재단 등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
민간분야 매개조직	문화예술 관련	한국메세나협회 및 지역 메세나협회 등
	일반공익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모금기관 등

#### ■ 문화예술 공공분야 매개조직

- 문화예술 공공분야 매개조직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기부 및 후원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조직. 대체로 법정·지정 기부금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
  - 법정 기부금단체<sup>53)</su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sup>54)</sup>,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정 기부금단체 :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기획재정부 지정 또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른 당연 기부금단체

#### 참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등에 시설비,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거나 세법이 정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의미. 그에 반해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임

#### ■ 문화예술 민간분야 매개조직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지정 또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른 당연 기부금단체 지정되는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과 기업에서 출자하거나 민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이 본연의 목적이 민간의 문화예술 재정지원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조직과 넓은 차원에서 공익의 관점으로 매개하는 일반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53) 세법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지위를 2022.12.31. 까지 인정.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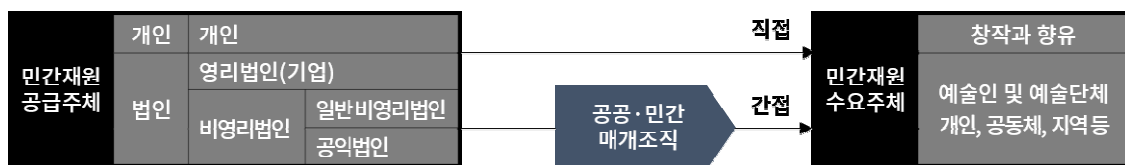
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단체로 2011년부터 민간후원 활성화를 위해 ARKO 기부금사업, 예술나무운동, 크라우드펀딩 등의 촉진사업을 진행 중

- 문화예술 관련 : 한국메세나협회<sup>55)</sup>, 지역메세나협회
- 일반공익 관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 ■ 문화예술 민간재원 공급의 흐름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서 자신의 재원을 매개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간접 지원의 방법과 또는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향유하는 민간재원 수요주체를 지원함
  - 직접지원 : 민간재원 공급주체가 수요주체에게 직접 자본, 사업비, 기부금, 후원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개인·법인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기부, 후원, 협찬을 하거나 공연 전시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요주체에게 재원을 공급하는 경우
  - 간접지원 : 민간재원 공급주체가 매개조직에게 재원을 지원하고 매개조직이 수요주체에게 재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개인·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매개조직을 통해 조건부 기부금<sup>56)</sup>이나 크라우드펀딩 후원을 하는 경우

[그림 5-2]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 및 수요주체



## 다. 민간재원의 구성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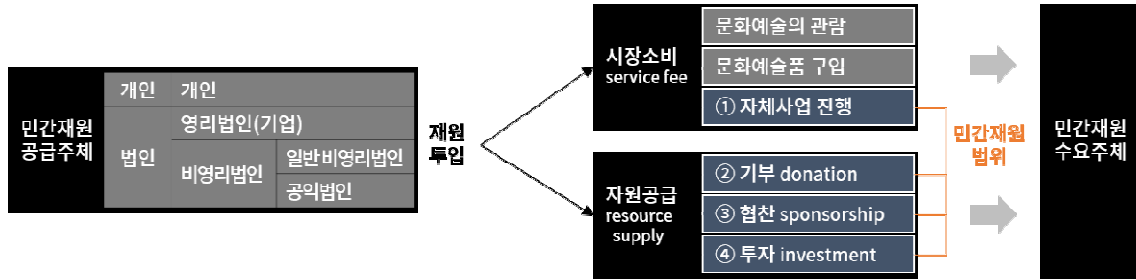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재분류

- 일반적으로 한 주체의 재정투입은 그 목적에 따라 소비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민간주체의 문화예술 재정지출은 크게 시장소비(service fee)와 지원(자원공급, resource suppl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은 재정자원 공급의 관점에서 다시 기부, 협찬, 투자로 분류할 수 있음
- 민간재원 중 문화예술 관람 및 구입 등 시장소비(시장재원)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민간자원(현금, 현물, 봉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소비 중 사업재원과 자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사업재원), ② 기부, ③ 협찬, ④ 투자를 문화예술 민간재원 범위로 포함함

55)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 메세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1994년 경제5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여 설립

56) 기부금 수혜 예술인·단체를 명시하여 조건부로 하는 기부

[그림 5-3]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재원의 형태 및 흐름



#### ■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특성([표 5-4] 참고)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재분류에 따라 ①사업재원, ②기부, ③협찬, ④투자로 구분된 민간재원은 그 형태가 가지는 속성으로 인해 상이한 특성을 지님
- 분류별 재원의 특성 때문에 민간자원 및 민간재원 연구목적에 따라 주요 조사대상 여부가 결정
  - － ① 사업재원 : 영리(기업 사회공헌예산 지출),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사업예산 지출)로 문화예술 관련 직접적인 사업지출을 재원으로 하며 통계, 설문조사, 회계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가능
  - － ② 기부 : 개인과 법인의 문화예술 기부금으로 조사와 측정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민간재원 조사대상임. 국세통계, 설문조사, 회계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가능
  - － ③ 투자 : 수익형 투자와 비수익형 투자로 구분되며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나 임팩트투자자와 같은 비수익형 투자를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비수익형 투자의 경우 공시자료의 미흡으로 조사의 편의성이 낮음
  - － ④ 협찬 : 기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광고협찬과 같이 대가성이 존재. 개인보다 영리법인의 공급비중이 높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진행되거나 일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측정의 어려움 있음

[표 5-4] 재분류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특성

구분		내용	민간재원	측정의 편의성	조사방법
시장 소비	시장재원	일반적인 예술시장의 소비	-	-	
	사업재원	주로 법인의 직·간접 문화예술관련 사업지출	포함	낮음	설문조사, 공시자료
자본 투자	수익형	일반적인 자본·채권형 금융투자	-	-	
	비수익형	후원형·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임팩트투자	포함	낮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미흡
기부 협찬	기부	자발적인 비대가성의 현금·물품 이전	포함	높음	국세통계, 설문조사, 공시자료
	협찬	대가성이 있는 현금·물품 이전	포함	낮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미흡

#### ■ 문화예술 민간재원 : ① 사업재원

- 주로 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이 자체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직·간접의 문화예술 관련 지출을 의미함

- 영리법인(기업):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기업의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자원
- 비영리법인(기업재단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자산과 예산을 지출하는 자원

#### 참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의미함. 목적사업의 운영 상 비영리법인(사단·재단)에 출연된 재산 및 수익의 일정부분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개념이 존재함

- 영리법인의 경우 사회공헌이나 기부금 항목과 같은 공시자료 활용가능하나 국세통계를 통해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사한 연구의 경우 공시자료나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재원을 추정함
-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해 발간되는 자료로는 사회공헌백서가 대표적이며,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간하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가 있음
  - 한국메세나협회의 2019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682개 기업
    - 조사방법 : 설문조사(설문 응답기업은 350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예산과 내용 등/(51.5% 응답) 및 자료 분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건부 기부금 실적자료)
    - 조사기간 :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 ■ 문화예술 민간자원 : ② 기부

- 기부는 범위의 명확성과 측정의 편의성 때문에 다양한 민간자원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조사되는 민간자원임
- 일반적으로 기부자가 기부금 세제혜택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부금 정보(국세통계)를 많이 활용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함([표 5-5] 참고)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보고 있음
  - 정리하면 기부는 공익, 비대가성, 자발성, 경제적 가치라는 조건을 지님

[표 5-5] 기부금의 법률적 개념

구분	내용
기부금품법 제2조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분	내용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산·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는 민간주체가 재원을 상대(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진행되며 수혜자 회계 계정상 기부금 계정(법정·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은 세제적격단체)이나 사업외수익(비세제적격단체)으로 산입됨([표 5-6] 참고)
  - － 세제적격단체란 조세관련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의미하며 크게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 － 따라서 기부자는 세제적격단체에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5-6] 세제적격단체의 개념과 범위

구분		근거법률	내용
❶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 운영하는 병원 등 공공시설
❷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❸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조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❹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문화예술분야 세제적격단체는 주로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있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는 법률<sup>57)</sup>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 참고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제도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자원 조성에 구인효과<sup>58)</sup>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57)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됨

58) crowding in effect: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재정창출을 유도한다는 것

## 참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란, 수준 있는 민간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제도
-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지원(후원/기부) 제도로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의 육성을 목표로 2000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해 공공 지원금이나 기업 혹은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은 2020년까지 유효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 : ③ 협찬

- 협찬은 자원뿐만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협찬은 자원공급에 있어 재원지출의 관점에서 사업재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국세신고의 관점에서 기부금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여 하지만 객관적으로 측정·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협찬은 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예산거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상대(수혜자) 회계 계정상 사업수입 계정으로 주로 산입되며 사업외수입 계정 산입도 가능함
    - 협찬이 현금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로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수혜자)가 세제적격단체일 경우 기부금 수입으로 처리<sup>59)</sup>되는 경우도 존재
    - 협찬이 물품일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이와 같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민간재원 조사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찬의 규모를 조사해야 할 경우에는 국세통계나 다른 연구조사 등 2차 자료가 아닌 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 구성이 필요함

### ■ 문화예술 민간재원: ④ 투자

- 투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자본투자로서 그 성격과 형태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금융 투자와 초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금융투자로 구분 가능함
  - 수익형 :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본, 채권 등 지분형 투자
  - 비수익형 : 시장의 초과수익 기대가 없는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주자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뮤지컬 등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금융투자는 적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좀더 많이 진행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표 5-7] 참고)
  - 크라우드펀딩이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술가에게 다양한 창작 시도를 할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함
  - 크라우드펀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펀딩은 리워드형과 후원형이 주로 진행됨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후원형과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형태가 높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개념으로 채권

59) 기부금의 법률적 개념상 협찬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음



형 펀딩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

- 다만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유형 분석자료 등 별도의 공시자료의 미흡으로 인해 2차 자료로 활용이 어려움

[표 5-7]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구분	모집방식	보상형태	내용	투자처·비고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배분 (배당금 등)	신생 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과 수익 창출이 목적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상환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비금전적 보상 (리워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제품이나 금전적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 보상(reward)받는 유형.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펀딩금액의 세제혜택불가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리워드 형식의 소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	펀딩금액의 세제혜택가능	

[표 5-8]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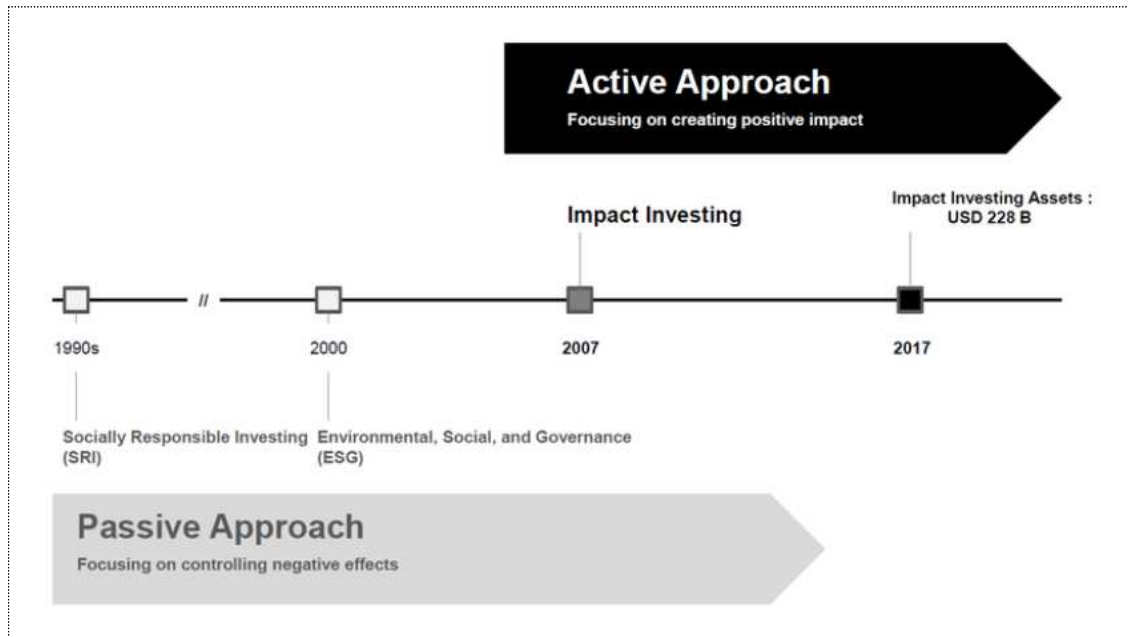
플랫폼	내용
와디즈 wadiz	투자형과 리워드형이 주요 서비스로 별도의 문화콘텐츠 펀딩 구분이 존재
텀블벅 tumbbug	리워드펀딩이 주요 서비스이며, 문화예술 분야 펀딩이 활발히 진행
오마이컴퍼니 ohmycompany	사회적기업의 펀딩이 주요 서비스
키다리펀딩 keedari	문화예술 펀딩에 특화되었으며, 텀블벅과는 달리 영화, 다큐멘터리, 출판, 연극, 공연제작 펀딩 서비스가 활발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그림 5-4] 참고)

- 임팩트 투자는 재무 수익과 함께 예측 가능한 사회 또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 그리고 펀드에 대한 투자임. 임팩트 투자는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나 벤처 기부 (Venture Philanthropy)와 유사하지만,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이함. 2007년 록펠러 재단의 벨라지오 미팅에서 해당 용어가 임팩트 인베스팅으로 재정립됨
- 투자의 목적에 따라 임팩트 투자는 비수익형 투자로 분류됨

-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는 사회혁신투자의 개념으로 임팩트 투자 개념이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의 대상으로 일부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기도 함
- 하지만 임팩트 투자 역시 투자처와 투자금에 대해 공시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재원 조사에 있어 측정의 어려움이 있음

[그림 5-4] 참고: 임팩트 투자의 역사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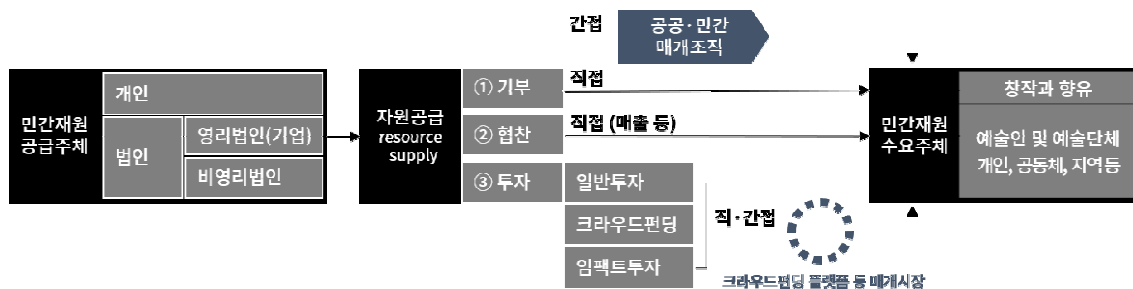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impact\\_investing](https://en.wikipedia.org/wiki/impact_investing) (접속일자 : 2020.11.20.)

#### ■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공급형태 및 자원흐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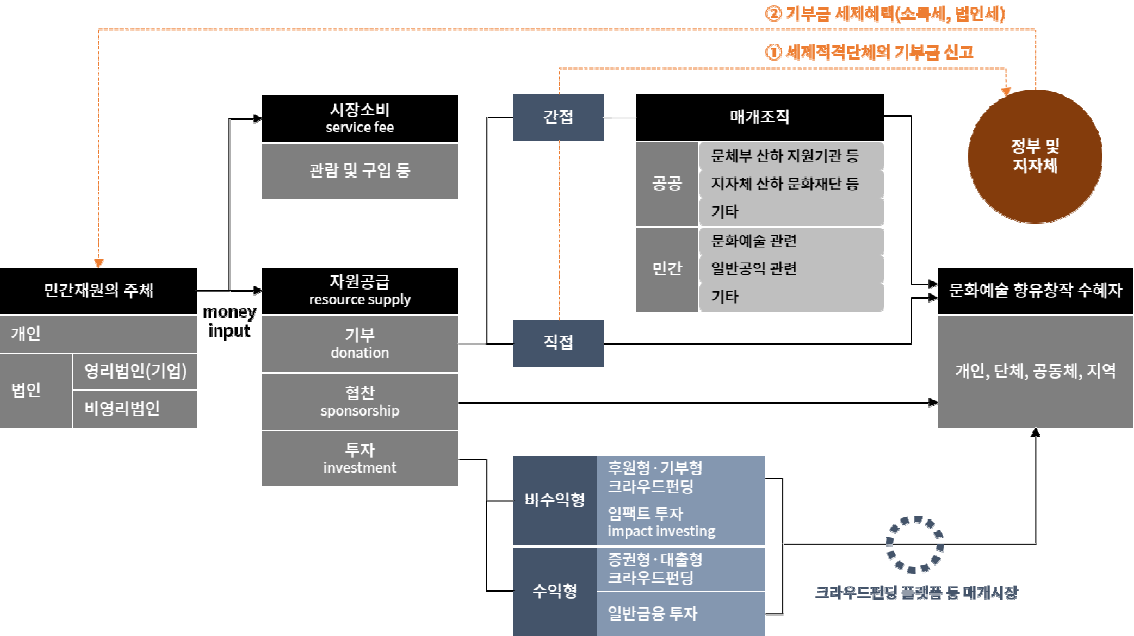
-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공급형태는 민간의 자체사업으로 투입되는 사업재원과 기부, 협찬, 투자로 유형 정리할 수 있음
- 이 중 사업재원을 제외한 기부, 협찬, 투자의 경우 시장소비와 구분되는 속성이 존재함

[그림 5-5]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 이와 같은 정리에서 다시 매개조직을 반영하고 투자를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형태와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알 수 있음

[그림 5-6]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전체흐름



## 2. 민간자원 현황 및 규모 분석

### 가. 민간자원 조사방법과 체계

#### 1) 민간자원 탐색연구 현황

##### ■ 1~2차 자료 활용을 통한 민간자원 규모 측정

- 사적이전에 기반한 자원의 흐름이 모두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회계적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엄정한 항목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다른 분야의 민간자원 총량 연구는 복지와 관련된 민간나눔자원을 주제로 대부분 국세통계연보<sup>60)</sup>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추계의 방법을 활용함

[표 5-9] 민간자원 관련 활용가능한 주요 국가승인통계

통계명	기관	조사 및 표본특성	민간자원관련 통계조사 항목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보고대상: 국세신고자 및 업체 작성주기: 1년 최근연도: 2018년	개인 - 근로자: 유형별 기부인원·기부금액 - 종합소득자: 유형별 기부인원·기부금액 법인 법정·특례기부금 및 기부금액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신고현황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대상: 전국 약 18,000 표본가구내 만13세 이상 가구원 조사규모: 약 37,000명 조사방식: 면접조사 조사주기: 매년, 조사내용별 격년	기부여부, 기부내용, 기부의 정기성, 기부 희망분야, 기부대상 인지경로, 향후 기부 의사, 유산기부 의사, 기부문화 확산 등 8개 항목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조사대상: 전국거주 일반가구 조사규모: 약 9,000가구 조사방식: 면접조사 통계활용: 소득(비지출)	타가구로부터의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액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원표본 약 7,000여 가구 조사방식: 면접조사 통계활용: 사회	연간 정기적인 기부여부, 연간 기부금액 소득집단별 연간 기부액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대상: 원표본 약 4,000여 가구 조사방식: 면접조사 통계활용: 가계소비(소득) 조사주기: 1년	조사항목: 기부분야, 연간 기부금액 통계: 연도별 기부금액, 기부분야별 지출 현황

60) 국세청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

- 나눔자원을 현금, 현물, 자원봉사로 분류하여 총량만을 추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포함 사용처와 같은 배분유형 구분은 없음

[표 5-10] 복지분야 민간자원 총량 추계 관련 주요 연구

연구 구분	내용	주요 활용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나눔자원 총량추계 연구」	대상: 개인·기업의 현금, 현물, 자원봉사 기간: 2013년부터 매해 연구조사 진행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회조사결과(통계청), 상장기업 공시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연구」	대상: 개인·기업의 기부금과 자원봉사 기간: 개인과 기업을 격년으로 연구조사 진행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회조사결과(통계청), 패널데이터, 나눔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일반 학술연구 등	대상: 개인·기업의 현금, 현물, 자원봉사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액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회조사결과(통계청), 패널데이터, 나눔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모금기관 모금액, 매개조직의 공시자료, FGI 등

#### ■ 문화예술 민간자원 탐색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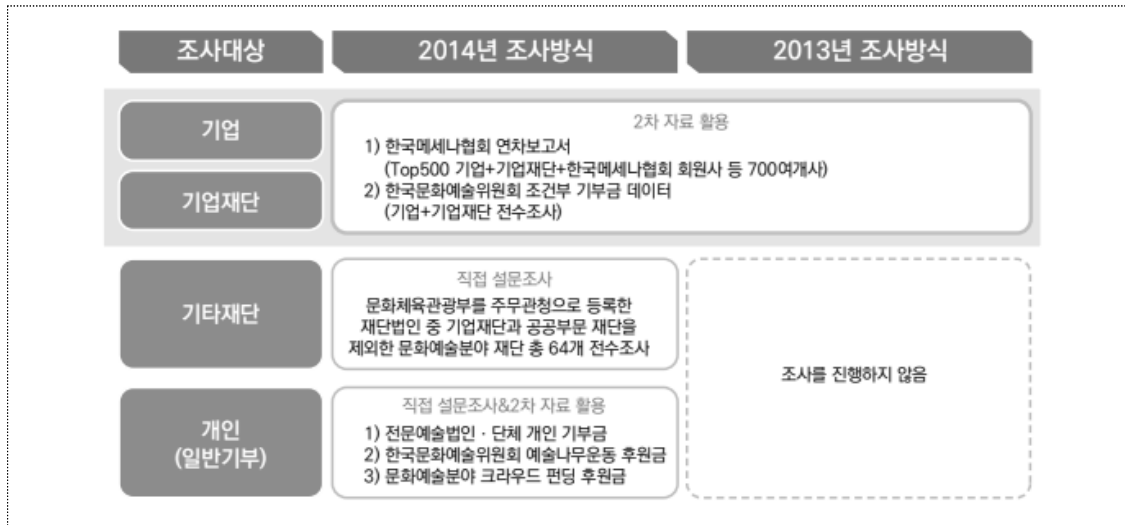
- 문화예술 민간자원 총량 추계의 경우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소수의 연구 결과 역시 2차 자료 부재에 따라 추계결과와 신뢰성이 높지 않음
- 이에 문화예술 민간자원 탐색조사는 대부분 기부금 관련 2차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해당 연구조사의 대상을 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으로 임의 구분한 것은 한국메세나협회의 2차 자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정
  - 개인 기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세통계는 활용하지 않음

[표 5-11] 문화예술분야 민간자원 탐색 및 추계 관련 주요 선행연구

선행연구	내용	주요 활용자료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민간부문 예술지원의 주체·범위 기업·기업재단·기타재단 지원규모 추정	2차 자료: 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연구 사회공헌백서 <sup>61)</sup> (전경련) 기빙코리아 (아름다운재단)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문조사: 문화예술분야 재단 64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기업·기업재단의 지원규모 추정	2차 자료: 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데이터

61)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조사로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을 주관하였으나 2016년 말 조직이 축소되어 이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부터

[그림 5-7] 선행연구의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P.34)

## 2) 민간재원 조사를 위한 프레임 워크

### ■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 및 추계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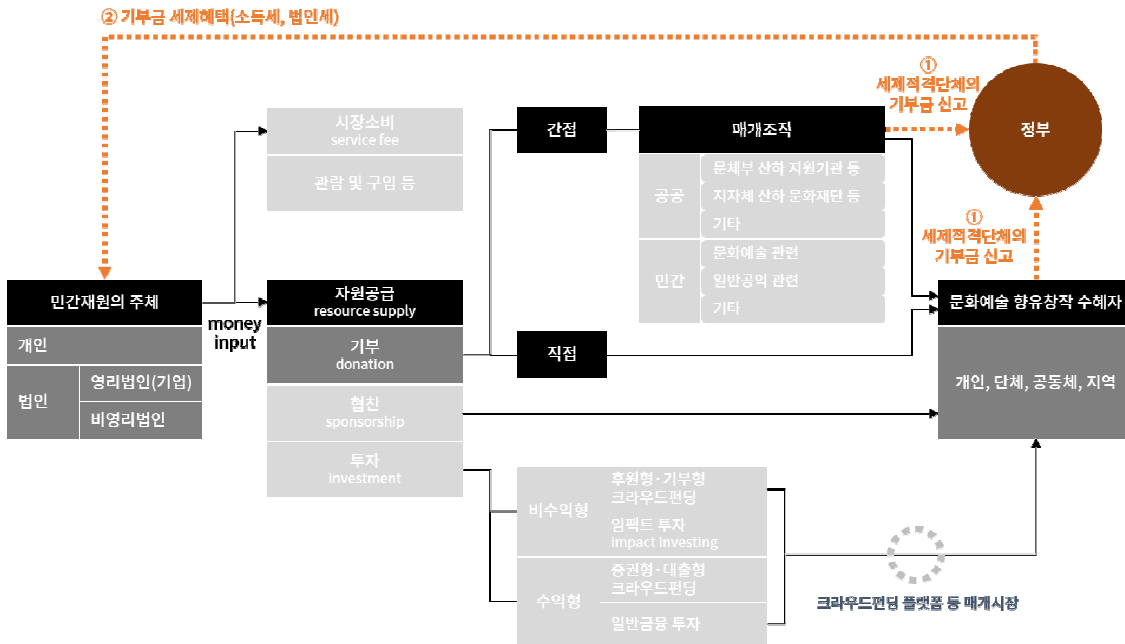
- 문화예술 민간재원 탐색과 추계는 다른 연구분야와 달리 국가승인통계 등 2차 자료 활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우며 2차 자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 구성이 요구됨
-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급자(provider) 중심’ 접근법과 ‘연결매체(intermediary agent) 중심’ 접근법 활용이 필요함

### ■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

-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은 재원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 즉 민간재원 공급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조사방법으로, 공급자(민간주체)가 재원을 어떤 상대(수혜자)에게 제공했을 때 생성되는 조세혜택 정보나 공급자의 재무회계에 반영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를 추산함
- 세부적으로 공급의 각 부문별 지출내역을 통해 접근하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을 통해 추산함
- 국세통계 등 2차 자료 활용이 중심이 되며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특징이 있음

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를 진행

[그림 5-8] 공급자 중심의 추계 접근방법 (음영처리 부분)



- 공급자 중심 접근법에 따라 국세청 자료(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는 범위
  - 국세통계에서 제공하는 기부금은 개인·법인이 세제혜택(세액공제, 손비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을 의미함
  -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생산 가능한 기부통계의 범위
    - 개인 :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에 관한 성별, 연령별, 소득규모별, 10분위분포 등
    - 법인 : 법인규모별, 상장·비상장, 업태별, 수입금액규모별, 자산규모별, 소득금액규모별, 과세표준 규모별, 흑자법인 10분위, 결손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법인 수 및 기부금액 등

[표 5-12] 공급자 중심 접근방법에서의 조사대상 및 활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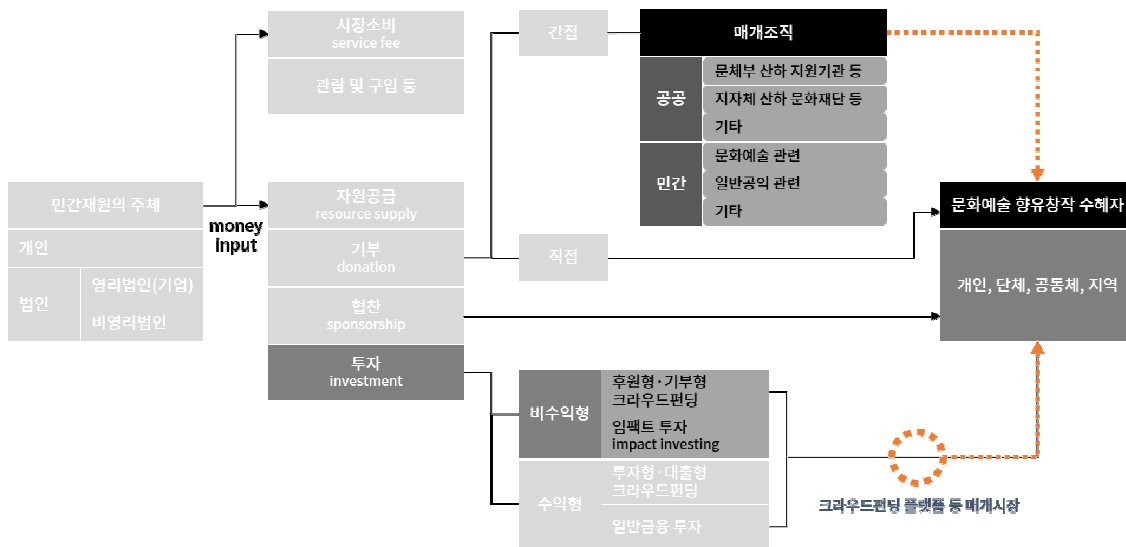
구분			활용자료
개인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회조사결과(통계청), 나눔실태(보건복지부), 기빙인덱스(아름다운재단)
법인	영리법인		국세통계연보(국세청), 나눔실태(보건복지부), 사회공헌백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빙인덱스(아름다운재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외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데이터(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 ■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방법

-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방법은 제공된 민간재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그 흐름에 주목

- 재원이 공급자(민간주체)에 의해 생산되어 상대(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을 위해 접근성, 편이성이 용이한 연결매체(매개조직)를 경유하는 경우도 많음
- 연결매체 접근법은 이러한 연결매체(매개조직)에서 접수된 재원의 양을 측정하여 전체규모를 추정
  - 연결매체 접근법은 재원의 유통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원의 과소추정이라는 단점을 지님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민간 매개조직의 회계정보와 일부 투자 관련 매개시장의 공시정보에 기반한 추계를 진행함

[그림 5-9] 연결매체 중심의 조사 접근방법 (음영처리 부분)



[표 5-13] 연결매체 중심 접근방법에서의 조사대상 및 활용자료

구분		조직	활용자료
공공	문체부 산하 기부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공시자료(알리오) 자체 데이터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	
민간	문화예술 관련	한국메세나협회 및 지역 메세나협회 등	공시자료 자체 연구자료 및 데이터
	일반공익 관련	공동모금회 등 민간 모금기관 등	



## 나. 민간자원 : 개인

### 1) 개인 기부금 현황

#### (1) 분석체계

■ 민간의 개인재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부금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기부금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사적이전을 통해 형성되는 대표적인 민간자원임
- 특히 기부금은 국세통계 등 국가승인통계를 통한 연구시 측정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지님
- 이에 대부분의 개인 자원과 재원에 관한 연구는 국세통계 분석이 중심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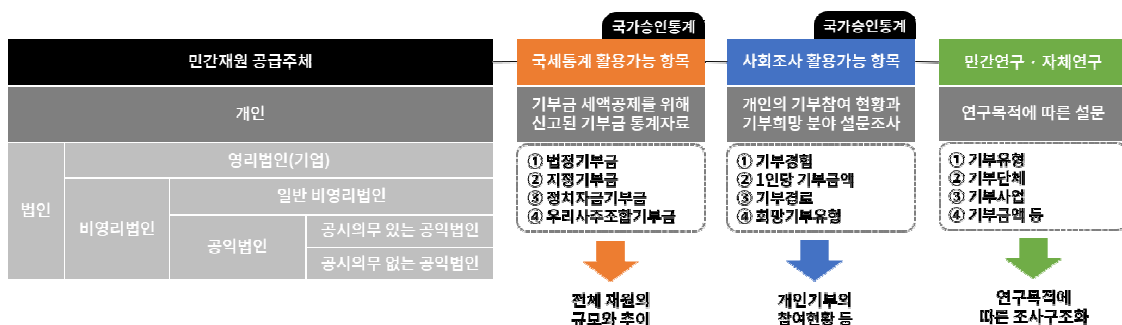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민간재원의 규모 탐색

- 국세통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기부금 신고액
  -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nts.go.kr)에서 자료 제공
  - － 국세통계포털: 국세청에서 운영·제공하는 누리집(stats.nts.go.kr)
- 사회조사: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조사하는 사회참여부문 중 기부관련 조사항목
  - － 사회조사: 통계청에서 두 가지 분류로 매년 진행하는 국가통계 (kostat.go.kr)
    - 홀수년: ①가족, ②교육과 훈련, ③건강, ④범죄와 안전, ⑤생활환경
    - 짝수년: ①복지, ②사회참여, ③문화와 여가, ④소득과 소비, ⑤노동

■ 개인 기부금의 국가승인통계의 한계로 인해 별도의 자체연구 또는 민간연구를 추가적으로 활용

- 국세청의 국세통계는 개인 기부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기부금 사용처나 유형별 통계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로 기부금의 사용목적별 구분이 어려움
-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기부금 참여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되나, 관련 조사항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문항목이 공급자의 기부금 이전행위(경험유무, 경로)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기부금 사용유형(대상, 목적, 단체, 사업 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민간에서 자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되나, 설문조사 모집단 또는 표본의 제한과 설문응답의 불충실성 등에 대한 한계가 있음

[그림 5-10] 개인 기부금 연구조사 방법



## (2) 개인 기부금의 규모

-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법인의 국세청 신고 기부금은 2018년 약 7.88조원으로 나타남
-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금 신고내역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됨
- 2018년 개인 기부금 신고 금액은 약 8.8조 원이며 법인 기부금 신고 금액은 약 5.1조원으로 집계됨<sup>62)</sup>

[표 5-14]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 기부금 (A+B+C)	GDP대비 비중 <sup>63)</sup>	개인 기부금				법인 기부금 (C)	
			근로소득자 <sup>64)</sup> (A)	종합소득자 (B)	소계 (A+B)			
2018	13,886,104	0.73	6,006,861	2,782,955	8,789,816	63.30%	5,096,288	36.70%
2017	12,953,655	0.71	5,781,531	2,539,862	8,321,393	64.24%	4,632,262	35.76%
2016	12,868,471	0.74	5,633,994	2,587,321	8,221,315	63.89%	4,647,156	36.11%
2015	12,711,030	0.77	5,408,347	2,524,481	7,932,828	62.41%	4,778,202	37.59%

- 개인 기부금은 세법상 공제유형별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포함되면 세제혜택이 가능함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대상에 속하게 되면 세무 신고분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게 됨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❶법정기부금, ❷지정기부금, ❸정치자금기부금, ❹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와 종교 외 기부금으로 구분

[표 5-15] 근로소득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유형

구분		내용
❶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❷ 지정기부금	종교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종교 외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설립한 단체에 기부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❸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❹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62) 국세통계연감에서 법인 기부금 신고 현황은 접대비와 함께 작성되기 때문에 기부금 신고 대상 법인 수만을 별도로 추출할 수 없음

63) GDP대비 비중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통해 공표되는 명목GDP를 활용하여 산출

64) 근로소득연말정산 통계(4-2-1)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

[표 5-16]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및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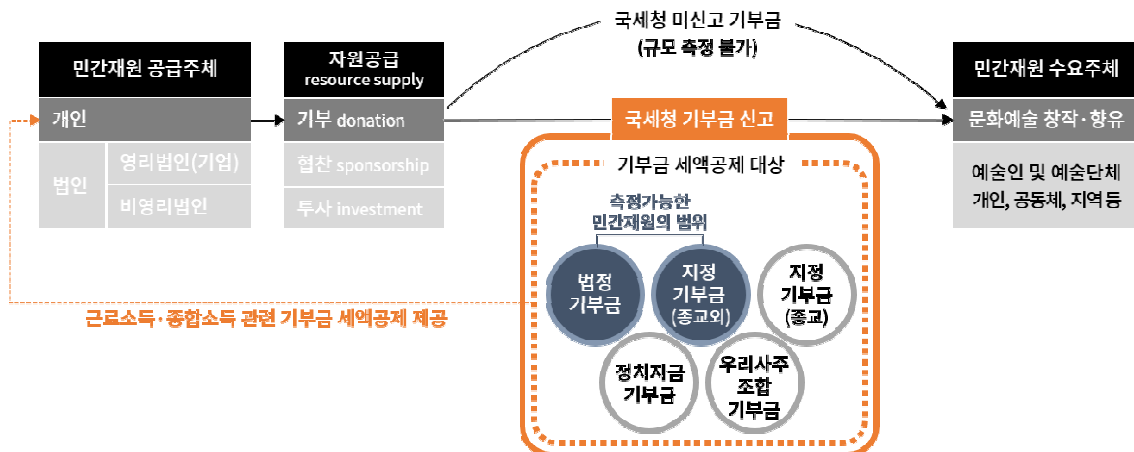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개인 기부금 신고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합계 (A+B)	근로소득자 기부금(A)	종합소득자 기부금(B)	① 법정	② 지정		③ 정치자금	④ 우리사주	공제세액 합계
					종교 외	종교			
2018	8,789,816	6,006,861	2,782,955	50,297 (5.39%)	255,591 (27.4%)	601,318 (64.45%)	25,396 (2.72%)	347 (0.04%)	932,949 (100%)
2017	8,321,393	5,781,531	2,539,862	50,320 (5.67%)	234,211 (26.38%)	576,955 (64.98%)	26,008 (2.93%)	354 (0.04%)	887,848 (100%)

■ 문화예술분야의 재원이 포함되는 개인 기부금(공익 목적의 기부금) 규모의 산정([그림 5-11] 참고)

- 문화예술분야의 재원이 포함되는 개인 기부금 범위에는 종교, 정치, 우리사주의 기부금 유형을 제외해야 함
- 이에 연도별 신고된 개인 기부금 총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 외)을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11] 개인 기부금 민간재원의 범위



■ 일반적인 공익 목적의 개인 기부금 총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9조원으로 집계됨

- 개인 기부금 신고의 금액과 근로소득 기부금 세액공제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비율을 활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등의 이유로 기부금 신고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이가 발생
  - 때문에 기부금 신고금액의 총계를 유지하면서 기부금 공제유형을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유형의 비율을 활용함
- 민간재원 총규모는 연도별 신고된 개인 기부금 총액 × (공제세액 중 법정기부금 + 지정(종교 외)기부금 비율)의 산식을 통해 추정함

[표 5-17] 공익 목적의 개인 기부금 규모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문화예술 재원이 포함된 개인 기부금의 규모 (C×(A+B))	개인 기부금 총액 (C)	공제유형 비율 (A+B)	법정기부금 비율 (A)	지정기부금 (종교외)비율(B)
2018	2,881,302	8,789,816	32.78%	5.39%	27.4%
2017	2,667,006	8,321,393	32.05%	5.67%	26.38%

### (3) 개인 기부의 참여현황

■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 참여현황 등 기부금 이전행위관련 조사 분석

-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에 활용되는 사회조사는 2019년 사회조사로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집계함
  - － 조사대상 : 전국 약 1만 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7천명
  - － 조사기간 : 2019.5.15.~5.30
  - － 관련항목 : 사회참여 부문의 기부관련 항목,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상세 조사결과 내용 참조

■ 개인의 기부참여 현황 조사결과 분석([표 5-18] 참고)

- 개인의 기부 경험은 25.6%로 전기 조사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현금 기부는 24.0%(9.2회), 물품 기부는 4.4%(2.9회)로, 2년 전보다 각각 0.3%p, 1.8%p 감소

[표 5-18]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기부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기부경험				기부하지 않는 이유				
	응답	있음		없음	경제적여유 가 없어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 요청을 안 받아서
		현금	물품						
2019	25.6	24.0	4.4	74.4	51.9	25.2	3.0	14.9	4.9
2017	26.7	24.3	6.2	73.3	57.3	23.2	4.1	8.9	6.3
2015	29.9	27.4	6.2	70.1	63.5	15.2	10.6	7.1	3.5

- － 현금 기부 경로는 「모금단체」가 5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28.5%)」, 「대상자에게

직접(17.0%)」 순으로 많음

- 현금 기부 비중은 2년 전보다 감소하였으나, 기부 횟수(8.7회→9.2회)와 1인당 평균 기부금액(378천원 → 406천원)은 증가

- 기부 희망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6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1% 미만의 응답을 나타냄

[표 5-19]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기부 희망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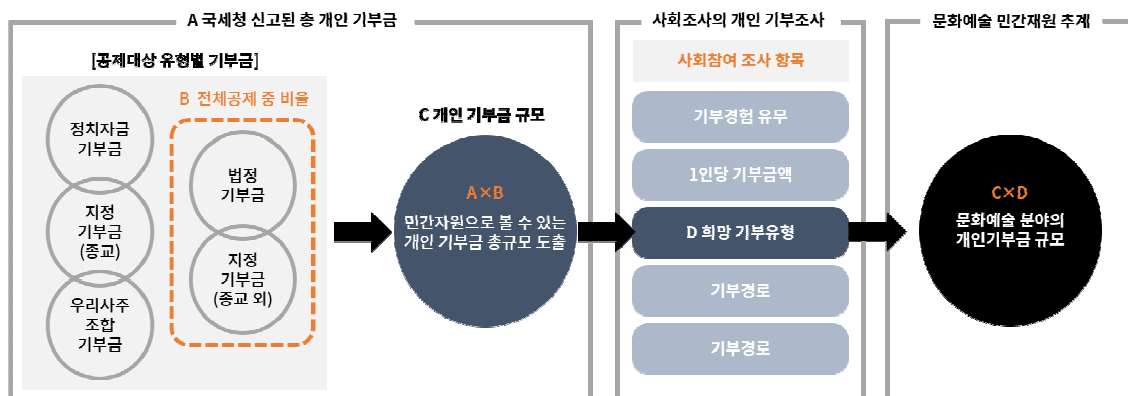
구분		사회복지	의료	해외구호	지역사회	공익활동	교육연구	문화예술	기타
2019	현금기부자	60.6	12.2	11.3	5.4	4.7	4.8	0.8	0.2
	물품기부자	66.5	9.4	8.2	6.6	4.5	3.8	0.7	0.4
2017	현금기부자	61.4	12.3	11.0	5.1	3.5	5.5	0.7	0.6
	물품기부자	66.8	7.8	8.7	6.4	3.6	5.3	1.0	0.5
2015	현금기부자	61.2	10.7	14.8	4.4	2.6	5.2	0.8	0.3
	물품기부자	62.5	7.7	12.9	6.6	2.6	6.2	1.1	0.4

#### (4) 문화예술 분야 개인 기부금 추계

#####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민간 개인 기부금의 규모 추정

- 국세통계를 통해 도출된 개인 기부금(문화예술 분야 재원이 포함)의 규모에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 현금기부 희망 비율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문화예술 민간 개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정

[그림 5-12] 문화예술 민간재원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



■ 문화예술 민간재원 중 개인 기부금 재원규모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시 2018년 공익적 성격의 개인 기부금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분야 민간 개인 기부금은 216억원으로 추정됨

[표 5-20] 통계청 사회조사를 반영한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금 규모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기부금)의 규모 추계 (A×B)	[국세통계] 문화예술분야 재원이 포함된 개인 기부금의 규모 (A)	[사회조사] 기부금 희망분야가 문화예술인 현금기부자 비율 (B)
2018	21,610	2,881,302	0.75% <sup>65)</sup>
2017	18,669	2,667,006	0.7%

## 다. 민간재원 : 법인

### 1) 법인 기부금 현황

#### (1) 분석체계

■ 법인재원에 관한 연구는 기부금과 사업비 지출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함

- 법인재원 중 국세청 법인 기부금 신고자료와 회계공시자료에 근거하여 민간재원을 추정하는 방법과, 기업이 설립한 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사업비 지출예산을 검토하여 민간재원을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 국세통계의 경우 법인의 총 기부금 신고<sup>66)</sup> 정보만 존재하며 소득공제 관련 법정·지정 기부금 유형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추정만 가능함
- 국세통계에 근거한 법인 기부금의 흐름과 추계 탐색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보조적 연구가 추가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
  - － 법인 기부금을 포함한 재원 탐색의 경우 설문조사 혹은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 영리법인 : 법인의 기부금 신고내역(국세통계)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예산 관련 회계공시자료 분석(설문조사, 공시회계자료 분석 등 자체연구)
  - － 비영리법인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및 지출내역(국세통계), 일부 세제적격단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품관련 공시자료,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자료 분석(설문조사, 공시회계자료 분석 등 자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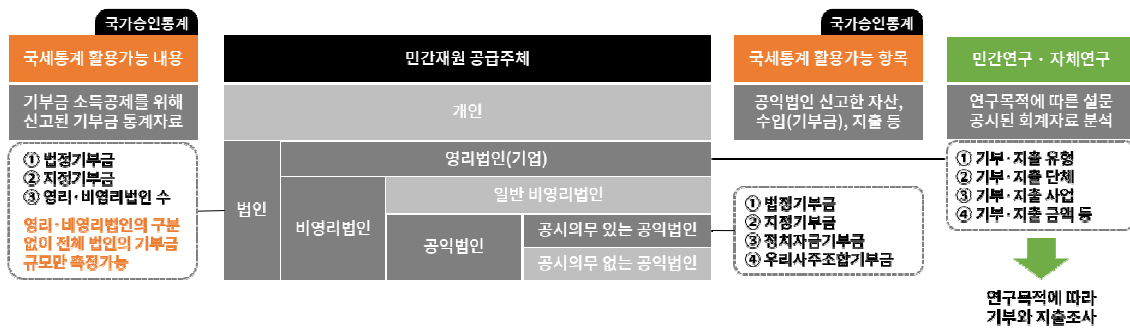
65) 기부금 관련 조사는 홀수해에 진행되기 때문에 짝수해의 적용 비율은 이전, 이후연도 비율을 평균해서 반영함

66)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한 기부금 신고 자료는 없음

## ■ 국세통계 및 민간연구 자료를 활용한 민간재원의 규모 탐색

- 국세통계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통계자료
  -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nts.go.kr)에서 자료 제공, 국세통계포털(stats.nts.go.kr) 활용
- 민간연구 : 모금단체, 학교 등 민간 연구소에서 진행한 법인의 자원추계 자료
  - －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 연구소(nanumresearch.or.kr)에서 격년으로 연구하는 민간자원 탐색 연구 중 기업이 공시한 기부금 회계자료를 활용한 추계내용
  - － 사회공헌백서 : 매년 일정 대상 기업의 사회공헌자료를 정리하여 공개
  - － 한국가이드스타의 의무공시 공익법인 정보 자료 : 한국가이드스타(guidestar.or.kr)에서 국세통계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의무공시 공익법인 자료

[그림 5-13] 법인 기부금 및 사업지출 연구방법



## (2) 법인 기부금의 규모

### ■ 기부금 신고 법인의 유형별 구분 현황

- 2019년 국세청 신고 기준 총 법인은 약 74만개이며 이중 영리법인은 약 70만개, 비영리법인은 약 3만개로 조사됨<sup>67)</sup>
- 국세통계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기부금 통계는 없음
- 국세통계에서 법인 기부금 관련하여 법인 규모별(일반법인, 중소기업), 상장여부로 구분됨<sup>68)</sup>

[표 5-21] 전체 법인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8년	2017년
법인	영리법인	706,616	663,464
	비영리법인	33,599	31,981
	계	708,634	665,481

67) 국세통계연보 '8-1-2 법인세 신고 현황 II'

68)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표 5-22] 법인 규모별·상장여부별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개소)

연도	법인규모별				상장여부			
	계	일반법인	중소기업		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2018	법인수	740,215	101,934	638,281	법인수	740,215	2,058	738,157
	기부금	5,096,288	4,382,683	713,605	기부금	5,096,288	2,388,402	2,707,886
2017	법인수	645,061	134,225	561,220	법인수	645,061	1,986	693,459
	기부금	4,632,262	4,010,508	621,754	기부금	4,632,262	2,134,392	2,497,870

■ 국세통계자료에 나타난 민간 법인재원 현황

- 법인은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법인세를 경감 받게 되며,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은 법정·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
- 2018년 기준 법인 기부금(법정·특례 + 지정)은 총 약 5.1조 원이며 전체 기부금의 36.7%를 차지함

[표 5-23]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 기부금 (A+B+C)	개인 기부금		법인 기부금				
		기부금 (C)	비율	소계 (A+B)	비율	신고법인 수	법정·특례 기부금(A)	지정기부금 (B)
2018	13,886,104	8,789,816	63.30%	5,096,288	36.70%	740,215	1,227,714	3,868,575
2017	12,953,655	8,321,393	64.24%	4,632,262	35.76%	695,445	1,250,184	3,382,076
2016	12,868,471	8,221,315	63.89%	4,647,156	36.11%	645,061	1,409,470	3,237,686
2015	12,711,030	7,932,828	62.41%	4,778,202	37.59%	591,694	2,023,522	2,754,680

### (3) 영리법인의 기부금

■ 영리법인, 즉 기업의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손비산정)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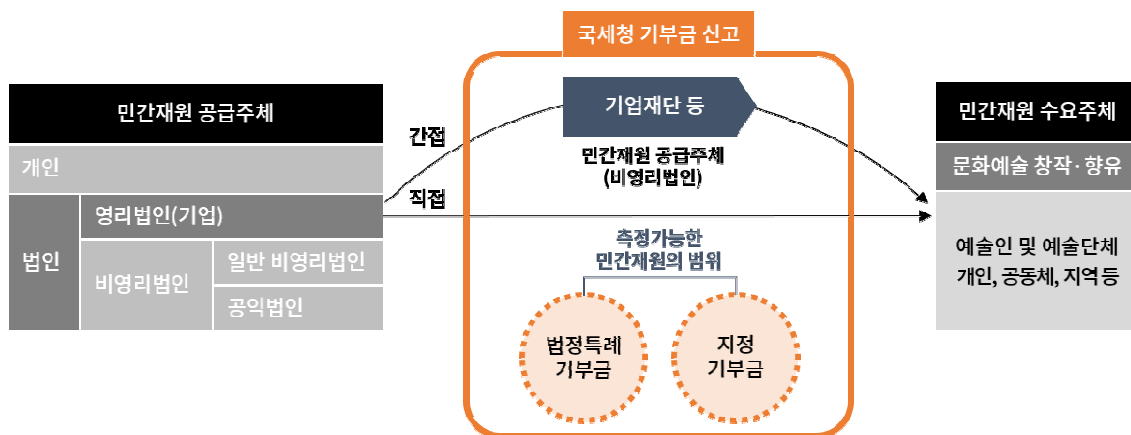
-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 지출 시 대상자(수요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기업재단 및 모금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간접지원의 방법을 선택
  - － 직접지원 : 기부금 대상자(수요주체)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수요주체)가 세제적 격단체일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기업은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함
  - － 간접지원 : 기업재단 또는 모금단체(매개조직)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매개조직의 사업을 통해 대상자(수요주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매개조직이 세제적격단체일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부



금 영수증 발행하고 기업은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함

- 기업이 기업재단에 기부하고 해당 기업재단이 세제적격단체로 공익법인일 경우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재단의 수입(기부금)으로 동시에 통계에 편입됨
- 기업의 기부금은 소득공제(손비산정)를 위해 신고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기업재단이 신고하는 수입(기부금)은 공시정보이기 때문에 국세통계상 성격이 상이함
- 따라서 기업(영리법인)의 기부금과 기업재단(공익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통계를 합하는 것은 규모추정에 있어 과대평가의 오류<sup>69)</sup>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그림 5-14] 영리법인 재원의 구성 및 범위



#### ■ 국가승인통계 이외 연구에 따른 영리법인(기업) 기부금: 민간나눔자원 연구

- 국세통계에서 법인 기부금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국가승인통계 이외의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인 기부금 관련 국세통계의 법인분류는 법인규모별(일반법인, 중소기업), 상장·비상장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업태별, 수입금액규모별, 자산규모별, 소득금액규모별로만 구성되어 있음<sup>70)</sup>
-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를 통한 민간기업 기부금 총량 추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에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라 격년으로 연구
  - 본 연구에 인용되는 연구는 가장 최근 진행된 ‘2018년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로 2017년 기업이 공시한 기부금 회계자료(기업의 KIS VALUE, CEO SCORE, FN GUIDE 세 가지 자료의 2017년 기부금 데이터)를 활용함
  - 2018년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업 연도 기준 영리법인의 기부금 총량은 약 3조 6,132억으로 나타남

69) 이와 같은 과대평가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 추계에서는 수입보다는 지출항목이 적합함

70)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

[표 5-24] 민간기업 기부금 총액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N=13,453)	2015년 (N=2,445)	2013년 (N=2,278)	2011년 (N=2,072)
기부금	3,613,252	2,953,744	2,956,878	2,87,337

■ 국가승인통계 이외 연구에 따른 영리법인(기업) 기부금: 사회공헌백서

- 사회공헌백서는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조사로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으로 주관이 변경
  - 2016년 말 조직이 축소되어 이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지 못함
  - 201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부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를 진행
  - 가장 최근의 사회공헌백서는 2019년도에 발행<sup>71)</sup>되었으며 2018년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 2019 사회공헌백서(2018 사업연도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총 296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예산은 1조 7,145억원으로 나타남

[표 5-25] 연도별 기업의 사회공헌재원 현황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기부금	1조 7,145억원	2조 4,054억원	2조 7,243억원	2조 947억원
조사기업 수	100대 기업	173개 기업	205개 기업	255개 기업

- 이와 함께 2018년 사회공헌백서까지 조사되었던 사회공헌 유형분류가 2019년에는 삭제되어 사업유형별 비율을 알기 어려워짐. 2018년 조사에서는 사회공헌유형 중 체육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가 9.2%로 나타남

[표 5-26] 연도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분류 및 비중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조사항목 변경	42.0%	사회공헌백서 미발간	39.7%
교육·학교·학술		25.6%		21.4%
문화·예술·체육		9.2%		9.1%
환경보호		5.6%		7.0%
해외지원		4.8%		4.5%
의료보건		2.8%		7.9%
기타		10.0%		10.4%

71) '2019 사회공헌백서: 대한민국 사회공헌 지형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crckorea.kr

■ 정리하면 총 법인의 기부금은 약 5조, 기업 기부금은 약 3.6조, 100대기업 사회공헌 재원은 약 1.7조

[표 5-27] 영리법인의 민간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 법인 기부금 (2018 사업연도 기준)	총 민간기업 기부금 (2017 사업연도 기준)	100대 기업 사회공헌 재원 (2018년 사업연도 기준)
통계	5,096,288	-	-
추계	-	3,613,252	1,714,500

#### (4)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및 사업지출

##### ■ 비영리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국세통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의 수만 파악 가능
- 국세청에 신고<sup>72)</sup>된 전체 비영리법인은 2018년 33,599개, 2017년 31,981개로 증가하는 추세
-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비공익법인)의 비율은 약 절반 정도이며, 공익법인 중에서도 의무공시 대상<sup>73)</sup>과 아닌 대상의 비율 역시 각각 절반 가량으로 나타남

[표 5-28] 전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비영리법인 수 (A+B)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수 (A)			종교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수 (B)
		소계	의무공시 대상	의무공시 대상 외	
2018	33,599	17,237	9,403	7,834	16,362
		51.30%	(54.55%)	(45.45%)	48.7%
2017	31,981	16,581	9,164	7,417	15,400
		51.85%	(55.27%)	(44.73%)	48.15%

##### ■ 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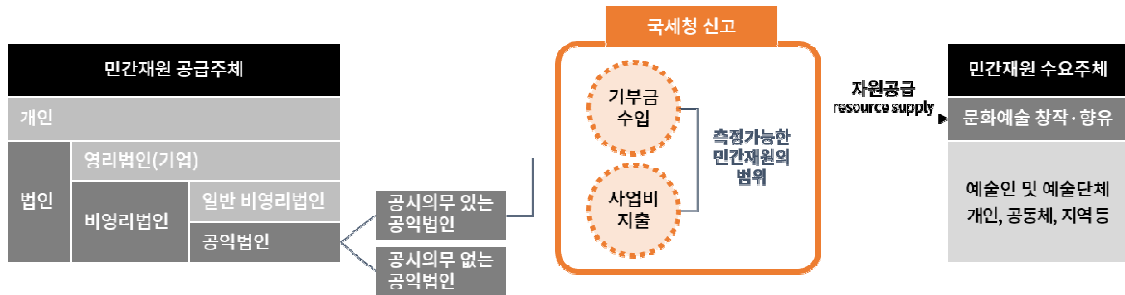
- 비영리법인과 관련, 기부금 등 국세통계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는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자료뿐임
- 법률에 따라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으로 자산, 수입(기부금 포함), 지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개인, 영리법인의 기부금 신고와 공익법인의 공시 기부금은 그 성격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세제혜택(세액공제, 손비산정)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국세청에 신고
  - 반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포함 공시자료는 세제혜택과 상관없이 하는 현황공시임

72) 국세통계연보의 '8-1-2 법인세 신고 현황 II', '8-1-10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73) 국세통계연보의 '8-7-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

- 이에 개인과 영리법인의 기부금은 공익법인이 신고한 기부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서 민간재원으로 산정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

[그림 5-15] 공익법인 재원의 구성 및 범위



#### 참고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2019년)

- ① 결산 서류 의무 공시 적용 대상을 기존 자산 5억원, 연간 수입 3억 이상 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 법인으로 확대 적용(2020. 1월 시행)
- ② 외부 감사 적용 대상을 자산 100억 이상 공익 법인에서 연간 기부금 20억 모금 또는 기부금 포함 총 수입 50억 이상 공익 법인으로 확대 적용 (2020. 1월 시행)
- ③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자산 5억원, 수입금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으로 확대 (2021. 1월 시행 예정)
- ④ 민간 기업에 적용했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 법인에도 적용 (2022. 1월 시행 예정)  
자산 규모 1000억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외부 감사인을 4년 동안 자율 선임 후 그 후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위탁)이 지정한 감사인 선임 의무
- ⑤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

#### ■ 국세통계의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구분

-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공익법인을 의무공시 자료서식과 관련하여 사업목적별로 구분하고 있음
-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사업목적은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기타 6개 항목으로 분류됨
- 2018년의 경우 기타 제외 학술·장학과 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익법인은 8.62%의 현황을 나타냄

[표 5-29] 전체 공익법인의 사업목적별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공익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17,237	3,543	1,769	4,624	1,485	986	4,830
		20.55%	10.26%	26.83%	8.62%	5.72%	28.02%
2017	16,581	3,497	1,764	4,488	1,412	951	4,469
		21.09%	10.64%	27.07%	8.25%	5.74%	26.95%

- 전체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sup>74)</sup>은 2018년 기준 총 9,403개임
- 2018년 기준 사업유형별 분류에서는 역시 학술·장학과 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익법인은 6.41%의 현황을 나타냄

[표 5-30]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의무공시 법인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9,403	2,275	1,687	2,407	603	1,006	1,425
		24.19%	17.94%	25.6%	6.41%	10.7%	15.15%
2017	9,164	2,213	1,664	2,347	591	990	1,359
		24.15%	18.16%	25.61%	6.45%	10.8%	14.83%

- 참고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설립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설립유형별 분류자료는 국세통계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외부 자료(한국가이드스타)를 활용하여 분석함
  - －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통계 중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결산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제공하고 있음<sup>75)</sup>
  - － 한국가이드스타의 자료는 2019년 5월 의무공시된 자료(2018년 사업연도)를 취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국세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설립유형별 분류에 전체 공익법인을 보면 재단법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3.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정부(지자체) 산하 기관이지만 동시에 세제적격단체(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정받는 사례가 포함됨

[표 5-31] 2018 사업연도 기준 설립유형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sup>76)</sup>	공공기관	기타단체
전체 법인	9,663	4,902	1,855	348	328	2,230
	100%	50.73%	19.2%	3.6%	3.39%	23.08%
기부금 <sup>77)</sup> 법인	5,039	2,345	1,290	209	121	1,074
	100%	46.54%	25.6%	4.15%	2.4%	21.31%

74) 종교법인 제외

75) [http://www.guidestar.or.kr/dono/guide\\_donovigator\\_detail\\_p01.asp](http://www.guidestar.or.kr/dono/guide_donovigator_detail_p01.asp)

76)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 (국세기본법 13조)

■ 전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자산과 수입 현황

- 국세통계를 통해 신고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자산<sup>78)</sup>과 수입<sup>79)</sup>을 살펴보면 총자산과 총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수입<sup>80)</sup>에서 회비수익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부금은 총수입의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6조 5,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표 5-32]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자산 및 총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법인 수	총자산	총수입 (A+B+C)	기부금 (A)	보조금 (B)	기타 (C)
2018	9,403	163,524,214	99,926,647	6,505,747	44,253,140	49,167,760
				6.51%	44.29%	49.2%
2017	9,164	160,981,361	93,705,545	5,904,463	40,231,608	47,569,475
				6.3%	42.93%	50.76%

■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자산 현황

- 2018년 기준 9,403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총 163조 5,242억원의 자산보유 현황을 신고하였음
- 문화예술 공익법인의 경우 603개의 법인이 4조 3,025억원의 자산보유 현황을 신고하였으며 전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보유자산 중 2.63%의 비중을 나타냄

[표 5-33]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9,403	163,524,214	11,210,114	84,402,424	29,344,007	4,302,504	4,867,441	29,397,724
			6.86%	51.61%	17.94%	2.63%	2.98%	17.98%
2017	9,164	160,981,361	10,660,291	83,257,000	29,366,734	4,407,957	4,408,227	28,881,152
			6.62%	51.72%	18.24%	2.74%	2.74%	17.94%

■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수입 현황

- 총수입은 기부금, 보조금, 수익사업을 포함한 기타수익으로 구성됨

77) 기부금 수입이 있는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78) 국세통계연보의 '8-7-3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보유 현황'

79) 국세통계연보의 '8-7-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현황'

80) 국세통계연보의 '8-7-5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상세 현황'

- 2018년 기준 9,403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총 99조 9,266억원의 수입 현황을 신고
- 문화예술 공익법인의 경우 603개의 법인이 2조 5,783억원의 수입 현황을 신고하였으며 전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수입 중 2.58%의 비중을 나타냄

[표 5-34]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총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9,403	99,926,647	25,329,095	26,731,917	19,886,330	2,578,304	4,724,813	20,676,188
			25.35%	26.75%	19.90%	2.58%	4.73%	20.69%
2017	9,164	93,705,545	22,806,124	25,977,624	19,968,897	2,407,725	4,354,682	18,190,493
			24.34%	27.72%	21.31%	2.57%	4.65%	19.41%

■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현황

- 2018년 기준 4,846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총 6조 5,057억원의 기부금 모집을 신고
- 문화예술 공익법인의 경우 376개의 법인이 3,570억원의 기부금 모집을 신고하였으며 전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기부금 중 5.49%의 비중을 나타냄
  - 다만, 해당 기부금은 개인·영리법인의 기부금이 포함된 기부금 모집공시이기 때문에 개인·영리법인의 기부금과 단순 합계 처리하면 과대평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표 5-35]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기부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9,403	6,505,747	2,014,085	1,127,355	856,562	357,004	86,011	2,064,730
			30.96%	17.33%	13.17%	5.49%	1.32%	31.74%
2017	9,164	5,904,463	1,989,127	1,044,391	625,334	399,429	82,594	1,763,587
			33.69%	17.69%	10.59%	6.76%	1.40%	29.87%

-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문화예술분야 376개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법인 중 상위 100개의 기부금 모집 법인 정보를 제공<sup>81)</sup>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문화예술 기준으로 재정리<sup>82)</sup>하여 문화예술

81)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예술문화 분야 공익법인 Top 100. [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id=TR-END&buid=12964&action=&search\\_type=title%7Ccontent&search\\_text=&search\\_category=all&search\\_add=&cur\\_page=1&page\\_size=10](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id=TR-END&buid=12964&action=&search_type=title%7Ccontent&search_text=&search_category=all&search_add=&cur_page=1&page_size=10)

82) 한국가이드스타의 분류에 있어 법인명에 문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두 문화예술 공익법인으로 구분하는 오류가 있어 이를 재단 사업을 기준으로 재정리함. 예를 들어 기존 한국가이드스타의 문화예술분야 분류에는 체육문화, 유교문화 등과 같은 목적사업을 추구하는 법인을 문화예술 공익법인으로 분류

분야 주요 기부금 모집 공익법인을 정리하였음

-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 중에서 기부금품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며, 롯데문화재단과 엔씨문화재단, 케이비에스교향악단,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더불어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의 비중이 높음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규모 역시 높게 나타남
- 상위 기부금 모집 공익법인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은 곳은 본 연구에서 매개조직으로 분류되는 법인임

[표 5-36] 2018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주요 기부금 수입 공익법인 현황

(단위: 원)

순위	법인명	기부금액	순위	법인명	기부금액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176,088,950	31	(사)국립중앙박물관회	1,593,875,100
2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	18,000,000,000	32	재단법인 아름지기	1,553,290,983
3	재단법인 엔씨문화재단	16,103,749,169	33	재단법인 수로문화재단	1,550,424,030
4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	11,252,391,575	34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1,449,390,000
5	재단법인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10,971,852,369	35	재단법인 동우문화재단	1,406,000,000
6	재단법인 우란문화재단	9,644,151,520	36	재단법인 태성문화재단	1,338,000,000
7	(사)한국메세나협회	8,150,950,230	37	예술의전당	1,324,000,000
8	공익법인 자케이엘 사회공헌재단	7,036,774,248	38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1,300,000,000
9	(재)월드컬처오픈 화동문화재단	6,029,203,565	39	(재)광주비엔날레	1,260,692,574
10	(재)씨제이문화재단	5,851,369,484	40	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	1,216,000,000
11	(재)유니버설문화재단	5,149,772,625	41	재단법인 한중문화센터	1,208,000,000
12	재단법인 시티문화재단	4,937,806,510	42	(재)아침편지 문화재단	1,199,868,445
1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4,616,912,520	43	심포니송	1,186,916,000
14	재단법인 엘지연암문화재단	4,610,967,240	44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1,155,035,288
15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3,820,000,000	45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1,135,600,058
16	(재)네이버문화재단	3,500,054,800	46	재단법인 아가페문화재단	1,076,269,915
17	(재)대림문화재단	3,454,966,243	47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940,000,000
18	그라시아스 합창단	3,235,723,537	48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932,038,000
19	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	3,001,412,850	49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901,000,000
20	재단법인 녹우당 문화예술재단	2,833,078,400	50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882,949,209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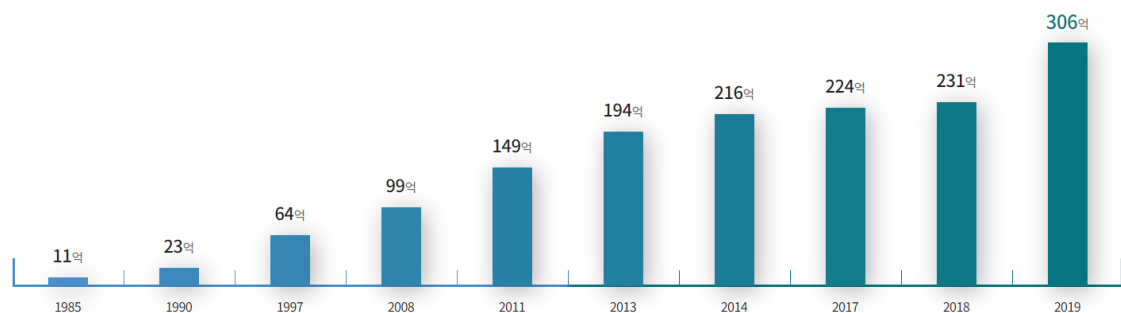
순위	법인명	기부금액	순위	법인명	기부금액
21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2,700,000,000	51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754,629,800
22	재단법인 넷마블문화재단	2,552,176,420	52	(재)하종현예술문화재단	753,256,220
23	(사)경남메세나협회	2,058,300,000	53	(사)어린이도서연구회	692,653,078
24	재단법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2,003,359,155	54	재단법인 예울	661,819,900
25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	1,900,000,000	55	(재)한화문화재단	600,000,000
26	재단법인 골프존 문화재단	1,894,581,000	문화예술을 기준으로 재정리		
27	(재)가현문화재단	1,893,137,000			
28	(재)한솔문화재단	1,892,225,901			
29	(재)대산문화재단	1,850,000,000			
30	문화유산국민신탁	1,602,784,532			

\*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기부금액 상위 100개 법인 정보'를 재구성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의 가장 규모가 크고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조직으로, 문화예술 민간자원 조사에 있어 연결매체 중심 접근방법을 활용할 때 주요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순수기부금, 조건부기부금, 실명제기부금 등을 운영
  - － 이 중 순수기부금과 실명제기부금은 극히 낮은 모집현황을 보이며 조건부기부금이 주요 기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 조건부기부금은 기부자가 후원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 또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2019년에는 약 306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함<sup>83)</sup>

[그림 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도별 기부금 현황



83) <https://www.arko.or.kr/supp/content/4094> ((접속일자 : 2020.11.20.)

[표 5-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도별 기부유형별 기부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순수기부금	조건부기부금	계
2019	-	30,663,388	30,663,388
2018	-	23,176,089	23,176,089
2017	-	22,453,107	22,453,107
2016	-	20,708,870	20,708,870
2015	-	26,904,560	26,904,560
2014	-	21,629,600	21,629,600
2013	-	19,453,916	19,453,916
2012	-	14,725,592	14,725,592
2011	20	14,903,172	14,903,192

■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지출 현황

- 지출(필요경비)은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 모금비로 구성되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sup>84)</sup>(일반관리 및 모금비 제외)는 해당 연도 사업지출예산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기준 9,403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총 100조 555억원의 총지출 현황을 신고하였으며, 목적사업비 지출은 90조 7,234억원을 신고함
- 문화예술 공익법인의 경우 603개의 법인이 2조 750억원의 목적사업비 지출을 신고하였으며 전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목적사업비 중 2.29%의 비중을 나타냄
- 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을 바로 민간재원 흐름으로 볼 수는 없음. 문화예술분야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지출한 목적사업비에는 보조금과 같은 공공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5-38]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대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법인	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
2018	9,403	90,723,492	23,643,070	23,246,842	18,026,196	2,075,073	3,969,032	19,763,280
			26.06%	25.62%	19.87%	2.29%	4.37%	21.78%
2017	9,164	83,042,895	21,194,673	21,098,545	18,234,375	1,871,089	3,374,142	17,270,071
			25.52%	25.41%	21.96%	2.25%	4.06%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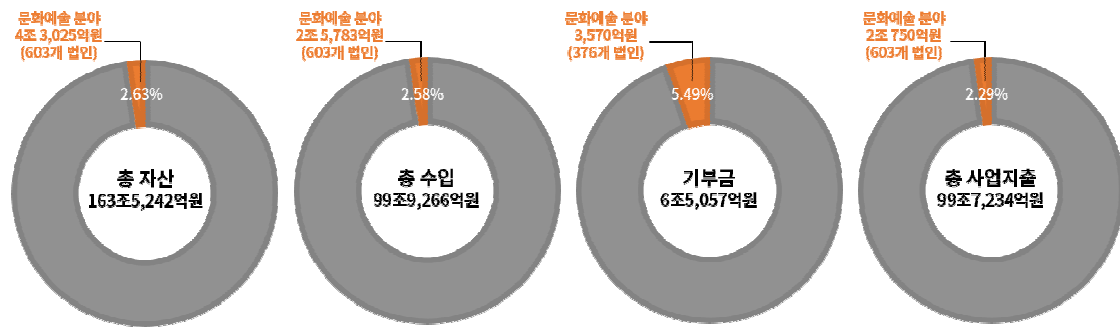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재원 현황 정리

- 의무공시 대상 전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수는 603개(6.41%)임

84) 국세통계연보의 '8-7-6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현황'

- 603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4조 3,025억원(2.63%)으로 집계됨
- 의무공시 대상 전체 공익법인 중 603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수입은 2조 5,783억원(2.58%)임
- 의무공시 대상 전체 공익법인 중 376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기부금은 3,570억원(5.49%)임
- 의무공시 대상 전체 공익법인 중 603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사업지출은 2조 750억원(2.29%)임

[그림 5-17] 2018년 사업연도 기준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문화예술분야 자원현황



■ 국세통계를 활용한 문화예술분야 민간 법인재원의 규모 추정

- 국세통계를 통해 도출된 법인 기부금 규모에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 기부금 비율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문화예술 민간 법인재원의 규모를 추정
  - A : 2018년 전체 법인 기부금 5,096,288백만원
  - B : 2018년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유형 공익법인이 모집신고한 기부금 비율 5.49%
  - $A \times B = 279,786$ 백만원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 시 2018년 문화예술분야 민간 법인재원은 약 2,798억원으로 계산됨

## 제2절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규모 추계

### 1.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는 3,014억원으로 추정됨

-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민간재원의 총규모는 7조 9,775억원으로 추정됨
  - － 종교와 정치 등을 제외하고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는 개인 기부금의 규모는 2조 8,813억원임
  - － 법인의 법정·지정기부금의 규모는 5조 962억원임
- 다만, 국세통계의 문화예술 유형분류에는 시민문화, 체육문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민간재원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표 5-39] 2018년 기준 문화예술 민간재원 측정·분석범위 및 총량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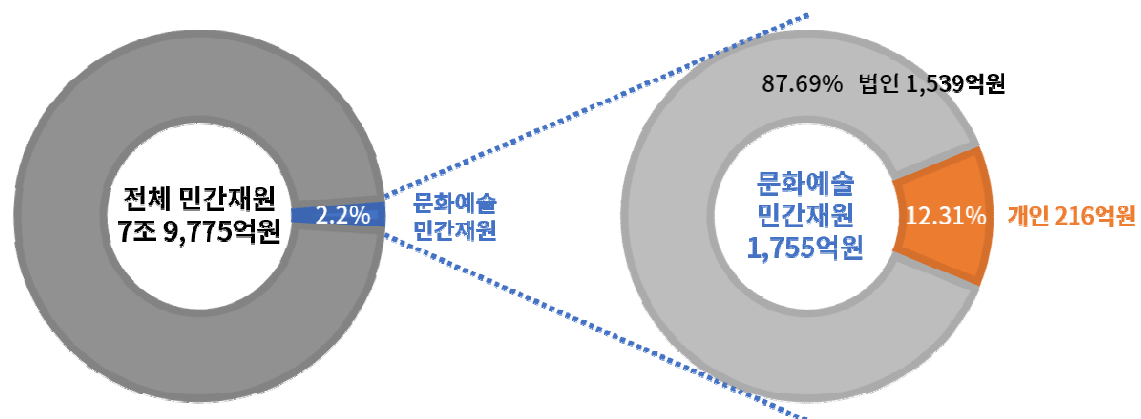
구분	측정 및 분석가능 범위	활용자료	재원 및 현황	문화예술 민간재원
개인	① 전체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8조 7,898억원	216억원 (②×③희망기부유형)
	② 세액공제 유형별 기부금 (법정+종교외 지정기부금)	국세통계	2조 8,813억원 (①×②비율)	
	③ 기부 참여 현황	사회조사	-	
법인	④ 전체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5조 962억원	2,798억원 (④×⑮문화예술비율)
영리법인	⑤ 상장법인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2조 3,884억원	
	⑥ 기부금 규모	민간자원연구	3조 6,132억원 (2017년 기준)	
	⑦ 100대 기업 사회공헌규모	사회공헌백서	1조 7,145억원	
비영리법인	⑧ 전체 비영리법인 수	국세통계	33,599개	
공익법인 외	⑨ 공익법인의 비영리법인 수	국세통계	16,362개	
공익법인	⑩ 전체 공익법인 수, 유형	국세통계	17,237개 (종교법인 제외)	
의무공시 대상 외	⑪ 의무공시 대상 외 공익법인 수	국세통계	7,834개	
의무공시 대상	⑫ 공익법인 수, 설립유형	국세통계	9,403개	
	⑬ 총자산, 유형별 자산	국세통계	163조 5,242억원	
	⑭ 총수입, 유형별 수입	국세통계	99조 9,266억원	
	⑮ 총기부금, 유형별 기부금	국세통계	6조 5,057억원	
	⑯ 총지출, 유형별 지출	국세통계	100조 555억원	
	⑰ 총사업비, 유형별 사업비	국세통계	90조 7,234억원	

- 보정을 위해 의무공시 대상 문화예술 공익법인 중 기부금 모집신고 상위 100개 법인 리스트를 검토하여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만을 재정리함
  - －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분야 주요 기부금 모집 공익법인 100개<sup>85)</sup>를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법인 기준으로 재분류함
  - － 기존 100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리스트 중 (사)대한핸드볼협회, 국군문화진흥원, 대한민국배구협회, 골프존 문화재단 등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법인 45개를 제외함
  - － 문화예술유형으로 분류된 100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중 55개만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확인됨
- 법인 기부금에 55%의 보정을 적용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규모를 재산출하면 국세통계상 기부금으로 구성된 개인재원은 216억원(기존과 동일), 법인재원은 1,539억원으로 민간재원은 총 1,755억원

[표 5-40]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와 규모

구분	재원	비고
개인	216억원	
법인	1,539억원	보정비율 적용: 2,798억원(④)×⑮문화예술비율) × 55%
계	1,755억원	

[그림 5-18]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



#### ■ 기존 문화예술 민간재원 연구와의 비교

- 가장 최근에 조사된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연구 중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2016년 1월 발표된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와 2015년 1월 발표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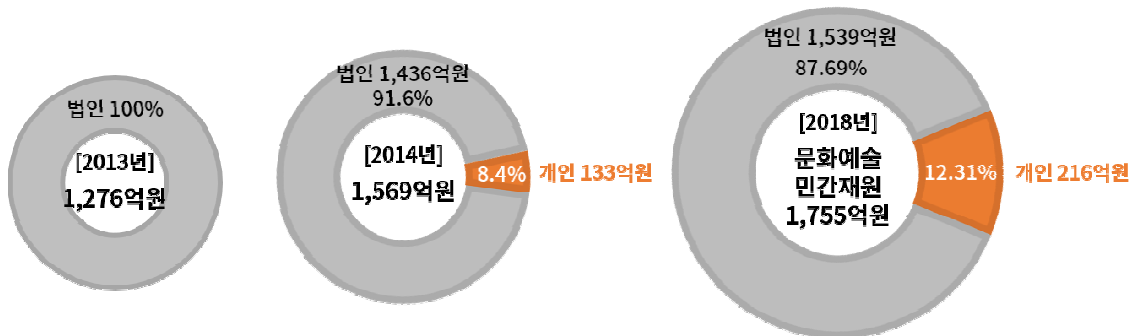
85)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예술문화 분야 공익법인 Top 100. [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id=TREND&buid=12964&action=&search\\_type=title%7Ccontent&search\\_text=&search\\_category=all&search\\_add=&cur\\_page=1&page\\_size=10](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id=TREND&buid=12964&action=&search_type=title%7Ccontent&search_text=&search_category=all&search_add=&cur_page=1&page_size=10)

- 상기 연구조사의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며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분석을 위해 연결매체 중심 접근방법으로써 2차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 형태로 연구를 진행함
- 문화예술 민간재원은 2013년 1,276억원(개인 제외), 2014년 1,569억원이며 2018년 1,755억원과 비교시 연도별로 문화예술 민간재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짐

[표 5-41] 문화예술 민간재원 선행연구결과 비교

구분	민간재원 규모		비고
2018	1,755억원	개인	216억원(12.31%)
		법인	1,539억원(87.69%)
2014	1,569억원	개인	133억원(8.4%)
		법인	1,436억원(91.6%)
2013	1,276억원	개인	-
		법인	1,276억원

[그림 5-19] 연도별 조사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이



#### ■ 한국메세나협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

- 국세통계분석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으로는 문화예술 유형별 민간재원을 분류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 유형별 민간재원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연구의 참조가 필요함
-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sup>86)</sup>에는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조사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한국메세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는 2,081억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

86) <https://www.mecenat.or.kr/ko/community/report.php> (접속일자 : 2020.11.15.)

한 법인재원 1,569억원을 상회하는데, 이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지원조사는 기부를 포함한 사업지출이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법인재원 1,569억원은 기부금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

— 2019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81억원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127개 기업의 지원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한 420개 기업의 기부금
-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127개 기업의 지원규모 : 1,913억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한 420개 기업의 기부금 : 167억원

#### ■ 한국메세나협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내용 및 유형분류

- 한국메세나협회 기업의 문화예술 분류는 인프라, 클래식, 미술·전시, 문화예술교육, 국악·전통예술, 문학, 뮤지컬, 비주류·다원예술, 영상·미디어, 연극, 무용, 기타로 구성됨
-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은 인프라 지원금액이 1,194억원(58.56%)으로 가장 높았으며, 클래식 177억원(8.68%), 미술·전시 170억원(8.33%), 문화예술교육 157억원(7.66%)으로 지원분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5-42] 2019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분야	인프라	클래식	미술·전시	문화예술교육	국악·전통예술	문학
지원금액	119,428	17,713	16,998	15,617	7,462	3,762
(비중)	58.6%	8.7%	8.3%	7.6%	3.6%	1.8%
분야	뮤지컬	비주류·다원예술	영상·미디어	연극	무용	기타
지원금액	3,657	3,365	3,306	3,219	1,917	7,512
(비중)	1.8%	1.7%	1.7%	1.6%	0.9%	3.7%

[그림 5-20] 2019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비중



# 제6장

---

##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 요약

### 가. 공공재정의 규모

- 본 연구는 문화예술지원 규모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부재 문제를 완화하고 문화예술지원에 사용되는 총액 및 순지원규모 및 예산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에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서와 문예진흥기금, 각 지방정부의 문예 관련 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기능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성질별(목-세목)로 정리함
- 또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사업은 2차적으로 정책대상(예술인·단체, 국민, 공공기관 등)과 사업목적으로 재분류하여 아래의 [표 6-1]을 도출함

[표 6-1] 문화예술지원의 사업유형 분류

061 문화예술(부문)	정책대상	사업 유형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기준)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복지지원
		일자리 지원
		유통/매개지원
	국민	생활예술지원
		향유활동지원
		향유인프라구축
		교육지원
	공공기관/단체 (공연장/미술관/도서관/박물관/협회 등)	기관(단체)운영 지원
		시설건립(개보수)

- 공공부문의 재정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1조 7,812억 원, 지방정부(광역 시도)는 1조 7,493억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지원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예산의 총액은 3조 5,305억원으로 산출됨

-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합산되며,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금은 지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됨
- 중복을 제거한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의 순지원 규모는 약 3조 110억원으로 집계됨(당초 예산 기준)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예산의 단순 합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 금액이 중복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전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 금액(5,169억 원)은 광역자치단체 이전 외 일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도 원칙적으로 순지원 규모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중앙재정과 광역시도 재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광역시도 재정에서 추출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금액을 제외한 중앙정부 예산과 광역시도 예산을 합산함

[표 6-2]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예산 합계 및 순지원규모

(단위: 천원, %)

정책 대상	지원목적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광역지자체)	합계	비율	순지원 규모 <sup>87)</sup>	비율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84,221,000	108,074,720	192,295,720	5.4%	186,168,720	6.0%
	복지지원	70,827,000	2,075,000	72,902,000	2.1%	72,902,000	2.4%
	일자리지원	14,540,000	4,962,522	19,502,522	0.6%	19,502,522	0.6%
	유통·매개 지원	74,455,000	127,369,606	201,824,606	5.7%	199,810,606	6.7%
	소계	244,043,000	242,481,848	486,524,848	13.8%	478,383,848	15.7%
국민	향유활동 지원	252,122,000	224,633,726	476,755,726	13.5%	342,189,726	11.4%
	향유인프라 구축	403,181,000	140,231,666	543,412,666	15.4%	229,380,666	7.6%
	교육지원	129,260,000	47,614,879	176,874,879	5.0%	146,226,879	4.9%
	생활예술 지원	-	12,458,330	12,458,330	0.4%	12,458,330	0.4%
	소계	784,563,000	424,938,601	1,209,501,601	34.3%	730,255,601	24.3%
공공 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637,693,000	691,501,702	1,329,194,702	37.6%	1,316,734,702	43.9%
	시설건립 (개보수)	114,932,000	390,382,928	505,314,928	14.3%	485,594,928	16.1%
	소계	752,625,000	1,081,884,630	1,834,509,630	52.0%	1,802,329,630	60.0%
총계		1,781,231,000	1,749,305,079	3,530,536,079	100.0%	3,010,969,079	100.0%

87) 순지원 규모는 중앙재정에서 이전 지출예산(자치단체이전)을 뺀 나머지(직접수행+민간이전) 예산에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더한 값임

- 문체부의 중앙재정에서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지원 순규모는 1조 2,617억원으로 집계됨
  -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중앙재정에서 이전된 4,36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조 7,493억원으로 집계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의 세부내용을 지원목적에 따라 비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중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액 및 비중은 거의 유사하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규모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6-3] 참고)
-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가 13.7%(2,440억원), 지방정부가 13.6%(2,371억원)로 나타나 각 재정내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 44.1%(7,846억원), 광역 시도 24.3%(4,24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시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 비해 예산액이나 비율에서도 낮게 나타남
    - 이는 향유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높은데서 기인함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 42.3%(7,526억원), 광역 시도 62.1%(1조 873억원)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비해 광역시도의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별로 문화예술지원 관련 예산의 차이는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민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6-3] 지원목적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시도) 예산 비교

(단위: 천원)

정책대상	지원목적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84,221,000	4.7%	101,572,567	5.8%
	복지지원	70,827,000	4.0%	2,075,000	0.1%
	일자리지원	14,540,000	0.8%	4,962,522	0.3%
	유통·매개지원	74,455,000	4.2%	128,460,646	7.3%
	소계	244,043,000	13.7%	237,070,735	13.6%
국민	향유활동지원	252,122,000	14.2%	224,633,726	12.8%
	향유인프라구축	403,181,000	22.6%	140,231,666	8.0%
	교육지원	129,260,000	7.3%	47,614,879	2.7%
	생활예술지원	-	-	12,458,330	0.7%
	소계	784,563,000	44.1%	424,938,601	24.3%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운영지원	637,693,000	35.8%	696,912,815	39.8%
	시설건립(개보수)	114,932,000	6.5%	390,382,928	22.3%
	소계	752,625,000	42.3%	1,087,295,743	62.1%
총계		1,781,231,000	100.0%	1,749,305,079	100.0%

## 나. 공공재정의 흐름

■ 사업의 수행 방식에 따라 동일한 세부사업내에서도 예산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각 영역에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 수행방식을 살펴보면, 직접수행(6,770억원, 38.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이전(5,847억원, 32.8%), 자치단체이전(5,196억원, 29.2%) 순으로 나타남([표 6-4] 참고)

[표 6-4]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중앙정부)

(단위: 천원)

정책대상	지원목적	수행방식			계
		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12,007,408	66,086,592	6,127,000	84,221,000
		14.3%	78.5%	7.3%	100.0%
	복지지원	18,140,000	52,687,000	-	70,827,000
		25.6%	74.4%	0.0%	100.0%
	일자리지원	2,225,071	12,314,929	-	14,540,000
		15.3%	84.7%	0.0%	100.0%
	유통/매개지원	8,954,993	63,486,007	2,014,000	74,455,000
		12.0%	85.3%	2.7%	100.0%
소계	41,327,472	194,574,528	8,141,000	244,043,000	
	16.9%	79.7%	3.3%	100.0%	
국민	향유활동 지원	26,391,135	91,164,865	134,566,000	252,122,000
		10.5%	36.2%	53.4%	100.0%
	향유인프라 구축	77,200,600	11,948,400	314,032,000	403,181,000
		19.1%	3.0%	77.9%	100.0%
	교육지원	69,000	98,543,000	30,648,000	129,260,000
		0.1%	76.2%	23.7%	100.0%
	생활예술지원	-	-	-	-
		-	-	-	-
소계	103,660,735	201,656,265	479,246,000	784,563,000	
	13.2%	25.7%	61.1%	100.0%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441,227,556	184,005,444	12,460,000	637,693,000
		69.2%	28.9%	2.0%	100.0%
	시설건립 (개보수)	90,749,000	4,463,000	19,720,000	114,932,000
		79.0%	3.9%	17.2%	100.0%
	소계	531,976,556	188,468,444	32,180,000	752,625,000
		70.7%	25.0%	4.3%	100.0%
계		676,964,763	584,699,237	519,567,000	1,781,231,000
		38.0%	32.8%	29.2%	100.0%

- 예술인(단체)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직접 수행(지출)하는 예산은 413억원이며, 국민을 대상 사업 중 직접 지출예산은 1,037억원, 공공기관 등의 경우 5,320억원으로 나타남
- 민간이전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 중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946억원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은 2,017억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885억원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가 예술인(단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이전을 하는 예산은 81억원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792억원으로 자치단체이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322억원임

■ 지방정부(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5,211억원, 29.8%) 예산이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전(4,740억원, 27.1%), 직접수행(4,058억원, 23.2%), 민간이전(3,484억원, 19.9%)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광역시도가 직접수행(지출)하는 예산은 511억원, 민간단체(개인)에게 지출하는 예산은 981억원, 공공기관에 이전지출되는 예산은 660억원,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예산은 220억원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민간이전(중앙정부 기준)을 민간이전과 공기관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어 실제 민간단체(개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추산할 수 있음
-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시도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은 총 4,058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공공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직접지출하는 예산이 3,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이전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 기관(단체)운영 지원이 포함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추출된 예산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예산 역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에서 3,31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광역시도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 규모는 총 5,211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20억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은 2,165억원, 기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2,826억원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이전을 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의 향유활동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광역시도의 자치단체이전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시설) 등의 건립(개보수)과 운영에 사용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도의 세부사업을 지원목적별로 살펴보면 유형별로 사업 수행방식과 연계하여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예술인(단체) 대상 사업유형 중 창작지원에서 민간이전과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유통/매개지원에서는 직접수행과 민간이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자리지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일반국민을 대상 사업유형 중 향유활동지원과 향유인프라구축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유형에서 시설건립(개보수)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음

[표 6-5] 수행방식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예산 분류(광역시도)

(단위: 천원, %)

정책 대상	지원목적	수행방식				합계
		직접수행	민간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7,143,278	44,261,739	43,259,200	6,908,350	101,572,567
		7.0%	43.6%	42.6%	6.8%	100.0%
	복지지원	100,000	150,000	1,825,000	0	2,075,000
		4.8%	7.2%	88.0%	0.0%	100.0%
	일자리지원	85,157	1,324,300	3,194,180	358,885	4,962,522
		1.7%	26.7%	64.4%	7.2%	100.0%
	유통/매개 지원	43,747,396	52,315,850	17,682,500	14,714,900	128,460,646
		34.1%	40.7%	13.8%	11.5%	100.0%
소계	51,075,831	98,051,889	65,960,880	21,982,135	237,070,735	
	21.5%	41.4%	27.8%	9.3%	100.0%	
국민	향유 활동지원	16,875,401	61,325,980	42,979,855	103,452,490	224,633,726
		7.5%	27.3%	19.1%	46.1%	100.0%
	향유 인프라구축	22,783,027	3,196,783	6,100,000	108,151,856	140,231,666
		16.2%	2.3%	4.3%	77.1%	100.0%
	교육지원	3,012,914	19,579,292	22,749,300	2,273,373	47,614,879
		6.3%	41.1%	47.8%	4.8%	100.0%
	생활예술 지원	1,414,130	3,853,200	4,530,000	2,661,000	12,458,330
		11.4%	30.9%	36.4%	21.4%	100.0%
소계	44,085,472	87,955,255	76,359,155	216,538,719	424,938,601	
	10.4%	20.7%	18.0%	51.0%	100.0%	
공공 기관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167,673,775	161,749,935	324,035,558	43,453,547	696,912,815
		24.1%	23.2%	46.5%	6.2%	100.0%
	시설건립 (개보수)	142,969,552	624,000	7,658,876	239,130,500	390,382,928
		36.6%	0.2%	2.0%	61.3%	100.0%
	소계	310,643,327	162,373,935	331,694,434	282,584,047	1,087,295,743
28.6%		14.9%	30.5%	26.0%	100.0%	
총계		405,804,630	348,381,079	474,014,469	521,104,901	1,749,305,079
		23.2%	19.9%	27.1%	29.8%	100.0%

-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재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4,365억원의 예산을 이전받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3.2%(4,058억원)를 직접 집행하고 있고, 76.8%(1조 3,435억원)는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개인)로 이전하여 지출하고 있음([표 6-6] 참고)

- 이전받은 4,365억원의 예산 중 72.9%(3,183억원)는 2,028억원의 자체 예산을 더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있음
  - － 산하기관(10.3%)과 민간단체(개인)(9.9%)에 대한 지원예산은 비슷한 비율로 중앙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
  - － 중앙재정의 특별회계로부터 이전된 예산(2,452억원)의 대부분(93.1%/2,281억원)은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이전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재정에서 이전된 예산을 바탕으로 다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산하기관으로 이전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민간단체(개인)에 대한 예산으로 434억원을 이전받아 자체 예산(3,050억원)과 합하여 3,48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총 4.291억원의 자체 예산과 449억원의 중앙재정을 합하여 총 4,740억원의 예산(27.1%)을 지출하고 있음

[표 6-6] 광역시도의 2020년도 문화예술부문 지출(세출)예산의 수행방식별 규모(당초 예산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직접수행	이전지출_민간	이전지출_공공기관	이전지출_지자체	합계
일반회계(중앙)	14,725,870	17,595,816	14,899,380	34,196,375	81,417,441
특별회계(중앙)	15,190,000	30,000	1,800,000	228,135,000	245,155,000
기금(중앙)	-	25,758,640	28,245,560	55,926,160	109,930,360
소계(국비)	29,915,870	43,384,456	44,944,940	318,257,535	436,502,801
(비율)	6.9%	9.9%	10.3%	72.9%	100.0%
지방비(광역)	375,888,760	304,996,623	429,069,529	202,847,366	1,312,802,278
총계	405,804,630	348,381,079	474,014,469	521,104,901	1,749,305,079
(비율)	23.2%	19.9%	27.1%	29.8%	100.0%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광역시도) 재정별로 직접수행, 민간이전, 공공기관이전,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하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중앙재정(문체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문예진흥기금)에서는 총 1조 2,617억원의 예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이전(지원)하고 있음
  - － 직접수행하는 예산은 6,770억원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경비, 인건비 또는 소속기관(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 민간이전은 총 5,847억원으로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사업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어 다시 문화예술계로 지원되거나 일반 문화예술단체(예술인)에 직접 지출(지원)되고 있음
- 광역시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4,365억원을 이전받고, 자체 예산과 합쳐 1조 7,493억원의 문화예술지

원 예산을 구성하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5,211억원을 이전시킴

- 자치단체 이전을 제외한 예산(1조 2,732억원)으로 직접수행(4,058억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전(4,740억원)하기도 하며, 민간단체(개인)에 대하여 3,484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 다. 민간재원의 규모와 흐름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 주체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
  - 비영리법인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영리법인은 기업이 직접 주체가 되는 경우와 회사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
  - 기업 : 기업내 사회공헌팀과 같이 관련 조직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 재단 : 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원지원을 결정

[표 6-7]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한 민간의 지원주체

주체	구분			비고
개인	일반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업설립 재단, 공공기관 등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외	
			의무공시 대상	

### ■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 직접적인 지원주체는 아니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중간조직이 존재하며 이를 매개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매개조직은 정보제공, 홍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기부금 세제혜택 제공 등 매개·촉진 활동을 통해 민간분야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하며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 가능함

[표 6-8] 문화예술 민간재원 관련 매개조직 분류

	구분	비고
공공분야 매개조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	서울문화재단 등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
민간분야 매개조직	문화예술 관련	한국메세나협회 및 지역 메세나협회 등
	일반공익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모금기관 등



###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유형분류

- 일반적으로 한 주체의 재정투입은 그 목적에 따라 소비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민간주체의 문화예술 재정지출은 크게 시장소비(service fee)와 지원(자원공급, resource suppl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은 재정자원 공급의 관점에서 다시 기부, 협찬, 투자로 분류함
- 민간재원 중 문화예술 관람 및 구입 등 시장소비(시장재원)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민간자원(현금, 현물, 봉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소비 중 ①사업재원과 자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②기부, ③협찬, ④투자를 문화예술 민간재원 범위로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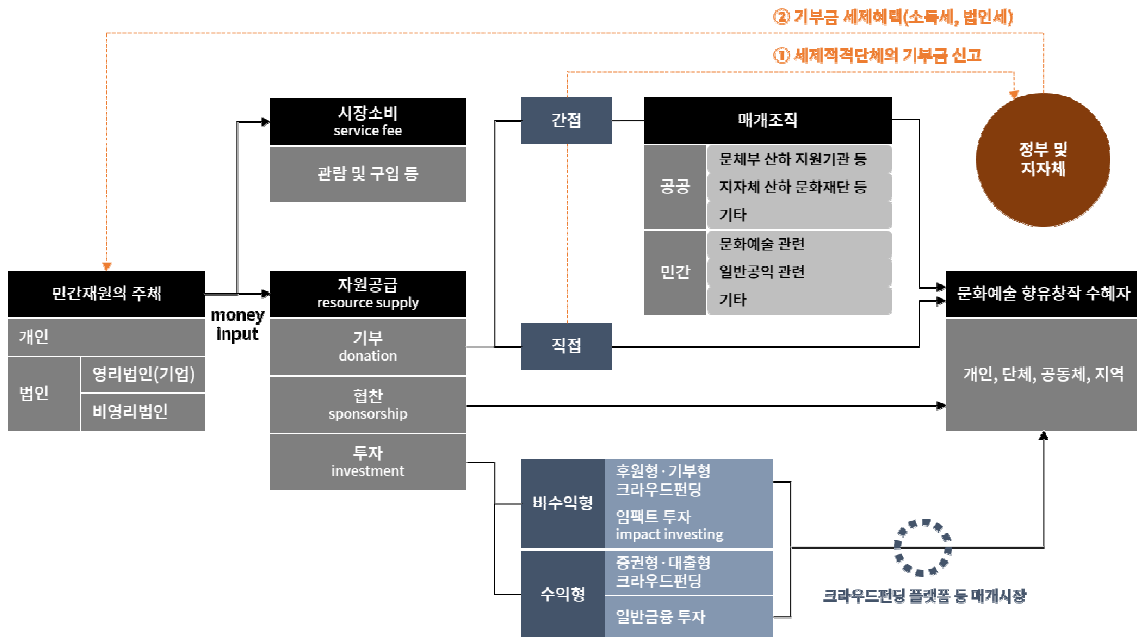
### ■ 문화예술 민간재원 유형분류에 따른 공급형태 및 재원흐름 정리

- 문화예술 민간재원 재분류에 따른 공급형태는 민간의 자체사업으로 투입되는 사업재원과 기부, 협찬, 투자로 유형 정리 가능
- 이 중 사업재원을 제외한 기부, 협찬, 투자의 경우 시장소비와 구분되는 속성이 존재
  - － ① 사업재원 : 영리(기업 사회공헌예산 지출),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사업예산 지출)로 문화예술 관련 직접적인 사업지출을 재원으로 하며 통계, 설문조사, 회계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 가능함
  - － ② 기부 : 개인과 법인의 문화예술 기부금으로 조사와 측정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민간재원 조사대상임. 국세통계, 설문조사, 회계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 가능함
  - － ③ 투자 : 수익형 투자와 비수익형 투자로 구분되며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나 임팩트투자자와 같은 비수익형 투자를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비수익형 투자의 경우 공시자료의 미흡으로 조사의 편의성이 낮음
  - － ④ 협찬 : 기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광고협찬과 같이 대가성이 존재. 개인보다 영리법인의 공급비중이 높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진행되거나 일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측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은 정리에서 다시 매개조직을 반영하고 투자를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공급형태와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알 수 있음

[표 6-9] 재분류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특성

구분		내용	민간재원	측정의 편의성	조사방법
시장 소비	시장재원	일반적인 예술시장의 소비	-	-	
	사업재원	주로 법인의 직·간접 문화예술관련 사업지출	포함	낮음	설문조사, 공시자료
자본 투자	수익형	일반적인 자본·채권형 금융투자	-	-	
	비수익형	후원형·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임팩트투자	포함	낮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미흡
기부 협찬	기부	자발적인 비대가성의 현금·물품 이전	포함	높음	국세통계, 설문조사, 공시자료
	협찬	대가성이 있는 현금·물품 이전	포함	낮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미흡

[그림 6-1] 민간재원의 구성과 공급형태, 전체 흐름



#### ■ 문화예술 민간자원 탐색 및 추계의 접근방법

- 문화예술 민간자원 탐색과 추계는 다른 연구분야와 달리 국가승인통계 등 2차 자료 활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우며 2차 자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 구성이 요구됨
-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급자(provider) 중심’ 접근법과 ‘연결매체(intermediary agent) 중심’ 접근법 활용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은 재원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 즉 민간자원 공급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조사방법으로, 공급자(민간주체)가 재원을 어떤 상대(수혜자)에게 제공했을 때 생성되는 조세 혜택 정보나 공급자의 재무회계에 반영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를 추산함
    - 세부적으로 공급의 각 부문별 지출내역을 통해 접근하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을 통해 추계
    - 국세통계 등 2차 자료 활용이 중심이 되며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특징이 있음
  -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방법은 제공된 민간재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그 흐름에 주목
    - 재원이 공급자(민간주체)에 의해 생산되어 상대(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을 위해 접근성, 편의성이 용이한 연결매체(매개조직)를 경유하는 경우도 많음
    - 연결매체 접근법은 재원의 유통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원의 과소추정이라는 단점을 지님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민간 매개조직의 회계정보와 일부 투자 관련 매개시장의 공시 정보에 기반한 추계 진행

■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는 3,014억원으로 추정됨

-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민간재원의 총규모는 7조 9,775억원으로 추정
  - － 종교와 정치 등을 제외하고 민간재원으로 볼 수 있는 개인 기부금의 규모는 2조 8,813억원
  - － 법인의 법정·지정기부금의 규모는 5조 962억원
- 다만, 국세통계의 문화예술 유형분류에는 시민문화, 체육문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민간재원은 이 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

[표 6-10] 2018년 기준 문화예술 민간재원 측정·분석범위 및 총량추계

구분	측정 및 분석가능 범위	활용자료	재원 및 현황	문화예술 민간재원
개인	① 전체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8조 7,898억원	216억원 (②×③희망기부유형)
	② 세액공제 유형별 기부금 (법정+종교외 지정기부금)	국세통계	2조 8,813억원 (①×②비율)	
	③ 기부 참여 현황	사회조사	-	
법인	④ 전체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5조 962억원	2,798억원 (④×⑮문화예술비율)
영리법인	⑤ 상장법인 기부금 규모	국세통계	2조 3,884억원	
	⑥ 기부금 규모	민간자원연구	3조 6,132억원 (2017년 기준)	
	⑦ 100대 기업 사회공헌규모	사회공헌백서	1조 7,145억원	
비영리법인	⑧ 전체 비영리법인 수	국세통계	33,599개	
공익법인 외	⑨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수	국세통계	16,362개	
	⑩ 전체 공익법인 수, 유형	국세통계	17,237개 (종교법인 제외)	
의무공시 대상 외	⑪ 의무공시 대상 외 공익법인 수	국세통계	7,834개	
의무공시 대상	⑫ 공익법인 수, 설립유형	국세통계	9,403개	
	⑬ 총자산, 유형별 자산	국세통계	163조 5,242억원	
	⑭ 총수입, 유형별 수입	국세통계	99조 9,266억원	
	⑮ 총기부금, 유형별 기부금	국세통계	6조 5,057억원	
	⑯ 총지출, 유형별 지출	국세통계	100조 555억원	
	⑰ 총사업비, 유형별 사업비	국세통계	90조 7,23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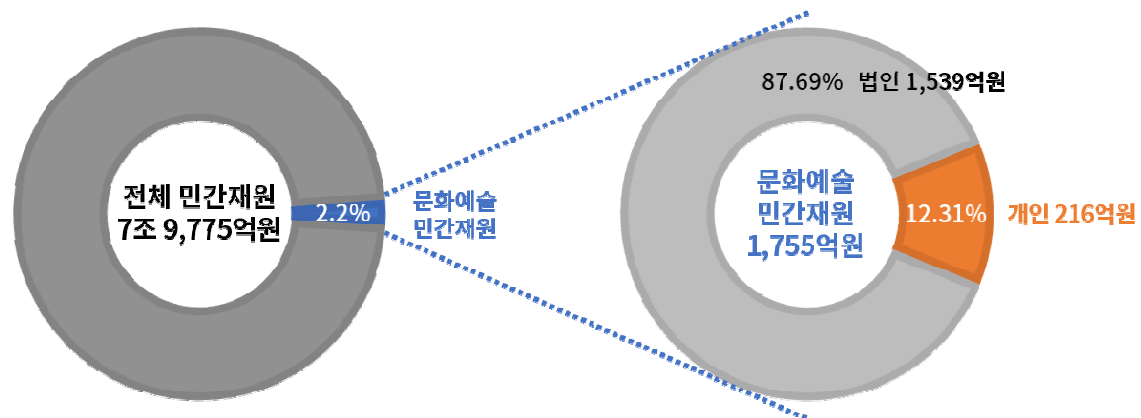
- 보정을 위해 의무공시 대상 문화예술 공익법인 중 기부금 모집신고 상위 100개 법인 리스트를 검토하여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만을 재정리
  - －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분야 주요 기부금 모집 공익법인 100개를 순수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법인 기준으로 재분류

- 기존 100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리스트 중 (사)대한핸드볼협회, 국군문화진흥원, 대한민국배구협회, 골프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법인 45개를 제외함
- 문화예술유형으로 분류된 100개의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중 55개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확인됨
- 법인 기부금에 55%의 보정을 적용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규모를 재산출하면 국세통계상 기부금으로 구성된 개인재원은 216억원(기존과 동일), 법인재원은 1,539억원으로 민간재원은 총 1,755억원으로 추정됨

[표 6-11]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추계와 규모

구분	재원	비고
개인	216억원	
법인	1,539억원	보정비율 적용: 2,798억원(④)×⑮문화예술비율) × 55%
계	1,755억원	

[그림 6-2] 2018년 기부금에 근거한 문화예술 민간재원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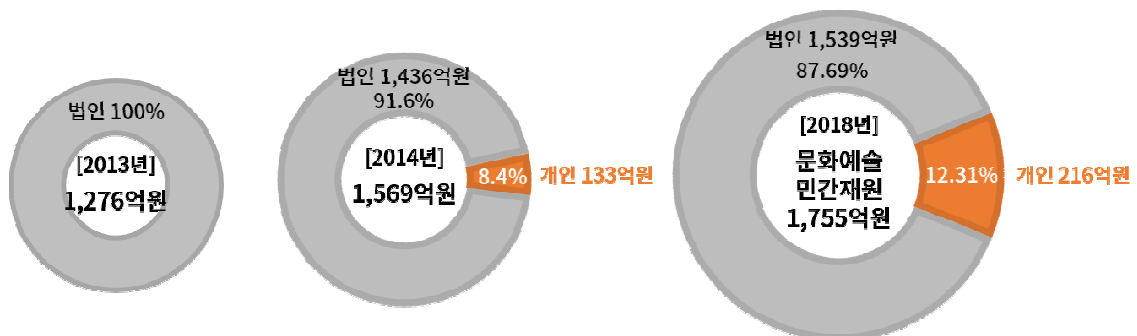
#### ■ 기존 문화예술 민간재원 연구와의 비교

- 가장 최근에 조사된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연구 중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2016년 1월 발표된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와 2015년 1월 발표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임
- 상기 연구조사의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며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 분석을 위해 연결매체 중심 접근방법으로써 2차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 형태로 연구를 진행함
- 문화예술 민간재원은 2013년 1,276억원(개인 제외), 2014년 1,569억원이며 2018년 1,755억원과 비교시 연도별로 문화예술 민간재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짐

[표 6-12] 문화예술 민간자원 선행연구결과 비교

구분	민간자원 규모			비고
2018	1,755억원	개인	216억원(12.31%)	국세통계와 사회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 2차 자료분석
		법인	1,539억원(87.69%)	국세통계와 민간연구자료에 기반한 2차 자료분석
2014	1,569억원	개인	133억원(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데이터 및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개인 기부금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법인	1,436억원(91.6%)	기업: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건부기부금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재단: 문체부가 주무부처로 등록된 문화예술분야 64개 재단 설문
2013	1,276억원	개인	-	조사 미진행
		법인	1,276억원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그림 6-3] 연도별 조사된 문화예술 민간자원의 추이



## 2.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 가. 연구의 의미

-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예산체계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공공재정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지원 규모를 파악함
- 공공부문의 재원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구조와 예산과목 체계 분류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
  - 선행 조사·연구 검토를 통해 지원 유형 구분의 사례를 알아보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범주화하여 사업 대상과 지원목적에 따른 사업 유형을 구분함
  - 각 재정별 최근 연도 예산 추이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공공기금 등으로 구분되는 공공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분석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함
-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로 이동하는 재정의 성격을 검토하고,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부문-프로그램(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함
  - 중앙재정/지방재정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예산을 세부사업 단위로 분석하여 문화예술 지원목적별 사업 예산의 규모를 재정별로 파악함
  - 지원목적에 따른 유형별 사업 예산의 비율과 특징을 개괄하고 중앙재정과 광역시도 재정의 예산을 비교, 분석함
- 분석틀 설정을 통해, 공공지원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각 재정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지원주체가 지원대상에 대하여 이전하여 지출하는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이전 연구에서 없었던 사업의 수행(추진) 방식 구분(직접수행,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을 통해 수행 방식별로 예산의 규모와 흐름을 지원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규모를 산출함
  - 이를 통해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 지방정부-산하 출연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로 이어지는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 지방정부-산하 출연기관-민간(문화예술)단체로 이어지는 재정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분석을 위한 틀(프레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함
- 문화예술분야 민간재원의 구성을 파악하고 체계와 흐름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고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재원 주체별 재원 규모를 추산함
- 민간재원의 종류와 개념, 주체, 범위를 분석틀 설정 차원에서 검토하여 비교하고, 민간재원의 문화예술 흐름을 도식화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민간재원 추계조사의 접근방법(분석틀)을 정리하고, 국가승인통계 및 기타 통계자료의 특성과 내용,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풍부한 자료 구축을 시도함

- 국세통계 등 국가승인통계와 타 연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재원 주체별 재원 규모를 추계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재원규모를 알아보고 문화예술분야 투입 재원을 추산함과 동시에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분야 공익법인의 사업지출 규모를 산출함

## 나. 연구의 한계

### ■ 공공부문 재정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예산서 입수의 한계로 예산(재정)의 전달 흐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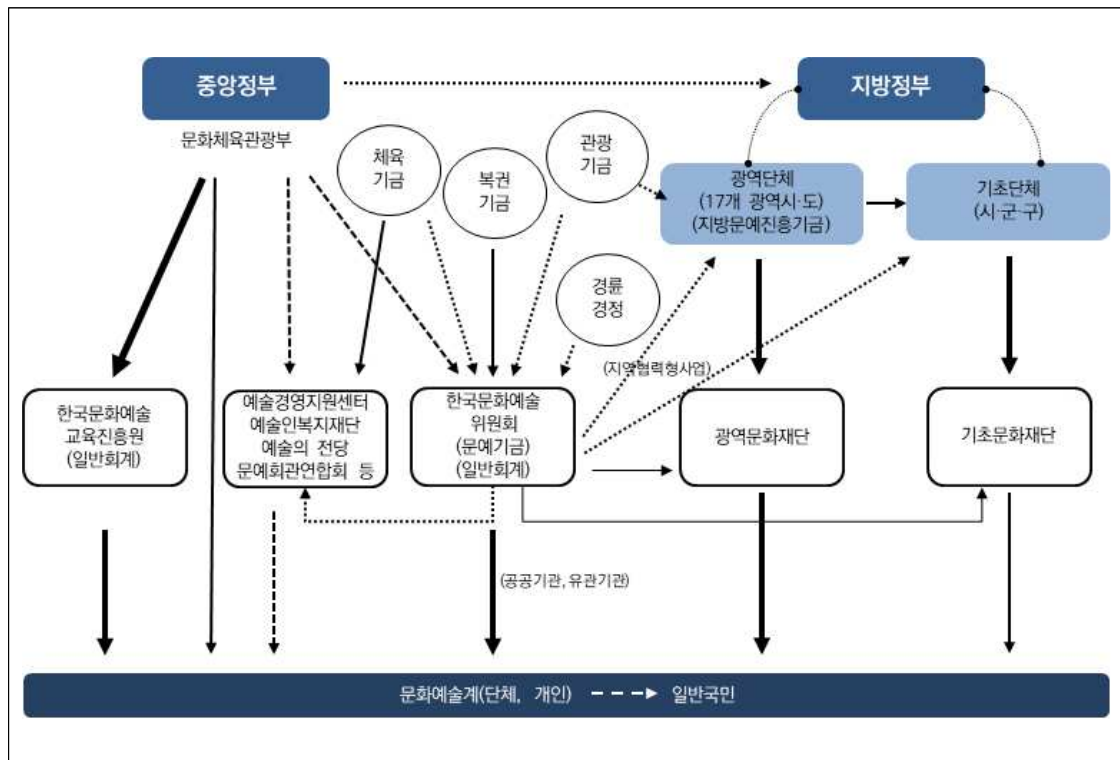
-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정책 대상에 바로 전달(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산하기관(출연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보조(위탁)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의 세출(지출)예산서에는 산하기관 또는 중간 전달자(지원대행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표현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의 상세 예산서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 예술계로 전달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지 또는 보조사업 등을 통해 재전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의 흐름을 좀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음
-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보조받은 예산을 다시 민간단체 또는 지역의 문화재단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함
  - 예산과목 편제상 중앙정부 산하기관은 자치단체로는 예산을 이전시키지 못하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의 위치를 가진 지역문화재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의 경우에도 광역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재정에서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재정이 전달되고 있으나 특정 사업이 ‘00문화재단 지원’으로 표현되고 단일 예산과목(출연금)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출연금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경비와 사업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총액만 표현되고 있어 재정의 전달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사업 운영경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공공재정의 전체 규모 파악이 어려움

-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 재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국내 전체 규모에 대한 추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여 예산의 흐름과 지출 대상을 구분하여 정교하게 분석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까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예산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화예술부문 지원예산의 파악 부족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 중앙재정 내에서도 체육진흥기금 등의 타 재원에서 일부 예산이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유입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함
- [그림 6-4]와 같이 문화예술정책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현재에 맞게 구성하는 시도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공공예산의 총규모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재원의 흐름도 함께 파악할 수 있으나 그 러하지 못하였음

[그림 6-4] 문화예술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예시



\* 김성규(2015) 「문화예술단체 자원조성」 (p.69)을 현재에 맞게 재구성

#### ■ 정책 대상 구분을 통한 지원유형 분류에서 나타나는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대상을 3개 집단(예술단체(예술인), 일반국민,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을 계산함
- 다만, 실제 공공기관이나 단체(시설)에 대한 예산의 세부사업에서 기관(단체, 시설)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다른 정책 대상(예술단체(예술인)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을 파악하여 분류하는 등 상세한 분석을 위해 노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단체(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결국 해당 시설에서 활동(공연 또는 전시)하는 예술단체(예술인)와 관객이 되는 일반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기관(단체, 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지원의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직접 보조를 제외하고도 중요한 활동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였음



- 이 부분 역시 향후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상세 예산 분석을 통해 예술계 또는 일반국민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살펴보거나, 출연금 예산과목의 예와 같이 중간 전달자(기관)에 대한 상세 예산 파악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세부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유형 구분의 어려움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광역시도)의 예산 편제는 거의 동일하나, 각 재정의 특징에 따라 사업별 유형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 중앙재정의 경우 예산체계의 가장 하위단위인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지방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세부사업 안에 성격이 다른 내역사업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있어 단일 지원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
  - 지방재정의 경우 광역시도의 정책(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분이 서로 다르고 사업명만으로 사업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지원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 단일 예산과목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보조사업자로 구성된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 구분이 쉬우나, 세부사업내의 사업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됨
  - 예를 들어, 세부사업 안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 향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섞여 있는 경우 유형 구분이 모호해짐
  - 예산체계상 세부사업 기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세부사업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을 포괄하는 사업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중앙재정은 부처(문체부) 조직 편제와 유사하게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문화예술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역사, 문화자원)을 반영하여 수립된 사업이 문화예술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순수(기초) 문화예술로 보기 힘들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 이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관점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 민간재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한계

- 가장 신뢰성 높은 국가승인통계에서 문화예술분야 재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현황파악 및 추계에 있어 논리적·산술적 추계의 한계
  - 국세통계 및 사회조사통계에 포함된 문화예술 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밀한 추계의 본질적 한계가 있음
  - 다른 민간조사 역시 제한된 대상과 기부금에 치중된 조사방법 등의 한계로 신뢰성 있는 범용의 자료구축이 어려움
- 문화예술 민간재원에 관한 조사연구가 지속적이지 못하여 시계열적 현황파악이 어려움
  - 이러한 한계로 문화예술 민간재원 조사가 정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기초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는 데이터 부재로 인한 정책적 성과 측정이 제한됨

## 다. 향후 연구 제안

### ■ 시계열 데이터 구성을 통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문화예술지원 변화상 분석

-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5년치 예산 데이터를 구성하여 재원별, 지원목적별로 투입된 재정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늘어나고 있는 생활SCO 건립 등 일반국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관련한 사업의 추이와 함께, 예술단체(개인)에 지원되는 예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전체 순규모를 파악한다면 사업유형별, 지역별로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예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사업유형과 지역별 구분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예술인 활동현황이나 일반국민의 인구 분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등을 참고하여 과부족과 신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 문화예술지원 사업유형에 대한 분류 방식 개선 및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에 정의되어 있으나 연구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총 지원규모나 재정의 전달 규모 및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연구는 공공지원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국내의 기존 조사/연구를 검토 및 하여 참고하였는데, 예술활동의 다양한 양상과 세부사업 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 장르별 구분을 시도하지 않았음
  -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재정과 재원을 어떻게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성과관리 계획 및 지표, 결과를 분석하여 상호 구별될 수 있는 사업 유형의 구분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 및 분류 시도의 필요성
  - 중앙재정의 경우, 세부사업의 단위가 지방재정에 비해 크고 다양한 사업이 내역사업(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세부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사업유형으로 포함하였으나, 세부사업을 하나의 성격으로만 구분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재정 분석에 앞서 중앙재정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 대상으로 내역사업까지 분류한다면 상세한 연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술계 지원사업과 일반국민 대상 사업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상세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시설의 사업내역을 입수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여 예술계와 일반국민 대상 세부사업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한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의 규모를 상세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기관(시설)에 대하여 정책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고 예산을 구분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기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은 결국 예술계 또는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됨

- 따라서,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좀더 상세히 분석한다면 이전지출에 따른 공공재정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다른 재원에 대한 상세 조사의 한계와 극복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중앙재정의 경우 문체부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문예진흥기금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부문 재정과 사업목적 분류에 따른 규모 등을 조사함
  - 다만, 체육진흥기금이나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의 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의 전반적인 모습 또는 타 재원의 지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데이터를 추가하여 어떤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 유형의 분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부사업 중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이나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의 취지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예: ‘문화이모작’,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 그러나,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776억원이고 그 중 일부(26억원)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내역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으나 현재보다 좀더 정확한 문화예술 재정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도할만함

#### ■ 전달 유형을 보조와 위탁 형태로 구분하여 전달체계의 패턴을 세분화하는 연구 시행

-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이전(지원)할 경우 최종 지원주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조금(지원금)의 경우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 혹은 예술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로 구분 가능함
  - 중앙재정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표현되어 산하기관을 지원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과목과 구분하는 지방재정과 다른 모습을 보임
  - 위탁사업의 경우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단체)에 사업 추진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곳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문화예술단체(예술가)에 대한 재교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전달(지원)유형을 아래 [표 6-13]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사업별로 전달체계를 분석한다면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6-13] 지원목적에 따른 전달(지원) 유형의 상세화

구분		전달(지원) 유형	
		보조금 사업	위탁 사업
문화예술지원 목적	창작지원	I 유형	II 유형
	향유확대	III유형	IV유형

■ 정례적인 민간재원 연구 진행의 필요성

- 연구의 한계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규모와 흐름 등을 시계열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정례적인 관련연구 추진이 필요함
  - 데이터와 자료 축적에 따라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의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환경구축이 요구됨
  - 향후 연구 시 민간재원의 조사항목 개념을 명확히 하여 연구자별로 조사내용이 분산되지 않도록 동일한 항목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황파악 및 재원추계시 공급자 중심 접근법과 연결매체 중심 접근법의 혼용을 통해 추계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함께 구축된 자료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 및 가독 편의성을 고려한 아카이브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참고문헌

---

1. 국회예산정책처(2018).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8. 8.
2. 김성규(2015). 「문화예술단체 재원조성」, 수림문화총서, 서울: 이음스토리
3.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문화예술경영학연구」, 7:1, 11-37.
4. 김철회(2008), 중앙정부의 이전지출과 국회의 재정통제, 「의정논총」 3:1, 35-62.
5.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권」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508>
7.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1.
8. 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9.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예술 정책백서」
10.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1. 박민권·장웅조(2020).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 연구.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4:1, 99-127.
12. 박신의(2008).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지원 유형 분류와 간접 지원의 개념양상 분석. 「문화정책논총」, 20, 36-62.
13. 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14. 통계청(2020). 「국가지표체계」, Available  
[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web=\(접속일자 2020. 11. 18.\)](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web=(접속일자 2020. 11. 18.))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11.
16. 한국재정정보원(2018).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방향 연구」, 2018.4.
17. 한국재정정보원(2019). 「재정통계 해설」, 2019.3.
18. 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9. Arts Council England, Get Funding, Available : [www.artscouncil.org.uk/](http://www.artscouncil.org.uk/)(접속일자 2020. 10. 26)
20. Canada Council for the Arts, Grants, Available : [canadacouncil.ca/funding/grants](http://canadacouncil.ca/funding/grants) (접속일자 2020. 10. 26)
21. Chartrand, H. & McCaughey, C.(1989),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the ar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C. Cummings Jr & J.M.D. Schuster(eds), *Who's to pay for the arts? The international search for models of support*(3-16), NY: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
22. Culture and Public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9). FORUM OF MINISTERS OF CULTURE, Paris, UNESCO,

---

Available : [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88?fbclid=IwAR1NWp-YAnFy3WFUoscbs115B4mMEDEID15itNMWWSvhcOUnFahTJvIh2-c](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88?fbclid=IwAR1NWp-YAnFy3WFUoscbs115B4mMEDEID15itNMWWSvhcOUnFahTJvIh2-c) (접속일자 2020. 11. 15)

2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Grants, Available : [www.arts.gov/grants/](https://www.arts.gov/grants/)(접속일자 2020. 10. 26)

## <부록 1>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중 문화예술사업 현황

### ■ 지자체 대상 지정사업

[부록 표 1] 2020년도 중앙정부 이전지출의 기능별 재정 규모(문화예술부문-지정/지자체)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다양성 축제 매프 지원)	500	지자체 (경상남도)
문화·인문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300	경상북도 (안동)
문화·인문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지역인문자원 발굴 및 확산	500	경상북도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진흥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596	전라북도(전주)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진흥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및 전시장 건립	700	전라북도(전주)
전통문화진흥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7,856	17개 지자체
[예술정책관]				
공연및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16,000	평택시
공연및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3,720	부산광역시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2,500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	5,813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3,045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800	16개 시·도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187	17개 시·도 자치 단체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	512	전라북도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07,730	17개 지역주관처 (각 시도별 광역문화재단)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역문화정책관]				
박물관정책 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	1,000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99,390	지자체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작은도서관 조성	4,532	지자체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7,667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2,943	충청남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480	전라북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2,602	전라남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2,379	경상북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255	경상남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5,998	서울특별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2,820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3,370	인천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2,807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3,746	대전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819	울산광역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8,080	경기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4,029	강원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125	충청북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5,596	충청남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3,750	전라북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6,333	전라남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5,035	경상북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4,336	경상남도
문화시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739	세종특별자치시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확충및운영(세종)	(세종)			
문화시설 확충및운영(세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종)	생활문화센터 조성(세종)	60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세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종)	작은도서관 조성	9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확충및운영(제주)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제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8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시설 확충및운영(제주)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제주)	생활문화센터 조성(제주)	6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400	인천광역시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4,500	경기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3,627	강원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676	충청북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2,320	충청남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1,000	전라북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자율)	2,320	전라남도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세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세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세종)	80	세종특별자치시
합계			470,491	

\* 단위사업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단위사업이 어느 재정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  
어 예술창작역량강화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원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고 있음

##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부록 표 2] 2020년도 중앙정부 이전지출의 기능별 재정 규모(문화예술부문-공모/지자체)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40	유·초등학교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지원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지원	600	지자체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5,000	지자체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1,000	지역 문화예술기관, 지역 예술대학 졸업생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2,000	지역 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290	지역내유희파출소, 지역 주민 등
[지역문화정책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8,900	지자체
박물관정책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9,844	지자체 및 교육청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	1,000	지자체 (광역 및 기초)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640	지자체 (광역 및 기초)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운영 지원	420	지자체, 지방교육청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2,565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역문화 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1,800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 컨설팅(지역지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역지원)	지역문화컨설팅(지역지원)	300	지자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제주)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	30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원	9,000	지자체
합계			53,429	

\* 단위사업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단위사업이 어느 재정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예술창작역량강화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원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고 있음

## ■ 민간단체 대상 지정사업 (공공기관 포함)

[부록 표 3] 2020년도 중앙정부 이전지출의 기능별 재정 규모(문화예술부문-지정/민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문화다양성 교육)	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문화다양성 주관행사 및	1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캠페인 지원)		
문화·인문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인생나눔교실	3,3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인문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1,7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인문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96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세종학당재단운영지원	3,549	세종학당재단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세종학당운영및지원	33,091	세종학당재단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한글문화예술행사지원 (한글산업화기반조성)	30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공공언어 개선 지원	4,302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대한속기협회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특수언어진흥기반조성	290	한국수어·점자관련 민간단체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산업진흥기반조성 (인공지능기반빅데이터 구축및활용)	193	언어관련 민간단체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산업진흥기반조성 (세계한국어학대회개최)	600	세종학당재단
전통문화진흥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영남국학진흥지원)	2,045	한국국학진흥원
전통문화진흥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호남국학 진흥 지원)	1,500	한국호남진흥원
전통문화진흥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강원국학 진흥 지원)	500	울곡연구원
전통문화진흥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2,294	한국국학진흥원
전통문화진흥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국학진흥청년일자리창출	2,000	한국국학진흥원
전통문화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기념재단 운영지원	85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통문화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기념식 지원	20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통문화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기념·유적조사 연구	20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통문화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기념공원 조성	4,40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전통생활문화활성화지원 (전통서당문화활성화지원)	1,460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전통생활문화활성화지원 (전통문화인성교육)	45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전통생활문화활성화지원 (풍석학술진흥연구)	700	(재)풍석문화재단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전통놀이문화조성및확산	1,87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남북한전통문화교류	5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전통문화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세시풍속 맥 잇기	17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진흥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2,671	한국국학진흥원
전통문화진흥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전통문화 창업 지원	2,0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진흥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전통문양 산업 활용기반 구축	750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8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지원	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	1,25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지원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2,05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2,04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육성지원	한복분야 육성 지원	5,61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육성지원	한지분야 육성 지원	1,0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육성지원	한식분야 육성 지원	770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육성지원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	300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10,8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한중일문화교류	900	한일문화교류회의등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86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99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문화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97	지역문화진흥원
[예술정책관]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오페라단 운영	8,178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발레단 운영	8,871	국립발레단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합창단 운영	4,502	국립합창단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서울예술단 운영	6,158	서울예술단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공예디자인진흥원 운영	5,718	공예디자인진흥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4,671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정동극장 지원	5,245	정동극장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3,828	국립현대무용단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극단 운영	11,085	국립극단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1,134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1,255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국악방송 지원	9,376	국악방송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1,607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6,96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6,852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단체지원	예술의전당 지원	-	9,412	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3,922	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653	공연연습공간운영 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공연장 안전진화시스템 구축	3,008	공연장 안전관리 사업 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1,173	전통문화 확산 및 콘텐츠 개발 등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중소규모 문화관람 이용활성화	573	문화 큐레이팅콘텐츠 구축 등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850	문화비 소득공제사업 운영 등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국립한국문학관자료수집	1,000	국립한국문학관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국립한국문학관법인운영	400	국립한국문학관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200	한국문학관협회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학나눔 도서보급	5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분야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75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세계한글작가대회	300	국제펜한국본부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한민족이산문학 지원	400	한국문학번역원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의 산업화 추진	8,06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1,5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3,735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디자인및공간문화진흥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개최 지원	48	(사)한국건축가협회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미술주간	80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한국미술해외출판지원	3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84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운영	3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미술품 유통 및 감정기반 구축	1,82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3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	1,176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재)아름다운맵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공예문화 진흥	1,719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	48,966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3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1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	2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1,900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해외유통플랫폼 지원)	36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코로나19 피해지원)	5,500	17개 광역 시·도문화재단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허황후 창작오페라제작지원)	500	김해시 지정 주관처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독도사랑축제)	250	(사)라메르에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서울국제무용콩쿠르)	500	(사)서울국제문화 교류회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900	베니스비엔날레추진단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문학포럼)	50	미정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윤이상평화상 제정)	163	윤이상평화재단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아트아시아)	200	아트아시아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일루전페스티벌)	450	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전통예술기획자양성 프로젝트)	90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1,300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사립미술관전문인력 지원)	1,000	(사)사립미술관협회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용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0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170	한국지역문화지원 협의회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1,633	정동극장,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 사업	1,099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1,200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413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 원	85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81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전통예술계기성행사지원	400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공연예술실태조사	20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문화예술기부활성화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인증)	150	(사)한국메세나협회 외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3,900	(사)한국메세나협회 외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로인사합시다)	100	(사)한국메세나협회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방방곡곡문화공감	15,75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공연예술관람료지원	15,88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추경)미술전시관람료지원	4,8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정책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진흥지원	박물관운영 역량강화	180	(사)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진흥지원	국제교류전시 지원	500	(사)한국사립미술관 협회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역문화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969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97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300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전국80여개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4,50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5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1,000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650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문화자원봉사 사회확산 지원	50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	85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2,066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100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500	민간기관
지역문화진흥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733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사서자격증 발급	14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해외공공도서관 조성	해외공공도서관 조성	47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합계			382,985	

## ■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 (공공기관 포함)

[부록 표 4] 2020년도 중앙정부 이전지출의 기능별 재정 규모(문화예술부문-공모/민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무지개다리 사업)	2,200	지역공공 문화기관 등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한글단체 행사 지원	613	한글및문화예술 민간단체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200	지역 문화관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파견)	1,596	지역문화재단
기초예술역량강화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예술역량강화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5,350	개인,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3,200	문화소외지역 소규모(400명 이하)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28,41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	1,00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	2,30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4,00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5,327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	전국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 ODA	문화예술 ODA	40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문예지발간지원)	740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단체 기관지의 발간물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문학비평및연구지원)	100	문학분야의 비평 및 연구조사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민간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250	숙식 제공이 가능한 문학집필공간(시설)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문학관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전시사전연구지원)	25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의 연구 사업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전시지원)	420	국내에서 개최되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공간지원)	1,000	비영리전시공간 및 사립미술관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 (비평지원)	70	비평가 개인또는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추경)시각예술창작육성 (전시공간 긴급지원)	850	민간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단계별제작지원)	6,390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 원)	300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지 발간 및 비평연구와 학술행사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300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준비과정 및 제작비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7,665	공연예술을 활용한 전국규모축제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장대관료지원)	6,081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4,900	공연예술 전용공간의 공연 운영사업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900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110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677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660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5,250	예술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300	예술인 및 단체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1,960	만 39세 이하 예술인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008	만 35세 이하 예술인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5,278	문화예술 전공자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을 고용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예술단체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2,700	민간공연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아르코공공예술사업 (관리형/기획형/자율형/연구)	3,800	개인 및 단체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공연예술작품전략적 해외진출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427	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611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200	지역(광역/기초)문화 재단, 민간예술단체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19,804	예술단체
[지역문화정책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립·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지원	4,469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693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550	대학박물관
박물관정책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박물관·미술관 예비학예인력 단기체험 일자리 지원	1,890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단체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60	민간단체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큰글자책 보급	300	민간단체
도서관정보정책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100	민간단체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	480	민간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추진단]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 활성화	90	문화·관광산업체
합계			141,004	

한국 문화예술 자원흐름 동향조사:  
분석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인쇄일 : 2021.2.10.  
발행일 : 2021.2.15.  
인쇄인 : 새한문화사